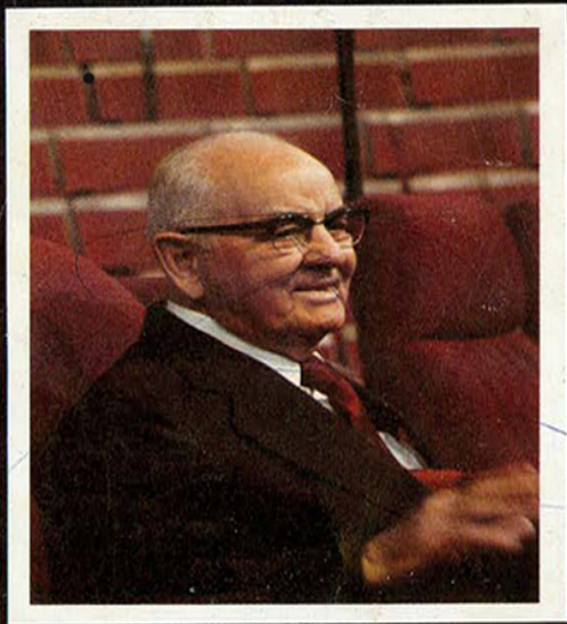


성도의 빛 1 1983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52 반연차 대회 보고





501 메이스트리 중심가에 있는 바플 스퀘어

차 례

성도의 빛 1 1983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블
앤 멜론 테너
데리온 지 뮌니
고든 비 힐클리

십이사도 평의회

에스라 테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렌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문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에버튼
보르스 알 배롱키
엘 롬 베리
데이비드 비 레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고문

앤 리셀 벨라도 이세
로렌 시 딘
렉스 디 피네가
찰스 에이 디데이
조지 피 리
에프 앤저오 부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52 만연차 대회 보고 2

주님께서 의를 기대하심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3

이 사업이 지향하고 있는 것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 6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데이비드 비 레이트 장로 12

"경건과 더불어 나의 심령이 기꺼워하며" 제이 리처드 클라크 감독 16

믿는 자와 행하는 자 마크 이 피터슨 장로 20

교회 본부 직원 지지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 24

"뛰어라 소년이어, 뛰어라" 토마스 에스 문슨 장로 25

말일성도 찬송가 프랭클린 디 리차즈 장로 30

신앙-생명의 힘 랭스 디 피네가 장로 34

하나님을 바라봄 랭스 디 피네가 장로 38

"감동은 책망할 것이 없고" 엘 롬 베리 장로 42

그리스도의 일곱 가지 사명 보르스 알 배롱키 장로 46

아른 신권 청문을 활동화시키는 일 시 프래테릭 빙겔 감독 50

활동 축진을 증진시키는 방법 마이클 니콜라스 53

아른 신권에 생기를 불어넣음 로버트 엘 맥켈 장로 55

아른 신권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 61

"어려분의 아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십시오" 페이지 버크 피터슨 감독 66

하나님의 신권 데리온 지 뮌니 부대관장 70

성숙의 의미 데릭 에이 커스버트 장로 72

감사와 보은 데리온 지 뮌니 부대관장 76

경건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80

하나님과의 언약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85

영속적인 가족 관계의 원리 에스라 테프트 벤슨 회장 88

값진 진주 제이 포터스 파이안스 장로 92

순수한 신앙 생활 마빈 제이 에버튼 장로 94

기운을 내라 닐 에이 맥스웰 장로 99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판리 직원
구세주의 천구가 되고
종이 되고 아들이 됩시다 로버트 이 왈츠 장로 106

"아무리 빛이 약해지더라도" 본 제이 케이스토른 장로 110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조지 피 리 장로 114

사랑으로 친절히 대하자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 118

권고받은 대로 행합시다 앤 멜론 테너 부대관장 122

내일을 위한 준비 빌리 엘 브라운 관리 감독 123

가정에 복지 원리를 적용함 마이클 이 스미스 본부 상호부조의 회장 128

가족이 함께 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축복 딘 자먼 133

성경적 시련 속에서 우리가 받는 축복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136

자립심 데리온 지 뮌니 부대관장 141

지역 지도자 메시지 한 인살 장로 146

지역 소식 147

해외 소식 152

성도의 빛 1년 정기
구독료는 3,600원입니다.
일반으로 1년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년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용 우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독
카드/지부의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제210호, 제19권 제1호
통 목: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1983년 1월 1일(월간지)
발행인 권 편집인: 유진 피 힐
번 역: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외 구부 514091
인쇄인: 삼화인쇄주식회사 유진 피 힐
STOCK NO. PBMA053AKO PRINTED IN SEOUL, KOREA 1/83 International magazine

© 1983년
제1년 1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리 조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52 반연차 대회 보고

1982년 10월 2-3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 태버나클에서 열린

대회의 일정 및 말씀

스펜서 더블류킵볼 대판장은 10월 연차 대회의 개회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을 더 많은 장소와 사람에게 전할 날은 바로 지금, 이곳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편리보다 복음을 전할 의무에 대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름이 편리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서 회생이 좀더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선교사의 봉사 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선교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예언자는 이러한 외침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데 주저하거나 지치면 안됩니다. 우리는 절음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킵볼 대판장은 또한 세계 정세에 관해 언급했다. “이 위험하고도 중요한 순간인 오늘날 이 세상에는 악이 널리 만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모든 혼란의 와중에서도 우리는 내적인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은 것, 즉 주님 보시기에 참을 수 없는 것과 마음과 육신과 우리의 주변을 오염시키는 것과 야비한 것, 도적질, 거짓말, 사모, 간음, 동성애, 낙태 및 신성한 생명의 창조력을 남용하는 모든 일, 살인과 이와 비슷한 모든 것, 모든 형태의 타락과 죄에 대하여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152 반연차 대회는 대판장단 제2보좌인 매리온 지 블니 부대판장과 대판장단 보좌인 고든 비 험블리 부대판장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연차 대회는 토요일에 4번과 일요일에 2번을 포함해서 모두 6번의 모임이 있었다. 토요일 모임은 복지 모임, 토요일 새벽, 오전, 오

후 모임 그리고 저녁 신권 모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요일 모임은 오전, 오후 모임이 있었다. 회복기에 있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그랜드 리차드 장로를 제외한 모든 총관리 역원들이 참석했다.

이 모임에서 2가지의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 첫째는 십이사도 정원회와 경건 편집위원회의 일원인 보이드 케이 페커 장로가 발표했다. 그는 말일성도 경건의 최근 신관에 관해 보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근 총관리 역원들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물론경’이라는 표제에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약’(가칭)이라는 부제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을 계속했다. “4년의 경전에서 나온 참조 성구는 세계사에서 모아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역에 대한 경전적인 자료를 거의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중요한 사실은, 404개의 스테이크 지역에서 미국 전역에 방송할 수 있는 인공 위성 수상 안테나를 사용한 것이었다. 이러한 장치로 말미암아 약 250,000명의 교회 회원이 연차 대회 실황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 1982년 4월 연차 대회에서는 약 90개의 인공 위성 설비가 사용되었다.

대회 진행의 일부 또는 전부가 85개 이상의 상업 방송국과 1,300개의 유선 텔레비전 방송국 그리고 55개 이상의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미국 전역에 방송되었다. 약 1,770개의 집회소에 신권회가 폐쇄 회로를 통해 영어로 방송되었는데 이 집회소에는 미국과 캐나다에 1,646개,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 114개, 한국과 필리핀에 10개로 되어 있다. *

주님께서 의를 기대하심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개인 비서, 디 아서 헤이코르트 대독)

“이 위험하고도 중요한 순간인 오늘날 이 세상에는 악이 널리 만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교회의 연차 대회에서 다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 대회를 고대하고 이 대회로부터 힘을 얻으며 주님의 영감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고와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모든 말씀울 잘 듣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내 인생이 풍요롭게 되며 내부의 영혼이 생명의 떡으로 인하여 영양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 훌륭한 태버나클 합창단이 방금 우리를 위해 노래를 불러 주었으며 우리의 대회 모임에 많은 영과 기쁨을 더해 주었습니다. 최근에 이 합창단은 또 다른 기념일을 경축했는데 자유 세계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라디오 방송인 “진리의 말씀과 음악”이 반세기를 넘어섰습니다. 나는 태버나클 합창단과 파이프 울겐의 아름다운 선율을 듣노라면 천국에도 아름다운 음악이 있으리라는 확신으로 위안을 받으며 그것에 대하여 크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세계에는 음악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

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세계에도 아마 음악으로 통하는 어떤 음이 존재할 것입니다.

나와 킴볼 자매는 지난 6개월 동안 거의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소위 노쇠 현상이라고 하는 상태로 인하여 어느 정도 제약 받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끝까지 참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더 분명하게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모두 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나는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매일 교회 본부에서 총관리 직원들과 모임을 가지며 매주 목요일에는 신전에서 대관장단 및 십이사도 평의회와 모임을 갖습니다.

나는 약간의 여가도 가졌습니다. 여름에는 킴볼 자매와 함께 솔트레이크 밸리 무용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1847 파이어나너 퍼레이드 기념일에 말을 탔으며 로미오에도 참석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프로보에 있는 새로 확장된 브리감영 대학 경기장에서 6만 5천 명의 많은 관중과 함께 브리감영 대학과 공군 팀의 미식 축구 시합을 보았습니다.

나의 유능하고 헌신적인 보좌인 태너 부대관장님, 롬니 부대관장님, 힐러리 부대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이 매일 나에게 보여 주는 충성심과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모세가 여러 해 동안 경험한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말렉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물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출 17: 11-12)

모세는 내가 사랑하는 총관리 직원들로부터 받은 것보다 더 큰 지지를 받지는 못했음이 분명합니다. 나는 또한 벤슨 회장과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 여러분과 다른 총관리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은 모두 주님

의 포도밭에서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픈 것은 나의 사랑하는 친구인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님이 오늘 아침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1938년부터 이 연단에 늘 앉아 계셨습니다.

전세계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에 대회를 가진 이래 거의 50개에 달하는 새로운 스테이크가 승인받거나 조직되었으며, 다섯 개의 신진 건물의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왕국의 성장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식입니다. 나는 늘 주님의 교회의 수적인 성장뿐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위험하고도 중요한 순간인 오늘날 이 세상에는 악이 널리 만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모든 혼란의 와중에서도 우리는 내적인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았으며 감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생각하노라 하면 주님의 다음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눅 12:48)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풍요한 인생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의를 지키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사방에 부정이 가득 차고 악마는 그가 권세를 갖고 있는 오늘날 그에게 남아 있는 시간을 완전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은 것, 즉 주님 보시기에 참을 수 없는 것과 마음과 육신과 우리의 주변을 오염시키는 것과 야비한 것, 도적질, 거짓말, 사통, 간음, 동성애, 낙태 및 신성한 생명의 창조력을 남용하는 모든 일, 살인과 이와 비슷한 모든 것, 모든 형태의 타락과 죄에 대하여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일성도로서 늘 경계해야 합니다. 각 개인과 각 가족이 악마의 사술과 화살을 막고 주님의 위대한 날에 대비하는 방법은 죄막대를 단단히 잡고 더 큰 신앙을 행사하며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회개하며 지상의 주님의 왕국 곧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사업에 열심히 종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곳에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를 위한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친한 모든 사람이 이 신성한 말일의 구축 사업에 참여하시도록 권고합니다.

우리 가족을 영예롭게 하고 우리의 행복한 가정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가정과 가족에 관하여 말씀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복지에 관련하여 몇 가지 더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미국)에는 한 가지 악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린이 유폐입니다. 소중한 어린이를 이런 방법으로 잃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전하며 통증을 금치 못합니다. 시몬의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께 끊임없이 자녀를 지켜 보시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이 점점 커지는 악과 인간의 계교의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가르치고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악마는 죽지 않았으며 잠자고 있지도 않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주 어린이에 관하여 이야기하셨으며 양처럼 어린이를 주님의 걸음으로 불러 모으셨으며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마 18:6)

어떤 이유로 또 어떤 목적으로든지 어린 자녀를 그 어머니의 품에서 떼어 놓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나의 이 간절한 호소를 듣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하는 이들의 눈물과 호소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들이 이 어린 자녀를 미탄에 잠긴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낼 수밖에 없게 되도록 간구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을 더 많은 장소와 사람에게 전할 날은 바로 지금, 이곳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편리보다 복음을 전할 의무에 대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름이 편리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서 회생이 좀더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시

키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열심히 헌신해야 합니다. 선교사의 봉사 기간이 짧아졌으므로 이제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교사로 나가려는 열의를 갖고 있고 가족 및 교회의 여러 조직을 통하여 잘 훈련받고 준비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부모의 격려를 받고 인생의 초기부터 저축하는 정신으로, 복음에 관하여 공부하고 기도하는 정신으로, 신학 연구원 중등부와 대학부에 참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자신의 생활을 깨끗하고 합당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의 사도들에게 하신 작별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막 16: 15-16)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데 주저하거나 지치면 안됩니다. 우리는 절음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복지뿐 아니라 현재 이 참된 교회의 회원이 아닌 수많은 형제 자매의 영원한 복지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는 1842년 9월 6일에 에언자 요셉 스미스가 나부에서 교회로 보낸 편지의 말씀을 읽으면 몸이 떨립니다. “이 위대한 대업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려느냐? 전진하여…… 용기를 내라……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승리를 쟁취하자.”(교성 128: 22)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비기독교인인 사이비 종교라고 잘못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요셉 스미스를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사실과 동떨어지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이단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의 교회는 마지막 날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 불리우리라.”(교성 115: 4)

우리는 “인간들에게 구원을 전할 이롭이나 길이나 방법이 달리 주어지지 아니하였고, 다

만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만 구원받을 수 있”(모 3:17)음을 믿으며 이것이 우리를 간증으로서 전세계에 외칩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분과 그분의 복음으로 인하여 침례의 물 안에서 우리 죄가 씻겼습니다. 죄와 부정한 것은 마치 불에 탄 것처럼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청결해지며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화명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간증으로서 인간은 구원받기 위하여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로 인한 구원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모 3: 18)어야 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며, 예언에 따라 기록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저들이 저들의 죄를 어떻게 사함 받는다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다.”(나이 25: 26)

회복이 이루어진 후 지난 한 세기 반 동안 에언자 요셉 스미스로부터 시작하여 말일의 하나님의 에언자들은 큰 권능과 진실한 음성으로 이 위대한 말일의 사명의 신성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속하는 권능을 간증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히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나의 친구이며 구세주이시며 나의 주님이며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성도들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영을 지니며 해의 영광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상수를 받도록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이 대회를 시작하면서 그분이 축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도록 간구하며 또한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이 사업이 지향하고 있는 것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보좌

“우리의 이 사업은 구속 사업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높이 들어 올려 주고 구원하는 사업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방금 킵블 대관장님의 유능하고 충실한 비서인 디 아서 헤이코르 형제님이 읽은 대관장님의 메시지에 관하여 내가 대관장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 모두를 대신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킵블 대관장님, 대관장님의 권고와 특히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 곧 우리의 구세주이며 구속주에 대한 간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대관장님의 간증에 덧붙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그는 전 우주의 지배자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육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메시야로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기적을 행하신 분으로서 지상에 살았던 단 한 분의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희생물로 그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는 그 위대한 희생의 행위를 통하여 모든 인간의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그가 제살일에 무덤으로부터 일어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고전 15 :

20)가 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서 그분을 보았으며 또한 이 대륙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만져 보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성령의 권세에 의하여 이 위대하고 뛰어난 진리에 관하여 간증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찾고 배우려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나타나심으로써 경전에서 말한 “때가 찬 경륜의 시대”(교성 112 : 30)가 시작되었다는 간증을 덧붙입니다.

킵블 대관장님, 대관장님을 위하여 드리는 온 세상에 있는 이 백성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윌포드 우드럼 대관장님의 90회 생일에 이반 스티븐즈가 쓴 이 아름다운 찬송가를 새로운 마음으로 부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를 위하여
언제나 기도하네
주께서 위안과 즐거움을
그에게 주시기 비읍니다.
밝은 빛 비추기 원합니다.
(찬송가 317장)

기도에 관하여 말씀드리는 가운데 전세계에 있는 우리 교회 회원들이 모든 종관리 역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위대하고 신성한 책임이 맡겨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힘이 부족하므로 대업이 그 약속된 종착지까지 계속되려면 필연적인 위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보여 주신 신앙과 헌신, 타인을 위하여 행하는 측량할 수 없는 봉사, 여러분의 덕스러운 생활, 여러분의 가정에서 보여 주는 선량함 및 개인적인 성실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런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

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을 가운데도 열의를 갖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내 사무실로 온 편지의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익명으로 해 두기 위하여 이름을 바꿨으며 좀 줄이기도 했고 일부는 중간에 표현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힝클리 부대관장님께,

“병원의 엘리베이터에서 부대관장님을 뵈었을 때 편지를 드려서 저에게 생길 몇 가지 일을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나이 십육 칠 세가 되었을 때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교회와 아무 관계를 맺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관심을 가진 감독님이 오셔서 로드쇼를 준비하기 위하여 어떤 장면을 만드는 것을 도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약 열흘이 지났으며 그 감독님이 다시 저에게 와서 그 장면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으나 저는 또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했으나 어떻게 만드는지 모른다고 했다고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는 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마침내 저는 승낙하고 그 장면을 만드는 일을 착수했습니다.

“그 일이 끝나자 저는 ‘이제 원하시던 장면이 되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는 내 할 일은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감독님은 그 로드쇼가 여러 와드로 옮기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장면을 옮기고 제대로 맞추고 조심스럽게 운반하려면 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침내 또 승낙했습니다.

“그 감독님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저를 바쁘게 하셨으며 지도 참여해서 그 일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분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시고 새로운 감독님을 모

시기 되었는데 그는 그 과제를 맡으시고는 계속해서 저를 몰라 주셨습니다.

“스미스 감독님은 저에게 선교사로 나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렌슨 감독님이 오신 이후로 그분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마침내 저는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과 저는 부모님에게 제 결심을 말씀드리러 갔습니다. 부모님은 감독님에게 선교사 경비를 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감독님에게 제가 진심으로 가고 싶어한다면 제가 일을 해서 저축하여 직접 선교 사업 경비를 충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대관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제 시력은 별로 좋지 않아서 어디에 갈 때는 다른 사람이 데려다 주어야 했습니다. 저는 만 16세가 되었을 때 무엇보다도 자동차 운전을 하고 싶었으며 아버지가 저를 여러 안과 의사에게 보이셨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오른쪽 눈의 시력은 20/800이었고 왼쪽 눈의 시력은 20/50이었으며 난시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로 가기 위한 돈을 충분히 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돈을 모으기 위하여 6개월 내지 8개월 동안 백화점에 있는 간판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마침내 감독님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셨으므로 우리는 다시 부모님께 말씀드리러 갔습니다. 저는 1천 불을 모았으며 감독님은 아버지에게 장로 정년회에서 나머지 돈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그대로 앉아 계시다가 만일 누군가가 아들을 도와 준다면 자기가 돕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서류를 작성했으며 1961년 5월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일본으로 갔으며 그 사람들을 사랑했으며 거기에서 선교사로서 얻은 경험을 좋아했습니다. 동반자와 저는 여러 사람을 침례주어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귀환한 후에 저는 다시 그 간판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동안 점심 식사하러 갈 때마다

길을 따라 걸어오는 젊은 여성을 보곤 했는데 그녀도 대체로 같은 지역에서 일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여성을 전에 어디에선가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누구인지 생각이 안났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선교사 동반자 한 사람이 귀환해서 얼마 후부터 우리는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 시력 때문에 그가 운전할 도말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전화를 해서 데이트하고 싶다고 했으므로 저는 데이트 상대를 찾느라고 다급하게 이곳 저곳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파티에 갔는데 그가 누구를 동반하고 왔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역시 일본에 있었던 마릴린 존스 자매를 데리고 왔는데 나도 거기에서 한번 잠깐 그녀를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녀가 바로 수개월 동안 점심 식사를 하러 갈 때마다 스쳐 지났던 제가 알아보지 못했던 여성이었습니다.

“이 파티가 있던 후 저는 2주일 동안 가족과 함께 캘리포니아로 가 있었는데 집에 돌아오니 그 선교사 친구는 제가 그 파티에 데리고 갔던 소녀와 데이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똑같이 해주겠다고 생각하고 마릴린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자신이 차를 운전하지 못하면서 데이트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의 여동생이 운전했으며 우리는 다른 여덟 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구기 시합을 보러 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어떤 젊은 여성이든 다시 저와 데이트하고 싶은 마음이 없게 하기에 충분했으나 저는 우리 가족이 초크체리(북미산 벗나무의 열종, 그 열매)를 따기 위하여 큰 협곡으로 갈 때 다시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끼리만 데이트하게 되어 아버지가 저를 태우고 마릴린을 데리러 가면 다시 우리가 아버지를 집에 모셔다 드린 후에 데이트하고 다시 아버지를 모시러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녀를 다시 집까지 태워 준 후에 우리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트할 때 저는 결혼을 하자고 했으

나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몇 번 더 결혼을 신청해서 마침내 생각해 보겠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니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핑클리 부대관장님께서 솔트레이크 신전에서 우리의 결혼 의식을 집행하셨습니다.

“핑클리 부대관장님, 당시에 저는 이 젊은 여성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나 17년이 지난 지금, 저는 과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만큼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다섯 명의 훌륭한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교회에서 수많은 직책을 맡았습니다. 합창단, 아론 신권 교문, 장로 정원회의 모든 직책, 워드보조 서기, 칠십인 정원회 회장, 집행 서기를 했으며 지금은 감독단 보좌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백화점의 간판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 13년 전에 작은 집을 샀으며 이제 저의 가족이 많아짐에 따라 집이 작아졌기 때문에 집을 확장해서 두 배의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약 3년 전에 일을 시작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정말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2년 전 6월에 어떤 새로운 의사에게 가서 눈을 진찰받았는데 그는 저의 운전 면허증에 어떤 제한 사항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면허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정도의 시력이면 아마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앉아 있자,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가 운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의사는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내는 저에게 운전 교육 학원 입학 원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마친 후에 저는 면허증을 취득하려 갔으며

검사관들이 저의 눈을 검사했습니다. 그의 사가 제 눈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편지를 써 주었는데 아마 저는 밤에는 운전하면 안된다고 했을 것입니다. 검사관은 그 편지를 펴서 즉시 다 읽었습니다. 그는 상사에게 보고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아주 사소한 제한 사항만 두는 편지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링칼리 부대관장님, 주님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제 눈이 그렇게 많이 좋아진 것이 얼마나 행운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것이 주님이 행하신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했으며 이곳 지상에서 그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저에게 실망하신 적도 있으며 또 틀림없이 그러시리라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저와 저의 가족에게 주신 축복에 합당하게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는 감사의 말씀과 간증으로 편지를 끝내고 서명했습니다. 나는 이 편지가 간결하면서도 매우 감동적으로 이 사업이 지향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꽤 긴 편지를 시간을 들여서 읽어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의 이 사업이 구속 사업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눈이 들어 올려 주고 구원하는 사업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은 자신의 내부에 있는 위대한 잠재력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의 사업은 자립심을 키워야 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자녀들이 화평과 사랑과 감사의 분위기 속에서 자랄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격려하고 교화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읽어 드린 편지를 기억하신다면 이 사람은 16세 내지 17세의 소년 시절에 그 연령의 수많은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목표없이 위험하게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

멸로 이끄는 넓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신앙심이 깊고 헌신적인 사람이었던 감독님이 그가 가고 있는 길을 알고는 화가로서의 그의 재능을 인정하고 그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그 재능을 사용하도록 목표를 주는 방법을 찾아 내었습니다. 그 감독님은 현명하게도 대부분의 젊은이는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 그런 목표에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와드에서는 감독님이 원하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 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소년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비활동적인 소년은 이 일을 할 능력이 있었으며 감독님은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부탁하면서 칭찬해 주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열진로 떨어져 나간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활동화시킬 훌륭한 열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잘 사용될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재능을 필요한 곳에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목표를 주는 것이 지도자의 할 일입니다. 내가 책이라고 부르는 이 편지의 소년은 반응을 보였으며 곧 자신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대신에 교회로 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교사로 나가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때 아니오보다는 에라고 말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던 젊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의 부친은 완전히 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선교사 비용을 직접 모아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독립해야 한다는 그 주장에는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그는 일하러 갔으며 자신에게 필요한 많은 것을 준비하고 돈을 저축했습니다. 그가 1천불을 모았을 때 그 감독님은 다시 영감을 받고 책이 선교 사업을 나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로 정년회에 있는 형제들이 그를 도와줄 것이며 그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친은 자기 아들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다시 깨달고 적당하게 대응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하듯이 그 일을 떠맡았습니다.

나는 책이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을 때 처음

으로 일본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나는 그를 두 번 내지 세 번 집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언어 혼란권이 없었으므로 젊은이들이 언어에 대한 혼란도 없이 현지에도 도착하면 바로 선교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나는 이 젊은이가 심각한 시력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언어를 체득하고 힘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한 노력과 헌신적인 태도가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겸손함과 열렬한 기도로 도움을 간구하여 주님께 의지했습니다.

나는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수많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의 경우는 기적이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또한 나중에 그와 결혼한 그 젊은 여성을 일본에서 만나고 여러 번 집견했습니다. 그 자매는 훌륭한 영성과 깊은 신앙과 활달 만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교 지역에서 서로 한 번 보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하나의 공통적인 감정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위대한 희생적인 봉사의 태도에 참여하여 일하는 동안 다른 사람과 함께 간증을 나누면서 배웠던 새로운 언어였습니다.

그의 편지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는 나에게 그들의 결혼식을 집행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결혼은 솔트레이크 신전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신권의 권능에 의하여 주님의 집에서만 죽음이 깨뜨릴 수 없고 시간도 파괴하지 못하는 성약을 맺음으로써 현재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하여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부부가 다 주님의 집에서 맺은 거룩한 성약을 참되게 지킨 것은 참으로 그들의 명예입니다.

다섯 명의 훌륭한 자녀는 그 결혼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존경으로 가득 찬 가족입니

다. 그들은 자립 정신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확장시킨 이 작은 집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모여서 서로 권고하고 배우는 가정입니다. 그곳은 경전을 읽는 가정입니다. 가족 기도와 개인 기도가 있는 가정입니다. 봉사를 가르치고 모범으로 행하는 가정입니다. 단순한 가정이며 가식이 없는 가정입니다. 큰 부는 없지만 큰 평화와 선함과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엡 6:4) 자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에서 충실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에게 오는 부름은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자매와 어린이를 위한 조직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지역 사회와 국가의 선한 시민입니다. 그들은 이웃과 화평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인생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대회 광경



지금 그들은 그의 시력이 향상된 일에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친절하시고 은혜로우신 주님의 공입니다. 또한 이것은 복음의 정수이며 병고침과 회복의 권세로서 그 위에는 인식과 감사가 뒤따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지향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 10:10) 이 나의 친구들은 세상적인 것에서 크게 부하지는 않지만 풍요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힘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음과 같은 고요하면서도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우리는 그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길이어 진리요 생명이며(요 14:6) 이 사업은 그분의 사업이며, 참되며 기쁨과 화평과 병고침은 교회의 가르침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질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교성 89:78)

책의 감독으로 봉사했던 두 형제님은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현재의 그의 위치를 안다면 그들은 마음속

으로 흐뭇한 만족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 훌륭한 재활동화 사업을 위하여 밤낮으로 봉사하시는 이 두 분과 같은 감독님이 수천 명도 더 됩니다. 또한 이 교회에는 커다란 관심과 조용한 사랑의 표현과 감독 및 다른 사람으로부터 봉사하는 목표를 받고 마음속으로 감동을 받아 다시 활동화된 재과 같은 사람은 수만 명도 더 됩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사업은 위대한 구속 사업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훌륭하고 영구적인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는 모두 더 많이 행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이며 그분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찾아 내고 강화시키라는 신성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들의 가정은 더 많은 사랑으로 가득찰 것이며, 어떤 국가든지 이러한 사람들의 덕으로 말미암아 강해질 것이며,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은 담당하게 권세를 갖고 신성하게 정해진 사명을 행하기 위하여 전진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사랑한다는 말은 동사입니다. 이것은 단지 말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 시험 기준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행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 역사적인 자리에 서서 이 대회를 위하여 지시받은 말씀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간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우리의 노력과 소망과 열의는 그의 거룩하신 이름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그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나아오시는 것을 보고 칩새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 1 : 29)

예수님은 모든 영혼이 영생의 축복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그의 복음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할 때 그의 백성을 위하여 약속된 모든 축복, 즉 믿음, 간증, 인내, 순종, 사랑, 지혜 및 그의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가져

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영혼에 특별한 성분을 심어 두셨으며 그것을 사용하면 인간이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도록 영향을 받게 된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좀 더 잘 전하며, 새로운 회원에게 더 깊은 관심을 보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 가족과 회원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싶어하는 선교사들은 이 하늘로부터 온 영향력을 그들에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 모두에게 심겨진 그 특별한 성분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동년배의 압력과 증오심과 이기심과 악과 죄까지도 극복하게 할 것입니다. 이 특별한 성분은 작은 거자씨처럼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것이며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받고 구세주께서 직접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 : 37-40)

사랑이 이 거룩한 성분입니다. 이것만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가족과 이웃과 완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으며, 이것만이 우리가 그의 사업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유대인 선생들이 각각 나뉘게 가르쳤으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두 종합하시고 두번째 것을 첫번째 것 “처럼” 만드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보여 주신 모범에 의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류에 대한 사랑을 복음의 중심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 : 35)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도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더욱 어려운 계명을 행하라는 명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이며, 인종이나 계급이나 가족 관계의 장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호적인 상호 관계의 일반적인 기준인, 우리에게 친절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진실한 우정과 심지어는 혈연 관계를 발전시키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범위에서 누구를 제외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웃이나 소유나 종족으로 인한 편견으로 인하여 구세주에게 가까이 나가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편견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경계하실 태도입니다. 사랑은 경계가 없으며 선의의 한계도 없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묻고는 계속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대답한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율법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눅 10 : 25-29) 저기에 대한 구세주의 비유의 말씀이 참된 사랑의 본질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겨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떠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 메나리온 들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어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

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눅 10 : 30-37)

사마리아인과 다른 두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는 한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을 지녔고 다른 사람은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의 멸시를 받았었습니다. 바로 그 유대인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그 불쌍한 사람에게 가서 도와 주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존 에이 윌소 장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완전한 핵심적인 본질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진실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또 기타 도덕을 어기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랑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참되지 못한 가운데에서는 사랑이 소멸됩니다……그러므로……어떤 남자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여성을 속이거나, 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도록 권하는 사람은 진실로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을 성나게 하거나 해지거나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사랑에는 잠인한 것이 없는데 이것은 거짓 가운데 진리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은 적극적인 활동력입니다.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사랑은 그것을 제공하려고 애씁니다. 약한 부분이 있으면 사랑은 거기에 대신 힘을 제공합니다……도움을 주지 않는 사랑은 거짓이거나 일시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을 확인하는 이런 기준은 모두 좋은 것이지만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합니다……이것이 가장 최종적인 기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고 목숨까지 주셨으며 그리하여 그의 육신의 형제 자매를 위한 그의 사랑의 진실됨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남독할 수 있는 종교, 윌트레이크시티 : 메저넷 출판사, 1944년, 72페이지)

이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봉사를 통하여 지식이 활용될 때 사랑은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 15:13)

금년 초에 한 상업용 비행기가 워싱턴 시 근처의 포도막 강에 추락했는데 어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승객이 자신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목격자들은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헬리콥터에서 내려진 구조대를 그가 잡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건지는 대신에 구조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헬리콥터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그는 또 그 구조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왜 저 사람은 구조대를 잡고 살아 나오지 않지?”라고 고함질렀습니다. 그의 근처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구조되는 동안 강가의 사람들은 그가 천천히 가라앉아서 얻을 물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 보았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썼습니다. “만일 단 한 사람이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을 얻는다면 그것은 수백만의 증오심을 녹이는데 충분할 것입니다.”(헬만 하겐, *광야의 예언자: 알버트 슈바이처 이야기*, 1948년, 표제지)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고 유쾌한 성품이나 훌륭한 유우어 감각을 지녔기 때문에 또는 드물게 이례적인 친절을 베풀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에게는 귀중하므로 그분은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하십니다.

전세계의 가난한 사람과 나병 환자와 버려진 어린이를 위하여 일하는 데 평생을 바친 테레사 수녀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최근의 어떤 대학교 기념식에서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

하십시오……[가난한 사람]은 땅에 굶주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솔트레이크 트리뷴, 1982년 5월 31일, 4-A페이지)

에언자 요세 스미스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기 가족만 축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전세계를 통틀어서 모든 인간을 축복하고 싶어합니다.”(*교회 정사*, 4:227)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요 15:10)

사랑은 하나님의 온사이므로 우리가 그의 율법에 순종하고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배울 때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합당하게 살고 세상을 극복하게 해주는 수단이 되는 거룩한 권능입니다.

키다란 명분을 내세우는 세상적인 방법을 구세주께서는 버리셨습니다. 그는 영향력을 얻기 위한 돈은 한 푼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출판물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무력은 그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그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상을 극소수의 사람의 마음에만 심으셨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가난했으나 만나서 경청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사람들 사이에 가서 힘이 아니라 꾸밈없는 사랑과 우정에 의한 말과 행동으로 새로운 이상을 펼쳤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업이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목적이시는 바를 마음과 마음으로 성취하십니다. 에언자 니파이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 나 무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두루 적셔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에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저희가 얻고자 하는 것이오니이다.”(니일 11

: 22)

모든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위대하심은 요한의 기록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윌즈 치니 부부는 캐나다의 핼리팩스 선교부로 부름을 받고 먼 북쪽의 뉴파운드랜드의 캄브록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선교부장은 어떻게 지시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지부를 강화시키십시오.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진물을 찾으십시오. 또한 선의의 대사가 되십시오."

이 충실한 부부는 많은 사람의 생활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치니 형제는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론 성공을 그의 사랑하는 동반자의 공으로 돌리고 보고를 끝냈습니다.

"수많은 예를 제쳐 두더라도 우리의 성공은 주로 치니 자매의 공로입니다. 그녀의 선교 사업은 모두가 사랑의 수고로서 정원 가꾸기, 통조림 만들기, 바느질, 이불 누이기 및 자선 봉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또한 친구로서의 훌륭한 모범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지부가 예배당을 갖는 일에도 왔으며 27명의 새 회원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과 수많은 비활동 회원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랑이 많은 부부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주님에 대한 사랑과 새로 발견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동사입니다." 이것은 단지 말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 시험 기준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행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까닭은 사랑은 말과 행동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님과 가까이 지냈던 주님의 사랑하는 자인 요한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요한일서 4:10-11)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개인의 죄에 대한 빚을 갚으심으로써 우리가 원한다면 정말로 우리를 그의 아버지에게 데려다 주십니다. 우리는 진실로 우리의 느낌을 전달하는 이 감동적인 가사를 노래합니다.

예수께서 배우신 사랑에 놀라며
주 내리신 큰 은혜에 나 당황하네,
이 죄인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큰 사실을 알 때 맘 심히 떨리네.

주 거룩한 보좌를 버리고 내려와
나와 같이 오만한 영혼을 살리려
주 하나님 넓으신 사랑을 배우사
속죄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었네.

죄값 인해 못박혀 피흘리셨으니
그 자비 사랑 헌신 내 어찌 잊으리
영화로운 보좌에 무릎 꿇 때까지
경배하고 찬양을 주님께 드리세.
(찬송가 114장)

하나님이 선포하신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모세서 10:39) 일과 영광을 최종적으로 성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합당하게 수행하기 바랍니다. 이 일은 완전해지기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또한 복음의 모든 율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행해집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리라는 큰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강화되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이 일이 그분의 사업이며 그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경전과 더불어 나의 심령이 기꺼워하며”



레이 리차드 클라크 감독
관리 감독단 제2보좌

“경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그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에게 주신 계시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 문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감적인 구절은 종종 “니파이의 성서”라고 일컬어 집니다. 그것은 다음의 감동적인 구절로 시작됩니다. “이는 경전과 더불어 나의 심령이 기꺼워하며 나의 가슴이 이를 깊게 사모함이라. 나의 후손들이 이를 배우게 하며, 또한 저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자 내가 이를 기록하노라.

“보라 나의 심령은 주님의 일로 즐거워하며…….” (나이 4:15-16)

이 말들이 내게는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나는 조그마한 물몬 마을에서 자라났으며 훌륭한 말일성도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이름을 공경하고 기도를 통해 그분과 대화를 나누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안 것은 아주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나는 소년이었을 때 그런 믿음을 가졌었으며 자란 후에도 의심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군에 입대하기까지는, 나는 물몬을 만나 보지 못했거나 물몬이즘에 대해 전혀 들어 보지 못한 사람들을 대면해야 하는 그러한 충격을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곧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복음 지식이 얼마나 제한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대답하기 약간 곤란한 교회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대내에서는 내가 유일한 물몬이었으므로 함께 상의할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경전은 군인용 작은 물몬경본이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물몬경을 리하이와 그의 가족이 광야에 머무른 부분까지만을 여러 번 읽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내가 교회의 활동적인 회원으로 성장하는 동안에는 경전과 예언자의 기록을 연구해야 할 특별한 필요나 절박성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거나 나와 교회에 대한 심한 조롱을 받을 때, 나는 겨우 가족과 교사들에게서 배운 개인적인 믿음을 이야기할 따름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말한 원리에 대한 훌륭한 모범을 보임으로써 지식의 부족함을 보상하려 했습니다.

해군에서 제대하고 나서 나는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음에 대해 알고 싶다는 갈망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경전을 이해하는 것과 훌륭한 말일성도가 되는 것이 동일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솔트레이크의 교회 선교본부에서 몇 가지 간단한 훈련을 받은 후에 나와 내 동반자는 남아프리카로 우리를 데려다 줄 배를 기다리면서 텍사스에서 몇 주일간 전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나는 앞으로 2년 동안 하게 될 일들에 대한 시야를 넓혔습니다. 나는 아주 빨리 결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케이프타운을 향해 항해할 때 예상치 않던 변화가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21일간의 항해 중 적도를 횡단할 때 우리가 탄 배의 보일러에 문제가 생겨 브라질의

래시페 항으로 가던 도중 배가 바위에 부딪쳐서 선체가 크게 부서졌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에인선의 구조를 받게 되었지만 종착지인 케이프타운에 도착하기 전에 배에서 84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게도 훌륭한 동반자와 함께 숙소를 썼습니다. 그는 헌신적인 복음 학도인 로이 스티븐스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역시 선교사로 봉사한 경험이 있었으며 그는 아들에게 교회 책을 커다란 상자로 하나 가득 보내 주었습니다. 복음의 전혀 새로운 세계가 나에게 열린 것은 바로 이렇게 역류되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은 내가 연구하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다른 서적을 비롯하여 모든 표준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이 항해에서 나는 물론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간증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수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바로 이곳에서였습니다. 내가 영원한 진리를 알고 싶다는 그칠 줄 모르는 열망을 갖게 된 것도 바로 이곳에서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던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군 복무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귀중한 보물을 그냥 지나칠 뻔 했다니! 나는 우리가 자유로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책임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젊은 에언자 요셉 스미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의 꾸준하고도 간절한 성경 연구는 마침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성신의 인도를 구하게 하였습니다. 이 일로 그는 구세주가 육신의 몸으로 성역을 베푸신 이태인간에게 주어진 최대의 계시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에언자로서의 일생을 통해 그는 끊임없이 탐구하고 상고하는 가운데 마침내 경전을 통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젊은이인 스펜서 더블류 킴블은 수사 케이트 자매가 스테이크 대회에서 말씀하실 때 열 네 살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하

었습니다. “그녀는 경전을 읽는 것에 관해서 아주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케이트 자매는 우리에게 ‘여러분 중에 성경을 완전히 다 읽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스스로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킴블, 너는 성경을 읽지 않았어. 왜 그랬지?’ 나는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이 나 혼자뿐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수천 명 중에서 자랑스럽게 손을 올린 사람은 아마 6명 남짓 했던 것 같습니다. 모임이 끝나자 나는 집으로 달려가 스스로에게 ‘할거야. 거꾸로 해내고야 말겠어.’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는 집에 가서 석유등을 들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성경을 펴고 창세기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아담과 이브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홍수를 지나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밤늦도록 읽었습니다.” (킴블 대관장이 말씀하시다, 솔트레이크시티: 메저렛 출판사, 1981년, 92-93페이지)

그는 매일 밤 조금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은 내용을 언제나 이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의 언약을 지키려 하였습니다. 일년에 걸려서 그는 읽기를 끝냈습니다. 이 일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킴블 대관장의 설교나 기록을 통해 우리는 그가 경전에 깊은 통찰력을 얻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노력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족들이 어린 자녀들까지도 경전을 사랑하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몇 년 전 지역 대회 때문에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갔을 때 나는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의 아들인 마크 맥콩키를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님은 어떻게 하여 경전에 대한 사랑을 키웠습니까?”

나는 그가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어머니로부터 경전에 대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다리미질을 하시는 동안에 나를 가르치시곤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예언자들에 관하여 이야기하시곤 하던 것으로 보아 그분이 경전을 매우 사랑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경전을 매우 사랑하였습니다. 나는 점차 나이가 들면서 녹음된 경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했습니다. 나는 나의 부친처럼 경전에 대해 잘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때때로 부친은 내가 듣고 있을 때 방에 들어오시곤 하였는데, 내가 듣고 있는 성구를 금방 알아맞히셨습니다. 나는 바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아들과 함께 물문경을 읽었다는 롬니 부대관장의 아름다운 경험담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그와 함께 물문경을 읽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니파이이서의 훌륭한 마지막 삼장을 한 문단씩 번갈아 가면서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나는 그의 목이 메이는 것을 보고 그가 잠기에 걸렸다고 생각했으나 우리는 마지막 삼장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읽기를 마쳤을 때 그 애는 나에게 ‘아빠, 아빠는 물문경을 읽으시면서 우신 적이 있으세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렇단다, 애야. 주님의 영이 물문경은 참되다는 것을 내 영혼에 증거하여서 나는 이따금 울기도 한단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오늘날 제게 일어났어요.’라고 그 애는 대꾸하였습니다.”
(대회 보고, 1949년 4월, 41페이지)

얼마 후에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막내 아들 브랜든과 함께 책 런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나는 롬니 부대관장의 이야기를 회상하고 우리는 함께 표준 경전을 읽지 않음으로써 굉장한 경험을 놓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선교 사업을 떠나기 전에 성스러운 책의 위대한 영웅들과 보다가 가까워지고 그가 그들을 본받아 생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15분 가량 혹은 한 장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

이 얼마나 좋은 경험이 되었는가! 나는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추천합니다.

모든 성스러운 기록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대단히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성서가 겪어야 했던 혹독한 시련과 박해를 생각할 때, 그것이 완벽한가 혹은 정확하게 번역되었는가보다는 그것이 모두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그것을 보존하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레이번의 생명은 니파이 백성들의 국가가 “불신앙에 빠져 멸망되”(니일 4:13 참조)지 않게 하라는 주님의 명에 의해 잃게 되었습니다. 먼 후손들이 그들의 경험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백성들의 기록을 보존해 온 니파이인 예언자들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쇄나 번역 기구가 없던 시대에 살았거나 정치적 박해 혹은 문맹 때문에 성경을 접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이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축복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1981년에 미국 성서 협회에서는 4억 4천 4백만 부의 성서를 전세계에 배부하였습니다. 1982년 말까지는 물문경 혹은 물문경의 일부가 57개 국어로 번역될 것입니다.

우리는 큰 회생의 대가의 수혜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지 않아도 될 어떤 구실이 있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단순히 경전을 읽는 데서 그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구세주께서는 니파이인들에게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성스러운 기록들의 가치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거듭 명하노니, 너희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라…….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내가 너희에게 진한 바를 기록하라…….

“선지자의 말을 상고하라. 이러한 것을 증거한 이가 많음이라.

“예수께서…… 저들이 받은 경전을 저들에게 풀어 전하신 다음 저들에게 다시 말씀하시

기를, 보라 너희가 갖지 아니한 다른 경전을 기록하기 바라노라 하시며……

“어찌하여 너희는 많은 성도들이 죽음에서 일어나 많은 자 앞에 나타나 저들을 가르치고 은총을 베풀 일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

“니파이가 기록하지 아니하였음을 기억하라.

“이에 예수께서 명하시라 이를 기록하게 하시니……”

“에수께서 기록된 모든 경전을 하나로 설명하여 가르치시고 나서, 이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전하라고 명하시니라.”(니삼 23:1, 4-6, 11-14)

나는 1973년에 신학 연구원 중등부와 대학부 책임자들에게 주신 돌니 부대관장의 강력한 권고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표준 경전에서 배운 것 이외에 복음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나는 셈에서 물을 마시고자 할 때 땅 속에서 바로 솟아 나오는 물을 마시고자 하지 소매들이 들어가서 더럽혀 놓은 시냇물을 마시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해석을 고맙게 여깁니다. 그러나 복음을 해석할 경우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참 뜻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물론경과 교리와 성약을 읽어야 하며, 여러분 자신의 어떤 생각을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전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의도로서 그 밖의 모든 경전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읽되 주님이 그것들을 말씀하실 때의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을 이해하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드리십시오.”(신학 연구원 중등부와 대학부 책임자 회의에서 행한 연설, 1973년 4월 13일)

나는 자신의 근면한 노력을 통해 복음의 간증을 갖지 못한 말일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간구하고 상고한 다른 사람들의 빛 속에서 사는 일이 여러분에게 가능할까요? 간증은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 구원의 방법을 주셨지만 우리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적인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1832년에 애언자 요셉 스미스가 주신 훈계를 마지막으로 전하고 나의 말을 마칠까 합니다.

“경전을 상고하십시오. 우리가 공표한 계시를 상고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진리를 밝혀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한다면 주님은 그의 성신의 권세로써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게 될 것이며, 깊이 생각해 볼 여지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실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전을 상고하고 예언서를 상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배우십시오.”(애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1-12 페이지)

이것이 나의 간증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경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그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에게 주신 계시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믿는 자와 행하는 자



마크 이 피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온전한 구원의 의미는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위에서 구세주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와 그분이 하나님님의 아들되심을 간증드릴 수 있는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독생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이심을 다시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친구—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우정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도 그분은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부활은 지상에서 살다 간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큰 은사입니까! 그분은 참으로 좋은 친구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권세를 지닌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활이 놀라운 일이 될 것이며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기쁘게 받아들이겠지만 주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는 것과 우리

의 부활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의 제명에 충실히 순종하고 그의 모든 의식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인간을 구원하는 절차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첫 단계는 신앙과 회개와 침례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더욱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의 의미는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위에서 구세주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구세주와 닮았는가를 알아봄으로써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진진했는가를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점점 그와 닮지 못한다면, 구원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은 매일의 영적인 성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씨앗에서 꽃이 피고, 어린 아이가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하여 마침내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단 한 번 뛰어 하늘까지
도달할 수는 없으나
나는 내가 오르는 데까지
땅에서부터 하늘에 이르는
사다리를 세운다.
우리는 이렇게 하여
정상에 이른다.

(조시아 길버트 홀랜드, “그라다담” 종교서적작선, 제임스 달튼 모리슨 편, 뉴욕: 하퍼 앤드 브러더스, 1948년, 443페이지)

구세주 예수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 주는 최고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라고 묻은 뒤에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니사 27:27)라고 대답하셨습니

다.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그분과 같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일생 동안 지속되는 영원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시간 그분과 같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그분이 현재 지니고 계시는 것과 같은 특성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자 복음을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며, 칭례를 받고 신권을 소유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며, 신전 봉사자가 되는 것으로도 이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모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의 한 가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 외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다운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는 내부에서 크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언자 엘마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만백성이 남녘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민족과 백성이 모두 거듭나야 하나니, 하나님께로 거듭나서 타락한 육욕의 모양이 의로운 것이 되며, 하나님께 속죄받아 그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같이 하여 인간은 새 것이 되나니,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절단코 하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모사이사서 27:25-26)

이 마지막 구절을 주목해 봅시다.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절단코 하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직접적인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변화를 갖지 못하고, 구세주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교회의 의식을 통해 누리게 되었을 모든 은혜가 무효화되어 버립니다.

경전은 그리스도다운 생활을 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전을 꾸준히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하라** 즉 겸손해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온유해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 5:3, 5 참

조) 이기적이고 오만하고 교만한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에 주리고 목마르도록** 그분을 지극히 사랑하라는 명을 받고 있습니다. (마 5:6 참조) 이 말이 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지극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를 만큼 우리의 소망이 큼니까?

사실상 그의 발자취를 따르겠다는 우리의 소망은 얼마나 큼니까?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개심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소망! 소망! 의로움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크게 자리잡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은 또한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불친절하셨습니까? 친절과 사랑이 부족할 때, 그분과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기를 원할 때 이해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다른 율법은 황금율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진실로 그 계명에 따라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면 마태복음 25장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잔인하게 구는 것을 좋아합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속이는 것을 좋아합니까? 우리는 속임을 당하거나 빼앗기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려 할까요? 부정적은 어떤 형태이든지 야비하고 비열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다운 성품이 될 수 있을까요? 단번에 그렇게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실로 반그리스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되는 자가 되며** 노

여움과 불쾌함과 논쟁을 피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마 5:9 참조)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특히 우리의 가족들과 사이 좋게 지내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남편은 아내와 다투지 말아야 하며 아내에게 다물 구실을 만들어서도 안됩니다. 또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경건은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엡 6:4 참조) 가정에 노여움이 생기면 참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제 거해야 합니다.

또한 참된 사람이 없이는 구세주와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람이 [없고 내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전 13:1-3)

사실 그는 우리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와 닮았을 뿐 그 밖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전 13:1 참조)

구세주는 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 5:8)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보거나 그분의 면진으로 나아오게 될까요? 청결하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부정한 것에 대하여 그분은 무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정한 것을 다치지 말며…… 주의 그릇을 든 자여 스스로 청결할지어다.” (니삼 20:41) 이것은 그분의 말씀이며 그분이 뜻하신 바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부정한 것을 집하지 마십시오.

욕욕과 탐욕은 완전히 파괴적인 것입니다. 성적인 죄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술취함도 사악한 것입니다. 탐욕은 악마의 것입니다. 탐욕이 모든 형태의 부정적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이기심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타락시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생활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결에 대해서는 무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의로운 생활에 의해 정화되어 그분처럼 순결하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아버지이신 당신께서 내 안에 계신 것같이 내가 저들 가운데 있어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저들로 인하여 내가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삼 19:29)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직하면 우리의 의로움으로 그의 이름에 영광이 더해질 것입니다.

그분은 그 밖의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화를 뱃다면, 그들과 화해를 해야 하며 나쁜 감정이 지속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계명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물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 5:23-24)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을 부정직하게 대한 일이 있었다면, 마음에 이를 두고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까?

때때로 나는 이렇게 화해를 구하는 동안 제단에 제물을 두는 것이 주님의 만찬인 성찬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부정을 행하였다면 깨끗한 양심으로 그런 성스러운 상징물을 취할 수 있겠

옵니까?

주님은 또한 다음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 6:14-15)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로 더럽혀져 있는데도 그분의 성스러운 면전으로 들어가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위선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은 두 얼굴이나 이중적인 행위를 취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라고 하셨습니다.

매일매일의 행동이—거의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어떻게 우리를 형성해 나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의 간단한 율법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것을 지키며 생활하기가 우리에게 너무 어렵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무시한다면 자신에게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인식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그분의 성품을 형성하고 있는 특성을 묘사한 것은 정말 영감적입니다. 그분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신앙, 희망, 자비, 사랑의 덕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자……

“신앙, 덕행, 지식, 절제, 인내, 형제애, 경건, 자비, 절손, 근면”(교성 4:5-6)

이러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성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품들을 기르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라고 명하셨습니다.(마 5:48 참조)

부주의한 생활에서 온전함이 이룩될 수 있습니까? 완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온전함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왜 엄격하시며 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야 하는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교성 4:2 참조)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복음에 따라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나 온전해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헌신과 오래 참음과 인내가 필요하며 가까이 회생하고 계속해서 전념해야 합니다. 불완전한 것은 오직 불완전한 것만을 낳게 됩니다.

자매님들이 요리법대로 따르지 않고서 맛있는 케이크를 구울 수 있습니까? 또한 형제님들은 주어진 설계도를 무시한 채 주먹이나 고속 도끼를 건설하고 시계를 제작하며, 달에 인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또한 정규 의과 대학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의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공학 기술의 원리를 무시하고 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과정을 따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제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교회의 회원이 된다 하여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노력을 하여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 58편에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교성 58:29 참조)

고대의 훌륭한 예언자 가운데 베이맨인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가르친 방식을 좋아합니다. 그는 말하는 태도가 솔직하고 직선적입니다. 그는 말을 완곡하게 한다거나 사람들이 그의 말 뜻을 궁금하게 여기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이라해플라의 성벽에 서서 니파이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칠 때, 그들이 복음대로 살기를 거절한다면 심판이 내리게 될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하였으며 그들 외에는 그

들을 비난할 자가 없다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멸망되는 자가 스스로 멸망을 이룬 것이요, 간악을 행하는 자가 스스로 이 일을 행하는 것임을 너희는 기억하고 다시 기억할지니.” (할 14:30)

그때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선과 악 또는 생명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 자신이 선택한 결과를 틀림 없이 받게 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복음에 따라 살 결심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곧 천사는 시험 기간이며, 우리가 원하는 수확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시기라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각자가 셋세마네의 교훈을 배우고 그분과 같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누가복음 22:42)라고 말할 때가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교회 본부 역원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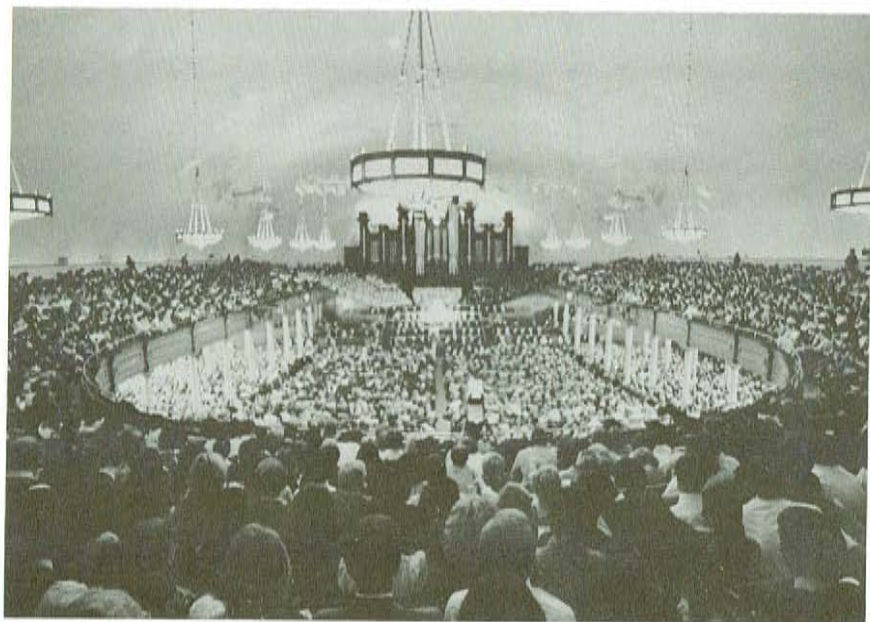


고든 비 형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보좌

지난 연차 대회 이후로 총관리 역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조직되어 있는 교회의 모든 총관리 역원과 본부 역원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뛰어라 소년여, 뛰어라!”



토마스 에스 문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소년들의 마음에 다리를 놓으려는 지도자들과 소년단의 부모들, 그리고 전세계의 소년단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1982년 6월 8일 화요일, 영국 런던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날은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흥분의 분위기가 대기에 증만하였고 열심히 기다리는 마음들은 열렬한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대영 제국에 도착해서 곧 의회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행사에 모여든 군중들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근처의 공원까지 가득 찼습니다. 유명한 빅 벤(영국 국회 의사당 탑 위의 큰 시계)이 정해진 시간을 알리는 자랑스러운 클라리언 소리를 내는 동안 정부를 입은 경찰관들은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 프란시스와 군중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의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수상과 대통령이 군중들에게 인사를 한 뒤 리무진 승용차에 올랐고 자동차 행렬은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군중들은 환호를 보내며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란시스와 나는 밝은 거리로부터 조금 어두우나 조용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대 건축물에 대해서는 누구나 존경심을 갖고 있었으며 그것은 당

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왕들의 대관식이 집행되고 왕족의 결혼식이 거행되었으며, 이 지상에서의 자신의 사명을 다한 통치자들이 칭송받고 묻힌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에 적힌 비문을 사려깊게 읽으면서 통로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생각하고 그들의 용감한 행위를 상기하며, 그들이 세계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세계 대전 중에 프랑스에서 전사한 어느 무명 용사의 무덤 앞에 멈추었습니다. 전사한 이 젊은이의 시체는 명예롭게 묻히기 위해 비문도 없는 무덤에서 런던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는 비문을 큰소리로 읽었습니다. *하나님과 고국을 위해 선한 일을 했기에 왕들 가운데 묻혔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삶을 얻으라.*

우리는 문쪽으로 걸었습니다. 공원 너머로 아직까지 남아 있던 군중들이 보였습니다. 러드야드 키플링의 불후의 글귀들이 마음에 떠올라 내 영혼을 적셔 주었습니다.

걱정 소요 사라지고
수령과 왕은 떠나나
주께서 보이신 희생
결단코 없어지잖네.
만군의 주 잊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합소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찬송가 139장)

마지막 묘에 또 다른 비문이 적혀 있었으니 다. 소년단원인 나는 소년단 창시자인 로드 베이든 포웰을 기념하기 위하여 헌납된 기념비를 구경하기 위해 미국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힌 웅대한 대리석 기념비 앞에 섰습니다. 로버트 베이든 포웰, 1857-1941년, 소년단 창시자요, 온 세상 사람들의 친구.

금년 6월 8일은 소년단 창립 75주년이 되는 날이며 창시자의 탄생 125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많은 소년들이 베이든 포웰에 의해 시작된 소년단 운동으로 축복받았으며 구원 받았는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울타리 안에 묻혀 있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베이든 포웰은 영광의 격렬한 바다를 헤쳐 나가지도 않았으며, 전쟁에서 싸워 정복하지도 않았으며, 세상적으로 부유한 제국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소년들을 일으켜 세웠으며 그들에게 인생의 경주에서 뛰는 방법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준 사람이었습니다.
 소년들은 어른이 됩니다.

아무도 소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알지 못하네.
 우리는 기다리고 바라보아야 한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어른들도 한때는 소년이었다네.
 (1977년 4월 대회 보고에서 스페서 더블류 킵볼 대관장의 말씀 인용, 50페이지)

이러한 생각의 진실성은 잘 알려진 유지칼 캐밀롯의 마지막 절에서 기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더 왕의 원탁의 기사는 사람들의 질투와 여왕의 잔폭 그리고 모드레드조차 과거의 실수가 드러나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꿈을 빼앗긴 채 아더 왕과 그의 군대는 말슬러트의 군대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은 가벼웠습니다. 그는 환상에서 깨어나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한 밀항자-위릭의 톰이라는 어린 소년-가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찼을 때 그는 왕에게 그를 도와 큰 전쟁에서 싸우려고 왔다고 진했습니다. 그는 기사가 되겠다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아더의 질문에 톰은 원탁의 기사에 대해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는 잘 알려진 목표를 되풀이해 말했습니다. 즉 “의를 위한 힘! 의를 위한 권리!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

아더 왕의 얼굴에 다시 새로운 확신이 번졌습니다. 모두 다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는 소년에게 목표와 캐밀롯의 영광을 되풀이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정식으로 그에게 “위릭의 톰 경”이라는 기사 작위를 주었습니다. 전쟁터를 떠나 영국으로 돌아가서, 캐밀롯의 꿈을 다시 새롭게 하며 성장하고 자라나라는 명을 받은 톰 경은 전쟁 무기를 버리고 진리로 무장하고서 왕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뛰어라, 소년여, 뛰어라!” 소년은 살아 남았으며, 사상이 안전하게 보장되고 희망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앨런 제이 러너, 캐밀롯, 뉴욕: 랜덤 하우스, 1961년, 115페이지)

소년단 활동으로 축복받은 모든 소년은 젊었을 때 위릭의 톰 경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배웁니다. 소년들은 준비하라는 표어를 세우고 일일 일선이라는 규칙에 따릅니다. 소년단에서는 기능 배지를 주어서 기술과 개인의 노력을 장려합니다. 소년단에서는 소년들에게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1913년에 미국에서 소년단 활동에 첫번째 후원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스페서 더블류 킵볼 대관장님이 교회 회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과 같은 영감의 메시지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소년단 활동을 계속 도울 것이며, 소년들이 소년단 활동이 제공해 주는 시민의 자질, 품성 그리고 적합성을 높임으로써 그들이 가정과 교회에 더욱 밀접하게 되도록 도울 지도자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는 소년들을 위한 이 훌륭한 운동과 그것의 중심이 되는 선서와 규율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 굳건하며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대회 보고, 1977년 4월, 50-51페이지)

킵볼 대관장님이 말씀하신 소년단 선서란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과 나라를 위하여 나의 의무를 다하겠으며 소년단의 규

움을 잘 지키겠으며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 주겠습니다. 육체적으로 강하고 정신적으로 깨어 있으며 도덕적으로 순결하겠습니다.” (소년단 지침서, 노스 브룬스윅, 뉴저지 : 미국의 소년단, 1972년, 34페이지)

전쟁터의 영웅인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젊은 시절이 가고 인생의 황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찬란한 과거가 황혼에 물릴 무렵, 청소년들에게 이 선서와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나는 꿈 속에서 요란한 종소리와 소총 부대가 우르르 물러가는 소리 그리고 전쟁터의 야릇하고 슬픔에 잠긴 불평 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러나 회상의 끝에는 항상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 시절로 돌아갑니다. 내 컷가에는 의무, 명예, 조국이란 소리가 매아리칩니다.”(실베이너스 세어 상을 받는 자리에서 행한 연설문, 웨스트 포인트, 1962년 5월 12일)

개신교 목사인 해리 에머슨 포즈릭은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더욱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큰 목적을 갖고 헌신할 때는 어느 때보다도 가장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인간은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전에는 애국자로서 깃발을 따르며 싸우기보다는 징집병으로서 싸웁니다. 의무란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더 하려는 사람이 수행하기 전에는 결코 가지있게 행해질 수 없습니다.”(명인집, 에머슨 토이 웨스트편,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68년, 38페이지)

남부군의 장군인 로버트 이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의무란 가장 숭고한 단어입니다. 매사에 의무를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의무 이상의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결코 덜 하려고 생각해서도 안됩니다.”(명예전당에 있는 그의 흉상 밑에 있는 비문에서) 김볼 대관장님이 언급하신 소년단 규율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소년단 규율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그것을 지켰던 사람 바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떠올리게 됩니다. 12가지의 소년단 규율은 주님의 메시지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1. 소년단은 믿음직합니다. 주님은 무엇이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었”(요한복음 17 : 4)다.
2. 소년단은 충성스럽습니다. “물러가라 사탄”(누가복음 4 : 8)
3. 소년단은 돕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요한복음 5 : 8)
4. 소년단은 우애스럽습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요한복음 15 : 14)
5. 소년단은 예의바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태복음 7 : 12)
6. 소년단은 친절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마가복음 10 : 14, 16)
7. 소년단은 순종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리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요한복음 6 : 38)
8. 소년단은 배활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 16 : 33)
9. 소년단은 근검합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누가복음 18 : 22)
10. 소년단은 용감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태복음 26 : 39)
11. 소년단은 순결합니다. “주의 그릇을 지닌 너희여 깨끗하라.”(교리와 성약 38 : 42)
12. 소년단은 경건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마태복음 6 : 9)

이와 같은 영감받은 가르침들은 현실적인

지도자들이 약속받은 훌륭한 소년들에게 가르칠 때 소년들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전도서 11:1) 소년단 활동은 그와 같습니다.

수년 전 소년단 지도자들이 우드 배지 훈련을 위해 세크러멘토 근처의 산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아형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소년단들이 하는 것처럼 생활하는 이러한 경험은 아주 흥미로운 것입니다. 그들은 달걀을 태워 가면서도 손수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들은 나이 때문에 더욱 힘든 울퉁불퉁한 길을 도보로 여행합니다. 그들은 맨바닥 위에서 잠을 잡니다. 그들은 하늘의 은하수를 다시 쳐다봅니다.

이 우리는 자신의 보상을 준비했습니다. 참아야만 하는 날들이 지나면 그들은 이 인쇄 여행이 끝날 무렵 그들에게 가담한 전문적인 그리이스 요리사가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들 중에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느라 배고프고 피곤하고 약간 멍든 어떤 사람이 그리이스 요리사에게 왜 항상 웃고 있으며, 왜 매년 자비를 들여 소년단 지도자들에게 전통적인 음식을 준비해 주며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스튜우 남비 곁에 자리를 잡고는 둥근 모양이 우아하게 세겨진 에이프런에 손을 닦으면서 다음과 같은 그의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디미트리스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리이스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소년 시절을 보았습니다. 나의 삶은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행복했습니다. 그때 나치들이 조국을 침범해 점령했습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마을 사람들은 침략에 분개했으며 그들은 파괴하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수력 발전소 댐을 파괴한 후, 목적을 달성한 것을 자축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디미트리스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왼쪽부터 피니 부대원장, 킴 배전장, 필립 리 부대원장, 폴니 부대원장.

“아주 이른 아침에 침대에 누워 있다가 많은 트럭이 마을로 들어오는 소리에 잠이 깨었습니다. 나는 군인들의 군화 소리, 문을 차는 소리 그리고 모든 소년과 남자들은 즉시 마을 광장으로 모이라고 명령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에겐 단지 바지를 입고 허리띠를 맬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합류했습니다. 우리는 12대의 트럭이 불빛을 비치고 백 여 개의 총구가 겨워진 앞에 세워졌습니다. 나치들은 뱀이 파괴되었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각 줄의 다섯번째 성인 남자나 소년은 즉결 총살형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사관이 운명을 결정하는 수를 세었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우리가 지명되고 총



살당했습니다.”

디미트리스는 소년단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내가 서 있는 줄로 옮겨줬습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내가 마지막으로 총살당하기 위해 지명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장렬한 불빛이 내 모습을 서서히 비추고 군인은 내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그는 내 혁대 장식을 물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거기엔 소년단 표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혁대 장식은 내가 소년단원으로 소년단 선서와 규율을 외웠기 때문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키가 큰 그 군인은 혁대 장식을 가리키고 오른손을 들어 소년단 표시를 했습니다. 그때 그가 나에게 했던 말을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뛰어라 소년아여, 뛰어라!’ 나는 뛰었고 그래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나는 소년단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그 소년들은 지금도 꿈을 간직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디미트리스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혁대 장식을 꺼냈습니다. 그 소년단의 상징은 아직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눈물을 흘렸고 소년단 활동 서약은 다시 새로와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른이 소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은 키꺼이 생의 한 부분을 소년들과 함께 나누려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75주년을 맞이하여 소년들의 마음에 다리를 놓으려는 지도자들과 소년단의 부모들 그리고 전세계의 소년단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말일성도 찬송가— 노래를 통한 예배



프랭클린 디 리차즈 장로
칠십인 재일 정교회 회장단

“나는 집회에서 함께 노래부르는 것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이 영적인 위대한 대회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내가 말씀하는 동안 성신의 인도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경전에 따르면 구세주께서 사도들과 함께 주님의 성찬을 제정하신 후 그들은 찬송가를 부르고 “감람산으로 나아”갔습니다. (마태복음 26 : 30 참조) 이 구절에 보면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그 당시 종교적 의식의 한 부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날에도 아름다운 합창단의 음악에 맞춰 함께 부르는 회중 찬송은 예배 의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종교 의식이 찬송과 기도로 시작될 때 우리는 예배의 영이 가득 차고 함께 하고 있다는 아름다운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나는, 집회에서 함께 노래부르는 것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일성도 찬송가에는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사실상, 설교의 말씀으로 위대한 종교적인 진리를 알리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영은 고양되며 영적으로 격려를 받게 됩니다.

히버 게이 그랜트 대관장님은 이 문제에 관해 논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르거나 단체로 부르거나 노래의 가사가 복음의 진리와 진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노래부르는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떠한 사람도 발레 곡으로 택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노래는 참으로 ‘주님께 바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임프르브먼트 이라, 1912년 7월호, 786-87페이지)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찬송가 부르는 것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설교 중의 몇몇은 노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노래들이 많이 있으며 이 노래들은 끝까지 불러야 합니다.”(뉴질랜드 지역 대회 보고, 1976년 2월 20-22일, 27페이지)

교회가 조직된 지 꼭 석 달 후인 1830년 7월에, 엠마 스미스는 남편인 요셉 스미스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는 나를 즐겁게 하나니 의인의 노래는 내게 바치는 기도니라. 저희 머리 위에 축복을 주어 응답하라.”(교리와 성약 25 : 12)

이 계시에서 엠마 스미스는 교회에서 사용할 찬송가를 선정할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의 가장 훌륭한 찬송가 작사자 중의 한 사람인 더블류 더블류 펠프스 형제는 엠마 스미스를 돕고, 인쇄하기 위해 정리하도록 지명받았습니다. 90곡의 찬송가를 편집해서 1835년에 첫번째 판이 발간되었습니다.

찬송가에는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 예언과 위대한 영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곡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내 구주 살아 계시다”는 첫 찬송가에 수록된 90곡 중의 하나입니다. 그 가사는 사무엘 메들리가 썼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내 구주 살아 계시다.

큰 은혜 주는 이 말씀
한때 죽으시었으나 영원히 사시는 줄새,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위에서 날 변호하시며
굶주린 내 영 먹이시고
구하면 축복주시네,
오 기쁨 주는 이 말씀
내 구주 살아 계시다.
(찬송가 36장)

제이 스펜서 콘웰은 이 노래에 관해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헌신적인 말일성도들의 모임에서 이 사랑스러운 노래를 듣는 것은 영적인 침례입니다.” (물론 찬송가 이야기,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68년, 108페이지) 이것은 얼마나 진리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에 감사를 드리는 가장 애창되는 찬송가입니다.

더블류 더블류 펠프스의 영감받은 찬송가 중의 하나인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찬송가 185장)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찬송가는 기쁨과 예언의 요소들을 반영시켰을 뿐만 아니라 “희생은 하늘 축복 가져 오나니”라는 말씀에 명시되어 있는 것같이 기본적인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희생의 범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의 중요한 부분이며 신앙, 사랑 그리고 많은 다른 덕들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희생 교리를 담고 있는 같은 절에서 우리는 “심판의 그날 위해 다 언어 나라, 세상은 요셉을 다시 알리라”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예언적인 말입니까! 펠프스 형제가 이 찬송가를 썼을 때는 소수의 교회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백만의 사람이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였으며 또한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수백만 이상이 이 간증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나는 이 훌륭한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짜릿한 흥분을 느낍니다.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찬송가 59장) 이 찬송가는 윌리엄 포올러가 가사를 썼으며 1863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 찬송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일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충만한 복음을 회복하시고 예언자들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에 대한 우리의 감사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찬송가는 말일성도들이 집회를 가질 때 가장 많이 부르는 또 하나의 찬송가이며 세상 곳곳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들아 두려울 것 없다”(찬송가 86장) 윌리엄 클레이튼이 1846년 4월 15일에 작곡하였으며 1921년에 발행된 상호부조회지(1월호, 58페이지)에 실려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 찬송가의 기원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캠프에서 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브리감 영 대판장은 크게 걱정을 하면서 곁에 있는 윌리엄 클레이튼 장로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클레이튼 형제님, 성도들이 저녁에 캠프 파이어에서 부를 수 있는 찬송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힘과 도움을 주고 여행의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잊게 해주는 찬송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클레이튼 장로는 캠프를 벗어나 두 시간 후에 “성도들아 두려울 것 없다”라고 알려진 이 찬송가를 작곡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간증은 ‘그것이 주님의 권능과 영감을 받아 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찬송가를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것이 어렵지 않다.
나가자 앞으로
우리 어찌 보수 생각하랴
나가서 싸우자
팔을 걷고 용기 내자
하나님 보호하리라
이 일이 곧 맺달리라
모든 것 잘되리!

이 찬송에 담긴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하는 간절한 기원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며 그들에게 큰 힘과 위안을 주었는가에 관한 개척자들의 많은 애처로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던 스테이트 선교부에서 어떤 어린 소녀가 친구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면서 "성도를 아 두려울 것 없다"를 콧노래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애, 아름다운 멜로디인데, 무슨 노래니?"라고 물었습니다. 소녀는 친구에게 이 노래에 관해 얘기하고 함께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약속했습니다. 몇 번 교회 모임에 참석한 후, 그녀는 친구 가족을 가르치기 위해 선교사들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가족은 모두 칭찬을 받았으며 왕국을 전신하는 일에 기쁘게 그들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훌륭한 찬송가는 참으로 우리 선조 개척자들의 위대한 신앙과 용기를 요약해 놓은 것이며,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시대의 개척적인 일에 접근해 갈 때 현 세대에서 이러한 신앙과 용기를 갖게 해줍니다.

"오 높은 영광 보좌"(찬송가 117장) 이 찬송가는 1843년에 나부에서 엘리자 알 스노우에 의해 씌어졌는데 이것은 또 다른 위대한 말일성도 찬송가입니다. 이 훌륭한 찬송가는 우리가 영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천세에서 존재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부릅니다.

연약한 이 생 내 떠나서
 세상 생명을 마치오면
 부모 양친 하늘 궁전에
 즐거이 이 몸 맞으리.
 당신께서 하라신 과업
 불로 내가 다할 때
 당신 곁에 함께 살라
 허락하여 주소서.

이 찬송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의해 밝혀진 영생의 위대한 드라마가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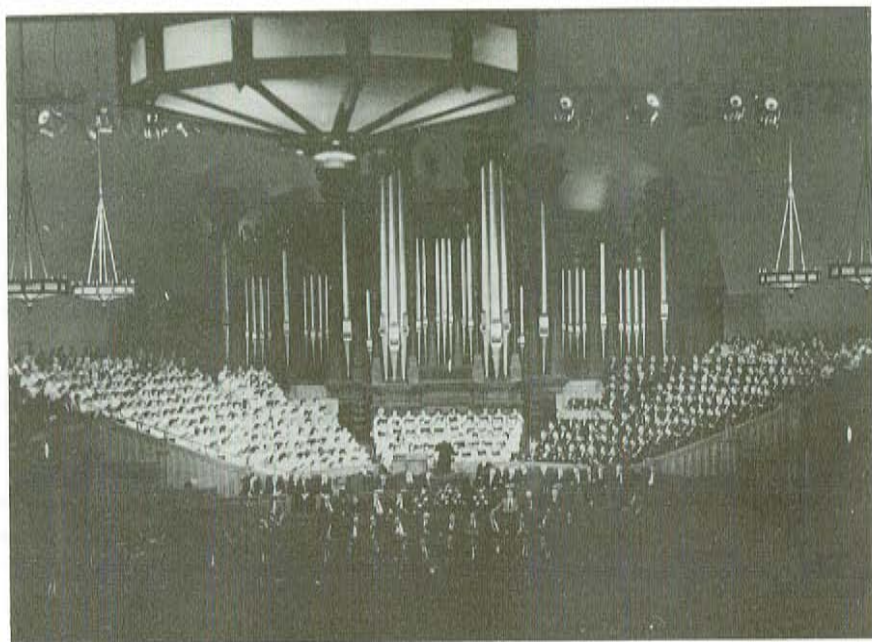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아름다운 찬송가를 부를 때 그는 점점 영원하신 아버지인 하나님이 분자 그대로 아버지라는 것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찬송가 194장)은 더블류 더블류 펠프스의 또 다른 작품이며 또한 첫번째 말일성도 찬송가에 담겨 발표되었습니다. 이 찬송가가 불리질 때 나타나는 정신적인 영향과 영적인 힘은 1836년 3월 27일에 커틀랜드 신전의 헌납식이 정점에 달했을 때 증명되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 찬송가는 커틀랜드 신전 헌납식 이래 말일성도 신전의 헌납식 때마다 불려져 왔습니다. 물론 와드와 스테이크 예배당의 많은 헌납식에서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땅을 덮고 있는 막을 걷어 내고 복음의 회복과 천사들의 지상 방문을 알려줍니다. 후련은 위대한 기쁨의 외침입니다.

천국 무리 함께 찬송 부르오니
 호산나, 호산나 주와 어린 양





영광 돌리세
 높이 제시는 그들께
 앞으로 영원히 아멘 아멘.

훌륭한 태버나클 합창단과 물론 유스 합창단이 오랫동안 이들 찬송가와 다른 찬송가들을 불렀을 때 말일성도 회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왔읍니다.

와드와 스테이크 합창단 또한 우리의 예배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노래를 부르며 큰 기쁨과 영적인 성장을 얻고 있는 수천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나는 집회에서 함께 노래부르는 것의 가치와 중요성에 관해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는 동안 노래를 부르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아름답고 영감적인 경험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찬송가에 담긴 영감에 찬 메시지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것과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함에 대한 나의 간증이 강해졌습니다.

또한 말일성도 찬송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과 그는 충만한 복음을 회복한 위대한 예언자였으며 오늘날에도 예언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 스펜서 더블류 킵블 대관장님에 대한 나의 감사는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을 부를 때 더 커집니다. 주님께서 계속 그분을 축복하시고 지켜 주시길 빕니다.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 각 찬송가에 담겨 있는 아름다운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깊게 우리의 영혼을 적실 것이며 우리를 성신과 더욱 가깝게 하여 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신앙—생명의 힘



렉스 디 피네가 장로
칠십인 재일 정원회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당면했을 때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끈기있게 대처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능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오늘, 생의 어려운 문제를 대처해 나가기 위한 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나는 집을 떠나 대학에 다니고 있는 딸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애정에 넘친 감사의 말을 적은 후 그 아이는 이제부터는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까지 자신은 온실 속에서 자라면서 전적으로 가족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힘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지금부터 인생이 힘들다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보낸 편지로 나는 지난 여러 달 동안 “어떻게 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까?”라고 물어 오는 많은 교회 회원들을 만났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힘든 것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인생에서는 시련을 견뎌 내고 어려움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성장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 과정에는 종종 모욕감과 배신감의 가슴 아픈 일이 따르게 됩니다. 교육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경제적, 정서적, 지적인 면에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교 사업을 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헌신, 끈 영적이며 육체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결혼 문제, 가족 부양, 생계 유지, 투병 생활, 노령, 사망 등은 우리가 겪어야 할 생의 현실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아무런 준비없이 썩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당면해야 하는 생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보다 기꺼이 용기있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 에스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모든 불쾌한 일들을 ‘자신’ 곧 ‘실체적인’ 생활에 방해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참이라고 부르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 자신의 삶 곧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주는 삶입니다.”(함께 서 있는 그들: 아더 그리브스에게 보낸 시 에스 루이스의 편지, 월터 후퍼 편, 런던: 플린스사, 1979년, 499페이지)

성 안에서 자라나 생의 어려움을 전혀 겪지 않았던 아시아의 어느 왕자에 관한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사람이나 죽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청년으로 성장한 왕자는 왕궁 밖으로 나가 보고 싶어했습니다. 그는 가마를 타고 가다가 처음으로 이빨도 없고 주름지고 등이 굽은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 왕자는 시종에게 명했습니다. “멈추어라, 저것이 무엇이나?”

그 시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것은 늙어서 허리가 굽은 사람입니다. 왕자님이 지금은 젊고 건강하지만 왕자님도 역시 연세가 많아지면 저렇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말에 왕자는 낙심했습니다. 늙어 가는 문제는 그가 어쩔 수 없는 문제였으므로 그는

성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며칠 안되어 그는 익숙한 환경 속에서 다시 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을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땅바닥에 들어 누워 심한 발작을 일으키며 고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것은 무엇이나?”라고 왕자가 물었습니다.

“저것은 병을 앓는 사람입니다.”라고 시종이 말했습니다. “왕자님도 지금은 젊고 건강하지만 언젠가는 병으로 고생하실 것입니다.”

왕자는 다시 슬픔을 느끼고 즉시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다시 한 번 왕궁 밖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성에서 멀리 갔을 때 왕자는 무덤으로 가는 판을 보았습니다.

“저건 무어지?”하고 왕자는 물었습니다.

그렇게 묻는 왕자에게 죽음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자, 왕자는 미래의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기분이 우울해졌습니다. 그는 즉시 왕궁으로 돌아와 결코 다시 나오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왕자는 인생을 악한 계교라고 해석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행적과 인품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과 늙음과 사망을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이 이야기에 나오는 젊은 왕자와 같이 인생에 대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잔인하고 불공평한 것으로 생각하며 스스로 자신의 피난처로 숨어들어가 결코 세상에 나오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그 경험을 키우는 기회를 부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참으로 금보다 더 귀중한 것이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힘(벧전 1:7 참조)을 주십니다.

수년 전, 내가 신학 연구원 중등부 새벽반을 가르치고 있을 때 우리는 언말에 우리가 물몬경에서 배운 몇 가지 원리를 복습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젊은 자매가 물몬경 안에 그림 한 장을 넣고 다녔는데 그것은 아놀드 프리벅이 그린 “젊은 용사”(엘마서 53:22 참조)로 알려진 이천 명의 힐라멘의 아들들에 관한 그림이었습니다. 그후 그녀는 매우 진지하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피네가 형제님, 왜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이렇게 못하지요?”

물몬경 시대의 젊은이들이 과연 아놀드 프리벅이 묘사한 것과 같은 그러한 성품을 가졌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질문으로 나는 이러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들의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

물몬경을 읽은 사람들은 힐라멘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엘마서 53:56-58 참조) 그들의 선조들이 복음으로 개종했을 때 그 선조들은 결코 무기를 들지 않겠다고 성약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집이 악의에 찬 적들에 의해 위협당하자, 그들은 싸우느냐 그렇지 않으면 죽느냐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성약에 구속을 받지 않는 이천 명의 젊은이들이 자진해서 그들의 부모와 집을 방어했던 것입니다.

한 예언자이며 대장은 이 젊은이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들은 모두 젊어 뛰어나게 용맹스럽고 기운차며 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상 진실하며 무엇을 하든지 맡은 바에 충실하였고,

“……참으로 저들은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는 것을 모친에게서 배운 자였더라.

“……이들은 하나님 힘을 입은듯 싸웠으며, 그렇게 기적적인 힘으로 싸운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지 못하였노라.” (엘마서 53:20; 56:47, 56)

힐라멘의 아들들에게 그와 같은 힘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

이 그들의 “기적적인 힘”과 “놀라운 힘”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레오 톨스토이는 “신앙은 생활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생의 대부분을 인생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보냈습니다. 그는 명성과 지위와 부를 얻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거의 모든 면에서 성공하였습니다.

그는 학문과 철학의 연구에서 생의 의미에 대한 해답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얻은 모든 지식과 그가 받은 영예와 그가 성취한 개인적인 업적은 그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삶은 여전히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깊은 절망의 순간에 톨스토이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대답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였습니다.

톨스토이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성적인 지식 이외에 모든 사람의 생활에 또 하나의 지식, 비이성적인 지식, 생활의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생의 힘입니다.”(어떻게 믿게 되는가, 크라이스트 처치, 뉴질랜드, 프리 에이지 출판사, 1901년, 40페이지)

톨스토이는 사람은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세상적인 쾌락과 갈채를 소유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생은 마음과 정신과 영혼에게까지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는 우리 자신의 것만큼 힘들지 않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많은 재산을 얻거나 또는 더 높은 사회적인 지위에 오르거나 동료들에게서 더 훌륭한 인정을 받게 되면 생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만 하면 참으로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생의 문제를 완화시키고자 결혼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의 모든 어려움이 육체이나 물질적인 필요와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어

려움을 해결하려는 힘의 근원은 곧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언제나 참되게 생활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고자 할 때 그와 같은 어려움에 따르는 시련을 훌륭하게 이겨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출신의 한 친구는 많은 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충실한다면 그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로리 폴크는 난장이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운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는 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스스로 움직여 다른 아이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세발 자전거의 페달을 열심히 밟았습니다. 그는 다리가 짧아 게임이나 운동 경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실업계에서 직장을 얻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는 꾸준히 노력하고 스스로 증거할 필요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드디어 직장을 찾은 그는 일을 사랑함으로써 인생에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후에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로리 폴크는 이미 육체적인 기동성에 극도의 제한을 받았으며 한쪽 눈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후 그는 곧 절름거리기는 짧은 다리를 거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했는지 그후 로리의 남은 한쪽 눈의 망막마저도 상하게 되어 완전히 소경이 되었습니다.

로리 폴크는 그와 같은 암흑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능력을 통하여 로리 폴크는 생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키가 35인치에 지나지 않는 그는 힐라멘의 아들들과 같은 힘을 지니고 있어 그에게 닥친 개인적인 어려움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의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을 하나님과 일치시키고 이웃을 섬김으로써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얻으면 어떠한 문제도 있을 수 없으며 오직 과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로리 폴크는 현재 찰스톤 사우스 캐롤라이나 스테이크의 대제사 그룹 지도자입니다.

생의 고난에 대한 나 자신의 경험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사랑을 기르며 그것은 고난의 시기에 우리에게

게 주는 그분의 축복을 통해 보답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새로우나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는 나의 딸과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당면했을 때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끈기있게 대처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견디어 나갈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어둠과 절망과 시련과 메일의 생활의 투쟁에서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 보상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에 대한 신앙으로 열심히 생활하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칭찬으로 인해 우리의 영원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각자는 생의 전쟁터에서 "그렇게 기적적인 힘으로"(앨 56 : 56) 싸워서 승리를 거두기에 충분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하나님을 바라봄



렉스 시 리브 장로
질십인 제일 정원회

“우리가 지닌 모든 문제와 필요에 대한 해답은 그것이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며…… 그러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매일 뉴스의 표제가 가공할 만한 폭력 기사로 장식되고 불길한 징조가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지만, 사람들과 국가가 그들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을 따라 생활할 때 해결하지 못할 국가적 또는 개인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극히 단순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실제로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알고 계시며 사랑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은 그들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우주의 경이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매일의 생활은 얼마나 큰 위안과 확신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천체의 운행과 풀과 나무와 그 외의 생물의 섬세한 아름다움에서 비할 바 없이 훌

륭한 질서로 움직이는 그분의 솜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은 그분의 존재를 말없이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의 기도에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가 그분의 손길을 느끼고 어려움에 처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그분이가 가까이 계시고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고무적이며 유익한 것입니까? 삶의 근원과 빛에 접근하며 단순히 점촌하게 구함으로써 강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비극에 처해 있을 때라도 주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우환이 닥쳐오며 생의 위기에 처하고 절망적인 손상을 입을 때나, 미래가 암담하고 희망이 사라져 시간이 지루하게 생각될 때라도 주님은 그곳에 계시니다. 그분의 확신의 느낌은 이러한 말씀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노라. 열려하지 말라. 내가 이것을 잘 견디어 내면 내게 유익이 될 것이니 나를 믿으라.”

그분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마추 대해 이야기하셨을 때 우리를 지상에 보낸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려가자. 저곳에 공간이 있음이라. 우리는 이들 재료를 취하여 이들이 살게 될 땅을 만들자.

“이로써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 주 저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자.”(아브라함서 3 : 24-25)

그렇습니다. 이 생은 시험의 기간입니다. 이 생은 보상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후에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잠언 23 : 7)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심히 멀도다.”(요셉 스미스서 2 : 19)

우리의 마음이 의롭지 못할 때, 주님은 그분의 영을 거두어 가십니다. “저들이 마음에 악을 구하였으매, 나 주는 나의 영을 거두었느니라.”(교성 64 : 16)

그분은 그들의 마음의 열망에 따라 인간에게 “허락하”십니다. (엘마서 29 : 4 참조)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너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교성 4 : 2)

주님은 제물에 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제물을 가져 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으라”(출애굽기 25 : 2)

선물 그 자체는 상관 없습니다. 오직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판의 날에 여러분이 무엇을 행했으며 어디에서 봉사했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온 마음을 다해 봉사했느냐와 여러분의 목숨을 먼저 어디에 두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마음에 있습니다.

만일 사람과 국가가 그들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전쟁은 사라질 것입니다. 만일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의 형제를 파멸시키려는 마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을 때, 부정적인 사라질 것이며,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생활을 할 때 인간은 그의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며, 그들로부터 받기보다는 그들에게 베풀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또는 부부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어,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을 맨 먼저 생각한다면, 어떠한 이기심이나 불화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가정은 종종 가정을 망치는 나의 권리와 나의 욕망을 앞세워 가정 파탄을 초래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남을 도울까 라는 마음가짐

을 품게 될 것입니다.

가정은 오직 남편과 아내 사이의 느낌, 즉 그들이 어떻게 서로와 하나님에 대해 느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은 집이 아닙니다. 그 까닭은 집이란 가정이 없어질 경우에도 여전히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인간과 국가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에게로 나아간다면 안식일은 성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을 공경하며 예배하려는 열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란 참으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신명기 4 : 29)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을 받았읍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태복음 22 : 36—37)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과 경건심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하고 소망할 때 가능합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으로서 선택하기 위해서는 열망하고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태복음 6 : 21)

교회의 훌륭한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돌리고 여러분의 생애에서 주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과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위해 행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은 여러분 자신이 선교사로 봉사하여 아직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선교사로서의 여러분의 봉사는 많은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



의 생활을 축복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그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자아상은 향상될 것이며, 여러분은 신뢰와 이해심 안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더욱 가까워질 것이며, 여러분의 생활에 그분의 성스러운 힘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 여러분은 신전 지도자로서, 의로운 가장으로서 봉사할 준비를 보다 훌륭하게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에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에게 물리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생활의 우선으로 여기시며 선교사로서 그분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교회의 사랑스러운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에서 주님을 앞세우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에게로 물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분의 딸로서 깊이 믿고 신뢰해 주십니다.

신전에서 결혼하도록 준비하십시오. 이러한 목적을 세우고 노력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생활에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소망과 모범에 의해 많은 다른 사람의 생활에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과 마음속에 주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에 그분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자녀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들에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우선이 된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그들이 소망하고 합당하게 생활하고 주님의 집으로 들어갈 때 그분께서 그들 각자를 위해 마련해 주신 위대한 축복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 가르치십시오. 그들에게 가족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느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한 가족에 속하기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마음속에서 그러한 성스러운 느낌을 받는다면, 자녀들의 표정과 말과 행동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글을 읽기 전에 하나님에 관해 알게 되고 그분과 그분의 말씀과

에언자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은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강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 줄 것입니다.

독신자로서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생활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에게 쏟을 때, 여러분은 투쟁해야 할 시험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신앙을 받을 것입니다. 주께서 그와 같이 어려운 문제를 제거해 주시지는 않으나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풀어지고 그러한 시험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회복된 복음의 축복을 아직도 맛보지 못한 우리의 훌륭한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께로 돌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이 그

분께 간구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용히 속삭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대에 다시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분은 고대와 같이 그의 에언자를 통해서 다시 인간과 교통하셨습니다. 그분은 신권의 권능을 죽은 인간에게 그분을 대신해서 행할 수 있는 권능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에게 다시 구원의 의식을 주기 위해 그분의 교회를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말씀만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분의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는 여러분의 생활에 진정한 목적과 새로운 의미를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방법으로 함유할 수 없는 부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매달 수천 명이 구하고 얻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도 또한 구하여 얻도록 권유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원하시지만 한다면 기꺼이 여러분을 도와 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닌 모든 문제와 필요에 대한 해답과 해결책은 개인적인 것이든 국가적인 것이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분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며 우리에게 크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 시험까지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 역시 우리의 생활에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특별히 그분을 마음속에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그분은 살아 계시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며,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그분을 우리와 가깝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교회 회원들이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는 감독을 뒷받침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다섯 가지 단계를 제시합니다.”

이 대회는 교회내의 통신 수단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인공 위성의 출현으로 우리는 연차 대회에서 앞서 누려 오던 특권보다 더 많은 교회 회원을 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잠시 동안 연차 대회에서 말씀드리기를 원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청중이 많기 때문에 이 주제에 관해 말씀드리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나는 모든 감독의 변경 사항을 재검토하는 책임이 있는 위원회에 지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전에서 갖는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 모임에서 심사할 추천서를 제출하곤 하였습니다. 나는 건강상의 이유나 가족 문제 또는 직장 문제로 해임을 요청하는 감독의 수가 많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비록 그 수는 전체 비율에서 볼 때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훌륭한 분들이 이 성스러운 부름에 반드시 따르는 기쁨과 만족감으로 그들의 의무를 완수하는 특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수가 너무 많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나는 항상 감독의 직분에 대하여 커다란 존경심을 품어 왔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감독들과 접해 왔습니다. 내가 여섯 살이 되었을 때, 부친께서는 우리 와드의 감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부친은 내가 열 여덟번째 생일이 지날 때까지 감독으로 봉사하셨습니다. 내가 결혼한 지 몇 년 안되었을 때, 나는 감독단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감독단에서 함께 일하면서 우리 사이에 사랑이 싹트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3년간 봉사하고 난 뒤에 새로 직장을 옮길 기회가 왔으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단에서 함께 일하시던 분들과 헤어지게 되어 참으로 섭섭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마을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에 그들은 파티를 열어 주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지 않으려고 파티가 끝나기 전에 빠져 나와 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나와 함께 봉사하던 감독과 다른 보좌도 파티가 끝나자 찾아와 우리가 자는 동안 밤새도록 우리 곁에서 머물며 우리가 아침 일찍 떠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말도 없이 떠나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나는 다른 곳으로 떠나가면서 울먹이며 두 형제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나는 또 다른 감독단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와드의 일을 꾸려 나가기 위해 자주 만날 기회를 갖게 되면서 다시 한 번 그러한 사랑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일년이 조금 지났을 때 스테이크 부장단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감독과 나는 그 일을 담당할 총관리 역원의 집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관리 역원의 첫번째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형제님은 감독과 잘 지내고 있습니까? 그는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그래서 나는 그분에 대한 나의 사랑과 감사를 그리고 그가 와드를 위해 했던 모든 일을 신이 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나는 그 집견의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스테이크 부장단으로 부름지도 모르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정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나는 곧 그가 행한 위대한 봉사
에 대해 칭찬하는 것을 중단하고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일곱에 미소를 짓고 말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한 가지 문제점은 그가 심적
인 압박을 받게 되면 집으로 가서 아내를 때
려 주는 것입니다.” 총관리 역원은 의자에 등
을 기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
습니까? 그는 잠시 전에 이곳에서 형제님께
게 지도력이 있는데 형제님 역시 한 가지 결
점이 있다고 하던데요. 형제님은 때때로 외
양간 위로 가서 담배피우기를 좋아한다면서
요.” 그 작전은 실책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단으로 부름을 받았습
니다.

나는 한 번도 감독으로서 일해 보지 못했지
만 나의 두 형제들은 기쁘게 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 형제는 현재 패시픽 노스웨스트
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주 연락
을 취하는 내 조카는 미국의 북부 평원에서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처럼
교회에서 감독으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사
람들의 역할을 관찰하고 지켜 보고 인식하는
기회를 통해 이 고귀한 부름에 대한 경탄으로
마음과 영혼이 온통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디도인들에게 주는 서한에서 바울은 감독
의 직분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힘든
필수 요건을 설정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
니하며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외로우며 저속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
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
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디
도서 1:7-9)

주님은 교리와 성약에 포함된 계시로 이 책
임을 더하시며 그를 판사로 임명하셨습니다.

“이 직분을 맡게 되는 자는 누구든지 옛날
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판사로 임명되

어 하나님의 상속의 땅을 그의 자녀에게 분배
하며

“하나님의 예언자가 받은 왕국의 율법에
따라 올바른 자의 증인과 보좌관의 조언으로
백성을 재판하라.”(교성 58:17-18)

예언자들은 감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충
고해 주었습니다. 조지 엘버트 스미스 대관
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관리하도록 부름받은 감독이
회원들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되고, 그 직분
을 존중한다면 어느 직책도 감독의 직분보다
더 훌륭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직책은 없습
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내가 여
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무리를 돌보며 그 백성들을 가
르치고 그들에게 일을 하도록 가르치는 데 시
간을 바친 감독들 중에서 자신이 일한 만큼의
축복을 받지 못한 감독은 하나도 없으며 과거
에도 없었으며, 그 축복은 영원을 통해 그에게
내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대회 보고,
1948년 10월, 186-87페이지)

그러나 오늘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목적
은 감독의 역할과 사명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그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려는 것은 아닙니
다. 오히려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그들을
지지하고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감독의 아내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되시는 분들이
감독으로 부름받기 전에 여러분이 그들을 어
떻게 내조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모저모로 평
가받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남편이 말
은 감독의 역할은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영원
한 부름에 버금가는 것임을 여러분에게 분명
히 말씀드립니다. 남편이 성공하려면 아내의
온전한 내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
이 여러분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화를 받고 우편
물을 취급하는 등의 일을 하며, 남편이 급한
일로 불러 나갈 때 집안 일을 도맡아 해야 할

니다. 흔히 남편과 함께 함으로써 여러분은 비밀스런 내용을 알게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절대로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의 배우자가 우연히 절에서 듣게 되거나 와드 업무에 관해 알게 되는 기밀 사항을 퍼뜨리는 것보다 감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남편과 함께 와드의 젊은 사람들과 젊은 부부들에게 모범을 보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사람들이 본받고자 하는 이상적인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깊이 인식되고 이해됩니다. 협조적인 배우자의 내조만큼 감독의 걱정과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둘째, 감독의 자녀들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릇된 행동이나 그릇된 말을 하는지 지켜 보는 것은 때때로 어항 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압니다. 와드에 급한 일이 생겨 여러분의 휴가나 계획한 행동에 차질이 생길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원망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부친이 감독의 직분에서 해임되는 전 날 밤, 위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나는 부친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부친은 가족들을 불러 자신이 감독으로서 봉사할 기간이 끝났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그 부름이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많은 시간도 빼앗지만 그 부름에서 해임되는 것이 참으로 섭섭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실생활의 교훈으로 교회 일을 하는 데 따르는 참된 기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부친의 어깨에 감독의 직분이 놓여짐으로써 한 가족으로, 우리 가정에서 받았던 축복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으로 자녀들에게 말씀드리거나와 여러분의 부친은 그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셋째, 신권 정원회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정원회는 가장 독특한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주님은 신권 소유자들이 교회를 돌보고 강화하는 데 사용하는 조직을 제시하셨습니다. 정원회 지도자들은 정원회 회원들을 가정으로 방문하여 마땅히 해주어야 할 칭찬을 해주고, 필요한 것을 축복하고 권고해 주며 복음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들이 제명을 지키고 의로운 생활을 하도록 영감을 주어야 합니다. 가정 복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와드 회원의 가정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정원회 회장인 감독을 통해서 정원회 회장을 대신하는 가정 복음 교사가 부름받게 됩니다. 그들은 가정과 그들의 가족을 포함하여 정원회 회원들을 돌보고 강화시키기 위해 부름받은 신권 대표들입니다.

신권 가정 복음 교사들은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소리를 내거나 은밀하게 기도할 것과 모든 가족의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하며, “……항상 교회 회원을 돌아보며 저들과 함께 있어 격려하며,

“교회 안에 악행이 없는지, 서로 감정이 대립되는 일이 없는지, 거짓말하는 일, 험담하는 일, 욕설하는 일들이 없는지 살피며,

“교회 회원이 자주 회합하도록 힘쓰며 모든 회원이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돌보며”(교성 20 : 47, 53-55)

가장은 가족들에게 왕국의 기본적인 교리를 가르치며, 그들이 왕국을 건설하는 데 돕고 있는지를 살피며,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가족의 관리 지도자로서 인정받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 복음 교육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가족간의 문제가 크게 커져서 감독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기 이전에 미리 알려져 조정되게 됩니다. 이것은 감독의 짐을 크게 덜어 주게 되어 그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위임할 수 없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원회는 그들에게 맡겨진 회원들을 충실히 돌보는 책임을 이행해

야 합니다.

셋째, 교회의 일반 회원들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이 대부분의 감독은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감독은 사회 사업가나 전문적인 재정 담당자가 아닙니다. 모든 감독은 와드의 회원인 여러분에게 봉사하도록 주님의 영감을 받아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메우는 시간을 생각해 보아야, 그들이 맡은 임무를 완수하여, 계획하고, 조직하고, 명상하고 생각하며, 그들의 위대한 청지기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님의 영감과 속삭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계속해서 그의 사무실로 들고 간다면 그것은 단지 그들이 위임할 수 없는 일에 써야 할 귀중한 시간을 빼앗기는 결과가 될 뿐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회원들이 감독을 대할 때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을 제시해 볼까요?

첫째,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주님께 영감과 해결책을 간구하기 전에는 감독의 사무실에 가지 마십시오. 단지 감독에게 문제를 떠맡기기 위해 감독의 사무실에 가지 마십시오. 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문제점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위해 감독실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둘째,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사나 정년회에서 여러분의 필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감독을 개입시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개인의 생활에서 때로는 감독만이 개인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특별히 생각해야 할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길 때는 그에게 가면 그가 여러분을 도와 줄 것입니다.

셋째, 감독이나 그의 가족에 대하여 험담이나 욕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위대하고 중요한 부름을 존중하십시오.

넷째, 복음에 일치하는 생활을 하여 감독이 여러분에게 봉사하도록 부름을 할 때 여러

분이 그 부름을 합당하게 받아들여도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열성, 정력, 팔뚝, 헌신, 그리고 힘을 다하여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명받은 부름에 충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다섯째, 가족 기도시에 여러분의 감독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복지와 그의 힘을 위해 기도하여 그에게 맡겨진 막중한 임무를 다해 낼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게 하십시오.

감독의 직분에는 큰 능력이 따른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독에게 부름 받은 역할을 다 이행하게 하고,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쓰지 않게 한다면 그는 와드에 평안과 안정과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자신의 시간을 계획할 힘을 갖게 하고, 그에게 필요한 귀중한 시간을 빼앗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도 역시 다른 가정의 가장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훌륭한 남편이 되고, 둘째, 좋은 아버지가 되며, 셋째,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방해하거나 전문적인 면에서 성장하고, 어떤 일을 성취해 나가지 못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가족에 대한 이러한 의무가 충족된 다음에 그는 그의 큰 부름에서 여러분에게 봉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감독을 지지하고 도우며, 그들의 복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성공을 거두도록 간구한다면 그들이 교회의 와드를 이끌어 나갈 때 영감을 받아 우리를 인도하게 되므로 우리 생활에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감독님들과 새롭고도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그리스도의 일곱 가지 사명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십이사도 청원회

그리스도의 일곱 가지 사명은,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약속된 메시아, 육신을 입으신 메시아, 십자가에 달렸으나 부활하신 분, 오늘날의 메시아, 복천년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곱 가지 사명,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성역과 말씀에 나타난 일곱 가지 사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보라, 여기 구원의 길이 있다, 혹은 저기 있다.”라는 뜻에서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마 24:23)고 외치는 분쟁과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멸망의 소리와 영광의 소리를 듣습니다. 종파들이 서로 주장하는 여러 교리와 신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반대되는 교리를 믿고 그릇된 길로 나아가라는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와 허튼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 오며, 각종 메시지가 떠돌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상대되는 종교적인 견해는 전혀 참된 것이 될 수 없다는 맹목적인 광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견이 분분한 와중에서 우리는 조용하고 이성적인 음성울 제기하는데, 그 음성은 나팔 소리와 함께 어울려 성령의 권능으

로 회개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전달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곳에서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음성이며 인간에게 영원한 곳에서 불멸의 영광을 얻도록 준비시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며 그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도록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참되고 유일한 그리스도, 참되고 유일한 복음, 참되고 유일한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간증을 들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고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며, 증언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는 다음의 일곱 가지 사명을 갖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1. 창조주의신 그리스도

우리 모든 인간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룩하시고, 승영에 이르시고, 온전하시고, 순결한 존재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는 살과 뼈의 육신을 갖고 계시며,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장자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상속자로 오셨습니다. 그의 모든 영의 형제들과 더불어 그는 자유의지를 부여받고 율법에 따랐습니다.

순종하고, 의로움과 신앙을 통해, 오백 세 월 동안, 아버지의 장자이신 우리의 말형은 권능과 힘과 지배와 예지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때까지 발전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되었으며, “과거나 현재나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전능하신 주님”(모사이야서 3:5)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아버지 밑에서 수많은 세상 의 창조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의 영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구원의 계획을 제정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는 물론 모든 영의 자녀들이 육신을 입고, 시련의 상태에서 살다가 사망하고, 다시 불

말의 상태로 부활하여, 모든 일에서 참되고 충실하게 생활한 경우에만 아버지께서 몸소 누린 것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승영을 얻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선택된 사람이 구세주와 구속주로 성임되었으며, 그의 대속의 희생으로 아버지의 위대하고 영원한 계획의 모든 말씀과 조건이 온전히 수행될 수 있었습니다.

2. 그리스도—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한 가지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과 하늘로 돌아가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구원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천재나 과거나 아직 나타나지 않은 영원한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늘 아래 주어질 유일한 이름입니다. (교성 18:23; 모세서 6:52 참조)

하나의 영원한 복음이 있으며, 타락된 인간을 그들의 조물주에게로 화해시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한 분의 중재자가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은 같은 권능, 같은 율법, 같은 구세주에 의하여 구원받습니다. 그 구세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성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8) 그는 주 여호와이시며, 위대하신 스스로 있는 자이시며, 그 외에는 구세주가 없습니다.

그는 아담과 에녹과 노아의 하나님이며 홍수가 나기 전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및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며, 모든 시대의 모든 예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으로 그들은 그들의 모든 훌륭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야벳인과 이스라엘인과 니파이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히브리서 11:26) 여긴 모세도 그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는 모세의 말대로 홍해를 가르고,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 해와 달을 멈추게 하고, 엘리야의 원에 따라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신 분입니다.

모든 예언자들과, 모든 축복사와 모든 고대의 성도들은 다른 방법이 아닌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아버지를 경배했습니다.

모든 참된 신앙인과,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신앙인들과 신앙을 통해 의를 수행하고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의 이름을 받들며 완전한 목적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그를 따랐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십니다.

3. 그리스도—약속된 메시아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 난 때로부터 요한이 바다니에서 침례를 베풀던 날까지의 4000여 년 동안,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성도들은 메시아의 출현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가르쳤으며,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언했습니다.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모든 희망은 그가 오신다는 약속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며, 그는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를 수행할 것이며, 그에게서 불멸과 영생이 이룩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교리와 그들의 모든 의식, 그들의 모든 경배는 그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연결시켰습니다.

모세의 모든 율법은 그 상징이나 전조로 그의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 오리라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속죄일이면 대제사가 여호와와 이름을 염소 위에 놓고 그것을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사용한 것은 여호와와 몸소 십자가에 달려 세상 만민

의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한 것과 비슷했읍니다.

4. 그리스도—육신의 메시아

우리의 복되신 주님은 유대 베들레헴에 있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읍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빌립보서 2:6-7)

한 인간으로서 그는 만사에서 아버지의 뜻에 일치하는 온전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가르쳤으며, 교회를 조직했고, 다른 사람들을 성직자로 부르셨읍니다.

그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큰 기적을 행했읍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고, 당시에 있던 악의 힘에게서 저주를 받았으며, 잔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읍니다.

5. 그리스도—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분

우리는 지금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한 죽은 자 중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영화로운 불멸의 상태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따라 생활하고, 죽고 다시 삶을 얻게 해주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그는 다른 어느 누구도 질 수 없는 짐을 짊어지셨읍니다. 그는 회개를 조건으로 하여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모든 땀방울에서 핏방울을 흘리셨읍니다. (누가복음 22:44 참조)

다시 한 번, 그가 육신으로서 마지막 세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겟세마네의 고통을 돌이켜,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잔을 다 마셨읍니다.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 위에서 그는 죄값을 치르고 그의 속죄의 사업을 끝마치셨읍니

다. 삼일째 되는 날 이른 아침에 그는 죽음의 사슬을 끊고 지상에서와 하늘에서의 모든 권능을 돌려 주기 위해 무덤에서 나오셨읍니다.

인간의 말로는 놀라운 주님의 사업과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찬양할 수 없읍니다. 그는 우리의 수호자요 중재자로서 하늘에서 영원히 거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울 들을 수 없읍니까?

“경건하고 겸손히
내 머리를 숙이고
대속받은 자들아
너의 주 생각하라.
고통 중에 흘린 땀
비와 같이 흘린 피
달려 못박히신 주
대속하여 주셨네.”
(찬송가 214장)

6. 그리스도—오늘날의 메시아

우리는 한때 이 지상에 계셨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현재 계시며 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우리는 고대의 사람들에게 알려졌었던 이미 돌아가신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고대에 하셨듯이 오늘날의 백성들도 인도해 주시는 살아 계신 구세주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고대에 복음을 받아 기적을 행하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만이 아니고, 현재에 있는 복음과 선조들에게 내려졌던 똑같은 영의 은사로 영광을 입은 사람들을 기뻐합니다.

회복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모든 고대의 예언자들이 말씀한 만유가 회복되는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3:21 참조)

하늘이 열려 아버지와 아들이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으며, 참된 성도들에게 많은 계시와 시현과 은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들의 얼굴을 보았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는 참된 그리스도와 그의 영원한 복음에 대한 지식이 마지막으로 인간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 주시어 사람들이 인자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새롭게 조직되어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복음을 수행하는 사명이 주어진 시대입니다.

7. 그리스도-복천년의 메시아

이제 우리는 엄숙한 말로 주 예수, 영원하신 그리스도,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시실 구세주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리아의 아들이 그의 이웃과 함께 지하기 위해 오신 것이 분명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 아버지의 왕국의 모든 영광을 입고 오실 것입니다.

그 두려운 날에 현재와 같은 세상은 끝이 날 것이며, 사악한 것이 자취를 감추어, 모든 썩어 없어질 것들이 소멸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아침 해가 떠오를 때부터 해가 서쪽 하늘로 기울 때까지 매일같이 모든 사람들을 비출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서 그가 오시는 날에 거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충실한 성도들은 그와 함께 이 지상에서 천년 동안 거한 뒤에 계속해서 해의 영광에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인자의 재림은 사악하고 죄 많은 자들을 복수하고, 불태우고 슬프게 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평화와 승리와 영광과 명예의 날, 주께서 그의 소유로 삼으실 날이 될 것입니다. (말 3:17 참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알고, 성령이 우

리에게 알려 준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소리높여 외치는 바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경배드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참되시며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이시며, 그는 복음을 통해 밝힐 생명과 불멸을 가져 왔으며, 지금도 살아 있는 예언자를 통해 그가 계시하셨듯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구원될 것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 누리에 있는 사람들, 즉 온 나라의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도록 청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성신의 권능에 의하여 나아와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경배하기를 권합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주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는 의로운 일을 수행하여 이 길을 좇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과 앞으로 올 영원한 세상에서 평안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아론 신권 청남을 활동화시키는 일



시 프레데릭 핑겔 감독
메이튼 오하이오 이스트 스테이크
비버크릭 와드

활동화시키기에 가장 중요한 열쇠는 “함께 참여하여 그들과…… 일대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형 제 여러분, 나는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회와 경험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드리는 말씀과 생각이 청남을 키우고 강화시키는 데 조금이라도 유용하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론 신권의 청남을 활동화시키기 위하여 와드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라는 지명을 받았습니다.

첫째, 어느 와드에서나 맥매너웨이와 같은 자매가 필요합니다.

우리 청녀 회장인 맥매너웨이 자매님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독님들께서는 그녀 같은 분을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감독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와드의 청소년들이라는 것을 읽고 그녀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녀가 그 사실을 내게 말했다 때,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감독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감독님은 청소년들과 함께 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집전하지도, 개회 순서에 참석하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모임을 갖는 동안 감독님은 내내 성인들을 집전하십니다.”

하루는 맥매너웨이 자매가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여기 좀 보세요. 감독님이 읽으실 책을 가져 왔어요. 모두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 제가 밀출친 부분만 읽어 보세요.” 그것은 본 페더스톤 장로가 쓴 훌륭한 세대 라는 책이었습니다.

나는 먼저 밀출친 부분을 읽고 난 다음에 책 전체를 읽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 나는 큰 영향을 받았으며, 페더스톤 장로가 시간을 내어 그 책을 쓴 데 대하여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맥매너웨이 자매가 “감독님, 이 책을 읽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청소년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었던 점입니다.

나는 가정 복음 교사로서 어떤 상냥하고 나이가 많은 자매님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사물에 대하여 자신이 느끼는 바를 막 집어서 말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그녀는 나에게 참으로 큰 비침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야 말뿐이죠.”라고 하여 나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하는 중에도 나는 또한 실천없이 말로만 하는 것에 피스러움을 느껴 왔던 듯합니다.

둘째, 신권 집행 위원회와 상호부조회를 활용하십시오.

우리 감독단이 더 많은 관심을 청소년들에게 돌려 왔듯이, 우리의 신권 집행 위원회와 상호부조회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우리의 장로 경의회 회장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들의 지지도는 지난 2년간 90퍼센트의 방문 교육과 역시 90퍼센트 수준까지 꾸준히 향상한 가정 복음 교육에서 현저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지지를 받지 못

하면, 우리는 청소년들을 우리의 우선 순위의 제일 위에 올려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청소년 프로그램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맡기십시오.

전부터 말했듯이 새로운 와드가 조직되면, 먼저 가장 훌륭한 사람을 찾아내어 그를 소년단 대장으로 삼으십시오. 우리 와드의 소년 단 대장은 전에 감독을 역임한 분입니다. 우리 와드의 청남 회장은 고등 평의원을 역임한 분입니다. 그리고 청남 조직내의 모든 지도자들은 복음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모두 신전 추천서를 갖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곳에서 양보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어디를 희생시키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알 수 없으나, 여기는 양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세워 놓으십시오.

넷째, 조동협회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청년대, 조동협회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청년 조직에서와 같은 보살핌과 관심을 가지고 유년대와 불꽃만 지도자를 선택하십시오.

우리 청소년들이 열두 살이 되면, 벌써 신권을 소개받습니다. 소년단의 굳건한 기초는 유년대 프로그램을 통해 닦여졌고, 11세 소년단은 독수리상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았습니다.

다섯째, 독수리 스카우트의 전통을 지킬 것을 권고합니다.

작은 성공은 큰 성공을 가져 옵니다. 우리 와드의 독수리 스카우트의 전통은 우리 와드가 처음으로 조직되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는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물려 받았 습니다.

지금도 교사와 제자들이 독수리 배지를 가지고 일하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기분좋은 일입니다. 정원에서 나의 제일 보초는 18세 생일이 되기 전에, 그것을 받았 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명예로운 독수리상을 받는 자리에서, 그들을 가볍게 포옹해 주고,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말해 줍니다. 이때가 그들이 진심으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여섯째, 선교사의 전통을 확립하십시오.

독수리 단원과 선교사의 명단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더그 블린코 장로와 카렌 보먼 자매와 같은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회원이 된 지 18개월도 안되었지만, 두 사람 다 지금은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업의 정신은 여러분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강화시키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청지기 직분을 살피십시오.

청소년 지도자들이 그들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보고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개인 신전 집전은 대개 반이나 정원에서 책임맡은 감독단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지만, 나는 매분기마다 정원과 반 회장들과 한 자리에 앉아 그들과 함께 그들의 청지기의 직분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그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배울 기회를 주며, 동시에 강화시키고, 권고하고 훈련시킬 기회를 줍니다. 나는 또한 회장의 부름을 주며 그들을 안수할 때 영의 지시대로 행동합니다.

여덟째, 정주적으로 집전하십시오.

감독이 청소년을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집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청소년은 매년 두 번씩 신중하게 집전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감독과 집전하고, 한 번은 연령 그룹 담당 감독과 합니다. 모든 집전은 중요한 것으로, 그들의 목표와 발전 과정을 다루는 것입니다. 필요한 충고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비활동 회원들을 초청하십시오. 의외로 나는 여러 번 좋은 느낌을 받았 습니다. 사실, 여러 번에 걸친 연례 집전은 활동 촉진 과정에서 중요한 첫번째 단계가 되었습니다.

아홉째, 신학 연구원 중등부에 참여하도록 권고하십시오.

신학 연구원 중등부는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이해시키기 위한 독자적인 가장 효율적인 도구입니다.

마이클 형제님이 잠시 후에 말씀하러 올라 오겠지만, 나는 형제님에게 내가 얼마나 형제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얼마나 함께 줄 거 일해 왔는가를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활동 촉진 비결의 본보기를 보여 줄 것입니다. 그 비결은 사랑과 관심과 인내—때로는 많은 인내—의 정신으로 일하여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의 생활과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활동 촉진에 대한 이 훌륭한 비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 여러 가지 사항을 토론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 중에서 어느 것으로도 그 비결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커클랜드에서 배이튼까지의 자전거 여행과 같은 큰 활동을 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안전을 기하여, 그들은 1834년에 커클랜드에서 제슨군까지 성도들이 이주해 간 길을 따라갔습니다. 매일 밤 소년들은 성도들의 일기에 적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일 50마일씩 계달을 받은 소년들은 초기 성도들을 더 잘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많은 성장을 가져 왔습니다. 팀원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간증은 강화되었으나, 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에는 정원회 활동에 개입하지 않고 밖에서 맴돌던 여러 명의 청소년들을 함께 참여시킨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떤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와드에는 일요일 아침에 이부자리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제사가 두 사람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권회에 참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신권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권회를 그들 집에 가서 갖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두 청소년 중에서 누구를 먼저 방문할 것인가를 결정한 다음, 우리는 집회소를 나와 첫번째 집으로 갔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오전 8시에 우리가 그의 집으로 모여 드는 것을 보고 그 집의 가장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

을 가졌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문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내가 그 전날 밤에 그를 방문하여 우리가 할 일을 그에게 말했다면 좋지 않았겠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집의 가장이 문을 열어 주었으므로, 나는 우리의 목적을 설명하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는 몹시 고마와했습니다. 계달을 올라간 우리는, 그 친구가 어딘에서처럼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짐이 켤 그가 주위에 쪽 둘러서 있는 우리를 보고 잠깐 놀라던 모습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모임을 하고 공과를 갖고, 활동 촉진에 관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보다 효과적인 활동 촉진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다음 주에는 다른 청소년에게 그것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일요일에는, 내가 감독이 된 지 처음으로, 우리 정원회 회원들이 신권회에 100퍼센트 참석했습니다. 이들 젊은이들 중에서 현재 복음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다른 젊은이들도 곧 선교사로 봉사하게 될 것임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정 복음 교육을 담당했던 그 자매를 기억하십니까? 나에게 말은 쉽다고 말해 준 바로 그분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청소년에 관해서 실천은 없이 말만 늘어놓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시오. 함께 참여하여 그들과 함께 활동하시고 일대일의 관계를 맺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활동 촉진의 가장 큰 비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활동 촉진을 증진시키는 방법



마이클 니콜라스

메이븐 오하이오 이스트 스테이크
비버크릭 와드

“아론 신권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애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젊은이들의 생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아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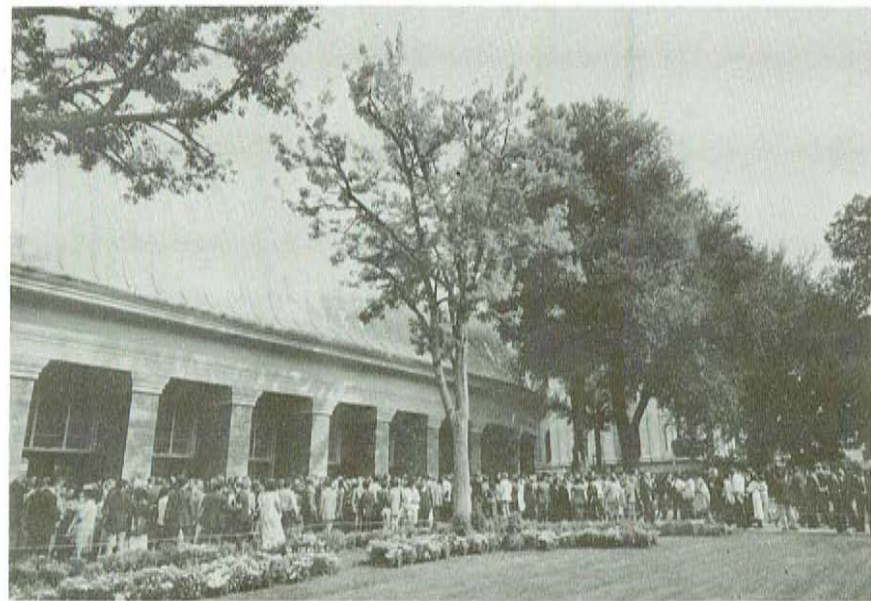
감독님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만 해도, 언
차 대회에서 내가 말씀하리라고는 생각

도 못했습니다. 감독님이 12분 동안 그 대회에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했을 때, 나는 떨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6분이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고 했고 나는 그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감독님이 내게 몇 분 동안 말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밤 말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나 자신과 감독님, 정원회 고문과 아론 신권 정원회에서 활동 촉진을 증진시키기 위해 하고자 하는 몇 가지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독님은 매우 바쁜 분입니다만, 나는 그가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 특히 접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또한 우리 정원회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나는 핑켈 감독님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콘넬 형제님과 같은 훌륭한 고문을 부르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콘넬 형제님은 최근에 개종한 분이어서, 교사 정원회 고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열 네 살로 새로 정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 감정을 처리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처지였지만 회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와드의 청소년들이 집에서 약 200마일 떨어진 인디애나주로 동굴 탐험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여행은 10월의 찬 가을 날씨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어떤 일로 매우 화가 나서 집으로 혼자 걸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걸어가다 보니, 일행이 탄 차들이 나를 지나쳐 갔으며 조금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머리를 떨구고 “모두 다 나를 두고 떠나는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보니 콘넬 형제가 나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가 따라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나에게 나를 혼자 집까지 가게 할 수는 없으니 함께 걷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5마일 가량 걸었습니다. 콘넬 형제님은 내가 내 감정을 이해하여 그것을 잘 정리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미리 부탁을 받은 차 한 대가 돌아와 우리는 그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콘넬 형제님과 나 사이의 깊은 우정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콘넬 형제님은 고문으로 있는 동안, 나에게 감정을 다스리고 정열을 건설적인 것에 사용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그의 집에 새 지붕을 얹게 했고, 또 그의 아이들을 돌보게 했으며 내가 복음에 대하여 더 많이 배우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방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회장단 모임에서, 콘넬 형제님은 우리에게 비활동 회원이 있는데 그를 활동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나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번 동굴 탐험에 참여하도록 마이크를 초청하기로 했고 그는 초청을 받아들였으며,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또한 마이크를 많은 다른 활동에도 초대했습니다. 그는 야외 활동을 가장 즐겼습니다. 나는 캘리포니아로 이사간 마이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여름, 집사 정원회에서는 두 회원들

을 정원회 활동에 완전히 참여시켰으며, 세 명의 비회원들도 교회에 소개했습니다. 정원회는 시온 진영 원정대가 간 길을 따라, 커틀랜드에서 메이튼까지의 270마일을 자전거로 여행했습니다. 집사와 고문, 감독 및 많은 부모님들이 토요일에 커틀랜드까지 차를 몰고 갔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참석했으며 이튿날 교회의 역사적인 유적지를 방문했고, 그날 밤, 노년의 모임을 가졌으며, 월요일에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자전거로 메이튼까지 갔습니다. 야영지에서 철야 야영을 하고, 빗 속을 자전거로 달렸으며, 교통 문제로 시달렸습니다. 그 여행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 불구 소년이 끝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던 것입니다. 우리 와드에서는 아침 일찍 신학 연구원 중등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5시 15분에 일어나야 했으므로 학교에서 출지 않으려면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계속 독서클럽”을 조직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경전을 읽고 교회와 예언자들에 관하여 더 많이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는 고등 학교 2학년 학생 750명 가운데 단 두 명뿐인 말일성도입니다. 신학 연구원 중등부에 속한 와드내의 다른 청소년들을 매일 대하는 것도 내가 표준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학 연구원 중등부 활동에서 회장단으로 또 정원회 회장단으로 일하는 중에 나는 모임을 사회하는 방법을 더 잘 배우게 되었으며, 신학 연구원 중등부, 정원회 활동, 정원회 고문 및 감독들은 내가 나의 감정을 다스리고 넘치는 나의 정열을 건설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내가 선교사로 나가거나, 결혼한 후에나, 부모가 된 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아론 신권과 청남 프로그램이 저희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애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젊은이들의 생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아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아론 신권에 생기를 불어넣음



로버트 엘 백맨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현재 비활동인 세 명의 정원회 회원들을 선택하십시오. 정원회가 소규모라면, 여러분이 기꺼이 관심을 쏟을 세 명의 비회원을 선택하십시오.”

김 볼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론 신권 정원회의 활기를 찾고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를 작성시키는 일은 교회의 다른 모든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아론 신권 정원회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첫째, 정원회 자체의 힘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신권 소유자들은 정원회에 속하는 성스러운 특권을 지니고 있으며 그 정원회에서 활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그러한 명예를 부인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참여시키지 못할 때 바로 그렇게 하는 셈이 됩니다.

우리가 신권 정원회가 조직된 목적, 즉 형제애, 봉사 조직, 복음 원리를 배우는 배움터를 제공하며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책임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원회가 과연 합당하게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회장단에 있는 분들은 그들의 의무를 알고, 연령 그룹에서 모든 청남을 인도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회장단 모임을 주례로 계획하여 뜻깊은 정원회 활동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아론 신권 정원회 지도서가 발행되어 정원회 회장단과 그들의 고문에게 훈련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정원회 고문들은 정원회 회장단 모임의 일부로 지도서에 있는 열 가지 훈련 모임에서 가르침을 주어야 하는데, 이 모임은 주례로 가져야 합니다.

회장단이 그들의 의무를 익히면, 그들은 정원회 회원들을 정원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데 참여시키며, 특별한 관심을 보여 주어야 할 사람들을 활동화시키며, 활동적인 정원회 회원들에게 긍정적인 면에서 친구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며, 비활동적인 회원들을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감싸 주어야 합니다.

활동 촉진 과정에서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정원회 회장단은 특별한 정원회 회원들에게 비활동 청남과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정을 나누게 하고, 지명 과제에 대하여 진척 사항을 보고하도록 합니다. 현명한 정원회 회장단은 정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공감할 줄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해야 합니다.

정원회 회장단은 정원회 연령의 모든 청남의 가정을 몸소 방문해야 합니다.

“마크 피터슨은 지난 3월에 집사로 성임되었습니다. 가족이 교회에서 돌아왔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것은 집사 정원회 회장단이 마크와 그의 부모를 방문해도 되겠느냐고 묻는 집사 정원회 회장단의 전화였습니다. 약속이 정해졌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회장단들이 양복을 입고, 흰 와이셔츠에 타이를 매고, 경전을 든 채 현관에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크와 그의 부모들과 함께 앉아서 기도를 한 다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임 순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회장은 경전을 펴고, 마크와 그

의 아버지에게 아론 신권의 권능, 다시 말해서, 집사의 특별한 의무를 말해 주는 구절을 읽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회장은 마크의 특별한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말했으며,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성찬 전달 방법과 전달자로서의 행동 및 음식 기금 수집 방법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질문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그가 정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을 환영하며 그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도와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마크의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그들은 대단한 분들이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모든 아론 신권 정원회는 모든 회원들이 “나에게는 나를 정말 아껴 주고, 보호해 주고, 지지해 주며, 나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참된 형제님들이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고귀한 형제제로 결속된 조직입니다.

둘째, 고문으로 일하는 의로운 분들은 아론 신권 소유자의 생활에 얼마나 큰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까?

본질적 및 질적인 면에서 청남이 아론 신권 고문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은 청남의 생활에서 우리가 바라는 많은 결과를 예견해 줍니다. 이 관계는 청남이 신권을 통해 전진해 나아갈 때 점진적으로 중요한 것이 됩니다. 사실, 그것은 제사 연명의 청남의 참된 종교적 느낌과 경험을 가장 잘 나타내 줍니다.

우리의 청남들이 아버지와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영웅상을 제시할 수 있는 고문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청남들은 진정으로 관심을 보여 주는 사람에게는 거의 밤을 새워 가면서라도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관계를 맺고, 청남의 신뢰와 신임을 얻으며, 그들을 참으로 그의 친구로 삼을 만큼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임무를 맡아야 합니다.

고문들은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해 훈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론 신권 정원의 지도서에는 감독단에서 훈련시키기 위한 정보와 내용, 계획표가 들어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셋째, 주님은 감독을 아론 신권 회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감독들에게 이것이 그들의 으뜸가는 가장 중요한 책임임을 상기시켰습니다. 모든 아론 신권 소유자들은 주님께서 감독을 그들의 챔피언과 본보기로 지정하셨으며, 각자는 모든 일상 행위에서 감독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론 신권 회장인 감독은 모든 아론 신권 소유자에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보여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와드내의 청남은 누구든지 자신이 혼자 걸고 있으며, 자신은 아무 곳에도 필요하지 않고, 쓸모가 없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는 항상 감독이 자신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종이며, 항상 가까이 할 수 있고, 한마음이 되며, 믿음직한 챔피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독님은 교회내에서만 아론 신권 소유자와 만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감독님들은 연단에서 내려와 타이틀 풀고, 일상 생활에서의 아론 신권 소유자들과 사귀어야 합니다.

내게는 감독의 직분을 훌륭하게 해낸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중에, 각 와드를 방문한 스테이크 부장은 소년 소녀를 작기 한 명씩 불러 감독과의 관계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스테이크 부장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생활하는 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감독에게 의논하겠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은 스테이크 부장은 그들의 대답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우리 감독님은 너무 의로우신 것 같아요.” 내 친구의 명예에 관한 이

야기지만, 그 와드의 소년은 “우리 감독님께는 의논하지 않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감독은 비공식적인 분위기나 활동, 봉사 활동, 운동 경기, 그 밖에 그들이 한 인간으로서의 그를 알게 되는 실제 생활 분위기에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스테인크와 와드의 신권 지도자들이 제회하고 지휘한 최근의 야영지에서, 나는 한 청소년에게 그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느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스테이크 부장님과 감독님들께 둘러싸여 있으면 항상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떤 이유에선가 나는 항상 집전받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야영지에서 생활함으로써 내가 그들과 친숙해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다음에 집전을 하는 자리에서는 함께 이야기를 나눌 추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감독에게 제사 정원회의 회장으로 몸소 봉사하도록 부름을 주신 것에 유의하십시오. 그 회장단의 자격으로, 감독은 그 직분에 대한 열의를 갖고 있으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감독이 모든 제사의 친구가 되고, 항상 개인 및 그룹의 필요 사항을 알아, 그와 그의 제사들 사이에 형제애와 우정을 느끼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감독이 회장단의 열의를 행사하여, 제사들에게 교회의 교리와 관습을 따르도록 도와 준다면, 어떤 제사도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제사 정원회 회장으로서의 감독의 부름과 지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독 여러분, 제사 정원회는 여러분이 그 정원회의 회장으로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호위병들과, 와드의 사교적인 분위기를 열망하는 젊은 사람들과 명예와 신임과 신앙의 길로 여러분이 인도해 나갈 사람들을 모으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감독님들은 제사들과 적어도 일년에 두 번씩, 모든 집사와 모든 교사들은 일년에 한 번씩, 합당성과 영적인 발전을 위해 집전하십시오. 그에게 목표를 정하고, 델기세씩 신권의 맹세와 성약을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며, 그가 선교 사업과 신권 결혼을 위해 준비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러한 집전에 비활동 소년들을 포함시키고 그들에게 정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하십시오. 여러분의 보좌들이 진지하게 집사와 교사들을 적어도 일년에 한 번씩 집전하는지 알아보십시오.

그러한 집전은 개인적으로 직접하십시오. 집전은 진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을 보이십시오. 일대일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기회는 우리 청소년을 지도하는 데 더없이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인다면 여러분이 보인 표적이 영원히 그들에게 나타날 것임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넷째, 아론 신권 정원회 프로그램은 교실에서 교회의 교리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교리를 신권 목적을 갖는 균형잡힌 활동을 통해 실생활의 경험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아론 신권 정원회 지도서에는 성공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계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청남 활동은 정원회에서 인도하고, 정원회에서 계획하는 정원회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규칙적으로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지침서는 모든 정원회에서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주례 활동을 갖기를 요구합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청년과 함께 합동 활동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따르면, 좋은 습관이 붙게 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필요할 때만” 활동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필수적인 계속성을 놓치게 됩니다. 적어도 3개월 전에 미리 잘 계획하도록 하십시오.

시오. 일년 전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치밀하게 일정을 세우고 합당하게 계획하는 것은 일을 훌륭하게 해낼 시간을 주며, 청소년들의 호감을 사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사와 능력과 개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소년들에게서 이끌어 낼 수 있는 자원을 다 활용한다는 것은 절대로 필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인적 자원에서, 소년단은 우리 청소년들을 교회와 가까워지게 하는 데 사용하는 확실히 증명된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년들의 마음을 끌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이 독수리 단원이 되는 것과 선교 사업을 하는 선교사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올 여름에 아리조나 지방에서 가진 한 야영 대회에서 독수리 스카웃 잔치가 열려 1,150명의 독수리 스카웃 단원이 모였습니다. 그 모임에서 모든 독수리 스카웃 단원이 선교사로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야영, 하이킹, 고산 지대 탐험 등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남자들끼리만의 경험을 즐기게 하고, 청소년과 성인 지도자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지만, 그러한 현상은 우리 시대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세월만 흐른다고 해서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청년의 남성상을 입증하고, 그 기개를 시험하며, 세상에 도전해 보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성취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로써 인품과 남성상이 이루어집니다.

어린 스카웃 단원이 들어 올리기도 힘든 짐을 짊어지고, 50마일이나 되는 도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길을 따라가면서, 수없이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끝까지 짐을 지고 도보 여행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 지역의 안내 지도 앞에 서서, 등산로를 가리키며, "나는 결국 해냈다."하고 소리쳤습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운동을 통해 교회로 개종했으며,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하여 비활동적인

상태에서 구제되었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자라나면서, 팀을 이루는 스포츠가 교회에서 가장 인기있는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활동의 밤에 아무도 감독하지 않은 채 농구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포츠 프로그램은 청년의 관심 분야와 같이 광범위합니다. 농구, 소프트 볼, 배구, 축구, 레슬링, 권투, 싸이클링, 수영, 원반 던지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는 극히 비활동적인 청소년들의 호감을 살 수도 있고, 동시에 정원회 회원들이 하나의 팀으로 경쟁할 줄 알게 되어 형제애의 정신을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다른 장단에 발을 맞추어 나갑니다. 대부분 그러하듯이, 그들은 신체 활동을 즐기지 않으므로, 그룹으로부터 고립됩니다. 나는 운동에는 별로 소질이 없지만, 무대 위에서는 뛰어난 소질을 보이는 한 젊은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와드의 연극과 로드 쇼에서, 우리는 항상 그에게서 뛰어난 연기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년기를 넘기면서부터 그는 와드내에서 연극을 맡아 했습니다. 현재 그는 큰 대학에서 연극을 가르치고 있으며 교회의 충실한 회원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겨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소질을 발휘하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았다면 그는 벌써 교회에서 떠났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술성은 최근 들어 크게 저조해졌지만, 그것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 본부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 스테이크와 와드에서 그들의 활동을 선택할 재량권을 갖게 되었을 때 교회가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만, 어떤 스테이크와 와드에서는 이것을 예술성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와드, 스테이크 활동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감독단과 정원회 및 청소년 반에서 감독단 청소년 위원회가 계획한 음악, 연극, 웅변, 무용 등의 교양 활동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 역시 청

소년들의 관심사 만큼이나 광범위한 것이며
아른 신권 정원회의 활동과 형제애를 증진시
켜 나가는 귀중한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키우
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는 다만 베풀기
만 하고,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방관자의 역
할을 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들은 참여함으로써 성장해 나가며, 그들의
이웃에 대한 사랑을 키워 나갈 뿐 아니라 동
시에 그들은 봉사함으로써 자신의 약점과 어
려움을 잊게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뜻깊
은 사업을 하는 경험을 더 일찍 가지면 가질
수록, 그들의 신권 책임과 형제를 지키는 자
가 되는 그들 자신의 능력을 더욱 빨리 이해
하게 되며, 영원히 행복을 느끼게 되는 비결
을 더욱 빨리 알게 될 것입니다. 봉사하는 중
에 모든 정원회 회원들은 자신이 필요한 존재
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비활동적인
회원이라도 어떤 사람의 생활을 축복해 주자
는 초청에는 기꺼이 응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상호 관계를 굳힐 수
있는 건전한 분위기를 마련해 줍니다. 이것
은 중요한 것입니까?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
관장은 우리에게 이러한 면을 상기시켜 주었
습니다. “와드의 영성은 그 와드의 청소년 활
동과 비례할 것입니다.”

이제 비용에 대하여 몇 말씀드려야겠습니
다.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가 성도들이 내는
돈을 사용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라고 가르쳤
습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는 우리들은
스태이크와 와드 예산의 상당한 부분과 가족
들이 사용하는 많은 교회 경비가 운동, 소년
단, 무용, 연극 및 청소년 대회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활동에
는 많은 경비가 들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청소년 활동을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고든 비 힐클리 부대
관장은 그 주제에 대하여 연차 대회에서 이러
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색해지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현명하게 되자는 뜻입

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젊은이의 가치를 쓰
여진 경비로가 아니라, 훌륭한 판단을 활용
하여 생각해 보기를 권합니다.

청소년들의 필요 사항을 들어주기 위해 많
은 돈을 쓰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큰
모험을 하기 위해서 색다르고, 값비싼 여행
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큰 모험은 계획만 잘
하면 집 가까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대회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가지야만 그 목적
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단 활동, 운동
및 기타 프로그램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돈을
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
까? 그들은 그러한 일을 하는 중에 어떤 귀
중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틸위스 영 장로는 사망하기 얼마 전에, 청
남 본부 임원회에 나와서 청소년들에게 무엇
이든지 다 허용해 주는 것의 위험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들
앞에 찬막 장미, 배낭, 슬리핑 배, 스토브,
요리 기구 등을 늘어놓은 다음, 청소년들이





그러한 것을 몸소 설치하고 사용하면서 얼마나 크게 성장하고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론 신권 정원회를 되살리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하면 청소년들에게 잘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처럼 진장하고 썩직한 청소년들이 벨기세택 신권 정원회의 나이가 되면 벨기세택 신권의 맹세와 성약을 훌륭하게 받아들이고, 장로 정원회에 그들의 신앙과 헌신을 바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청남 회장단으로서, 우리는 여러 스테이크 부장, 감독, 고문 및 성인 지도자와 정원회 회장단 및 정원회 회원들에게 현재 비활동인 새 명의 정원 회원들을 선택하도록 목표를 드리겠습니다. 정원회가 소규모라면, 여러분이 기꺼이 관심을 쏟을 새 명의 비회원을 선택하십시오. 다음해에 이들 세 사람을 활동화시키고, 개종시키며, 참여시키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십시오. 4개월마다 한 사람씩만 하면 됩니다. 정원회마다 다음해에 고작 세 사람뿐이냐고요? 여러분이 속한 정원회에서 보면 많지 않겠지만, 교회 전체로 보면, 우리는 현재 정원회에 속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100,000명의 젊은이들을 가까이 하여 정원회에 활동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청남 회장으로 부름받았을 때, 나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 앞으로 오실 구세주를 맞이하도록 준비시킬 프로그램을 제시하라.”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나는 성인 지도자와 청소년인 여러분 모두에게 이 젊은 세대는 매우 특별한 일을 할 고귀한 세대라는 간증을 드립니다. 이 고귀한 젊은 세대들이 풍부한 경험과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고귀한 사명을 위해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불모야 할 시간과, 관심과 애정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아론 신권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보좌

“하나님께서 아론 신권을 지닌 젊은이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성스럽고 기이한 부름과 권능을 위임있게 수행해 나가기를 바라십니다.”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종들아, 나는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베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느니라. 이 신권은 또다시 레위의 자손들이 의롭게 제물을 주께 바칠 때까지 결코 세상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교서 13편)

여러분은 모두 교리와 성약 13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1829년 5월 15일 침례 요한이 요셉 스미스와 율리버 카우드리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아론 신권을 부여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열두 살의 어린 소년으로 집사로 성임될 때 나의 부친은 이 말씀을 암송하라는 목표를 주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후 이 말씀은 일생을 통해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많은 소년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태버나를 안과 또 다른 홀에서 이 모임을 경청하고 있는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소년들이 일어나서 나와 함께 이 말씀을 외워 보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종들아, 나는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베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느니라. 이 신권은 또다시 레위의 자손들이 의롭게 제물을 주께 바칠 때까지 결코 세상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알고 있고 함께 외워 주신 여러분께 치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 구절을 외우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교리와 성약을 펴서 이 구절을 읽고 암송하도록 권고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신권에 관한 장입니다. 그것은 신권이 모든 면에서 유효하며 참되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제 나는 침례 요한이 이 신권을 회복했을 때 주신 이 말씀의 특별한 낱말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신권의 권세에 대해 아직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나는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종들아”라는 어귀에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이 신권을 지니고 이것을 행사함에 있어서 여러분은 침례 요한 곧 그가 생존했을 때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단강물 속에서 침례한 바로 그분과 같은 일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바로 그 요한이 그 당시 청년이었으며,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요세과 율리버를 그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종이라고 말씀한 것은 흥미있는 일입니다. 그는 왕이 신하를 대하듯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으며, 관사가 재판정에 선 사람에게 말하듯 하지 않고, 대학 총장이나 고등 학교 교장이 학생들에게 훈계 하듯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한 몸을 지닌 그분은 이 젊은이들을 그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자들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나는 이 사실에서 경이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가 함께 나누고 있는 위대하고도 놀라운 형제애의 참된 영, 하나님의 신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에서나 세상에서의 우리가 처한 위치와는 상관없이,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떠한 피부색이든 상관없이, 다 같은 종들이며 형제들이며, 위대하고 신성한 신권 조직의 일부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각자에게 무엇인가를 의미할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격하시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모두가 그의 교회에서 성역을 베푸는 책임을 이행하는 데서 주님의 종으로서 품위를 높이게 합니다. 이때버내클의 단상에 앉은 모든 형제들을 포함해서 여러 곳에서 모이신 여러분은 모두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신권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일에 있어서 그것을 행사할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특히 젊은이들이 결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다음 구절은 요한이 말씀한 권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이름으로” 말씀했습니다. 우리들 중에서 누구도 우리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힘이나 권능으로는 이 신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신권을 행사함에 있어 언제나 메시아의 권능으로 그것을 행사해야 합니다. 메시아는 누구였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일상 행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젊은이로서 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곧 성찬을 전달하거나, 가정 복음 교사로서 봉사하거나, 성찬을 축복하거나 침례를 베풀 때나 여러분은 주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거룩한 이름과 그분의 거룩한 권능으로 행하고 있음을 결코 잊지 않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할진대, 이것은 여러분의 생활에 놀라운 영향력

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권을 지닌 자로서 봉사한다면, 여러분은 부정직할 수 없으며,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담배로 여러분의 육체를 학대할 수 없으며, 헛되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으며, 도덕적으로 불결하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밤 여러분에게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신권 행사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호소합니다.

침례 요한은 이 권능을 부여하면서, 이 신권의 권세에 관해 말씀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중에서 그는 이것은 “천사의 성역의…… 열쇠를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경험을 했으며, 오래 살았던 윌프رد 우드러프 장로가 교회의 대관장이었을 때 그는 아론 신권을 지닌 소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부름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만 한다면, 제사아들 사도이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합니다. 제사는 천사의 성역을 베풀 열쇠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나, 칠십인이나, 장로로 봉사하고 있을 때에도 제사 직분을 갖고 있었을 때보다 결코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보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빌렘니얼 스타, 53 : 629)

사랑하는 젊은 형제 여러분, 이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이 신권에는 천사의 성역을 베풀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해석하건대 그것은 만일 여러분이 신권에 합당하게 생활할진대, 여러분은 하늘의 존재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축복할 바로 그 권세를 받고 향유할 권리를 지닌다는 뜻입니다. 만일 그 소년이 사려깊다면 이 놀라운 축복을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인용한 동일한 말씀에서 우드러프 대관장은 또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골짜기에 와서 다시 윈터커티스로 돌아간 후, 브리감 영 대관장님의 명으로 보스톤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도중, 나는 어느 날 저녁 윌리엄스 형제의 마당으로 마차를

물었습니다. 울슨 하이드 형제도 내 곁에서 마차를 물었습니다. 마차 안에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말을 밖으로 내보내고 저녁 식사를 한 후 마차에 있는 잠자리로 갔습니다. 잠자리에 든 지 얼마 안되어 영이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일어나서 그 마차를 옮겨라.' 나는 아내에게 일어나서 마차를 옮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왜요?'라고 묻자, 나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나에게 그렇게 물었을 뿐이었으며, 내가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20미터 내지 25미터 정도 마차를 옮겼으며 앞바퀴를 집 모퉁이에 대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주위를 돌아보고는 다시 잠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앞에서 말한 영이 또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말을 딱갈나무 아래에서 옮겨라.' 말들은 내 마차가 있는 곳에서 200야드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가서 말을 끌고 작은 히코리(복미산 호두과 식물) 숲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30분쯤 지나 회오리바람이 일어 그 딱갈나무를 부러뜨려 땅에서 2피트 가량 꺾어졌습니다. 회오리바람으로 3개 내지 4개의 울타리가 쓰러졌으며, 앞뜰에 세워 놓은 울슨 하이드 형제의 마차 주위가 휩쓸렸습니다. 바로 그곳이 내 마차가 서 있었던 곳이었습니니다. 만일 내가 그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어땠겠습니까? 나와 아내와 자녀들이 틀림없이 치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지진이나 우뢰나 번개 같은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작은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으며 나에게서는 계시의 영이었습니다." (밀레니얼 스타, 53-642-3)

이 간증은 곧 교회 대관장이 된 위대하고 현명하고 성실한 분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분은 신권을 받고 "천사의 성역"을 베풀기에 합당한 자들이나 여러분에 속한 축복에 관해 말씀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생활이 신권을 지닌 말일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처럼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큰 축복은 누구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이 요셉 스미스와 율리히 카우드리에게 하신 말씀은 곧 "회개의 복음의 [열쇠]"였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이 교사이거나 제사로서 가정 복음 교육의 지명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회개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봉사하는 일에서 권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는 말일성도들이 보다 복음 원리에 충실하게 생활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한 어린 제사가 가정 복음 교사로서 그의 부친과 함께 나의 집에 왔습니다. 그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된 복음의 원리에 보다 충실히 생활하도록 격려할 기회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역을 행함에 있어 우리가 해야 하는 큰 일은 회개를 가르치고, 죄를 이겨 내어 주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도록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의 복음이며, 여러분이 지닌 신권의 권능하에서 이 회개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책임과 권능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행하려면 여러분 스스로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침례 요한이 아론 신권을 부여할 때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의 열쇠"라고 말씀한 것을 살펴봅시다.

제사 신권을 지닌 여러분은 모두가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베풀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권세에 대하여 의문을 품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일 남자나 여자가 진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그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되고 그의 생애가 새롭게 시작될 침수로써의 침례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을 침례한다는 것은 사소하거나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젊은 제사인 여러분

은 주님의 이름과 거룩한 권능으로 행하여 쉼이라는 놀라운 과정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씻고 새로운 삶, 보다 훌륭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스러운 권세를 합당하게 활용할 수 있는 책임은 얼마나 훌륭한 것이니까!

이제 젊은이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이 하신 다른 말씀을 인용해 드리고자 합니다.

때는 1897년 2월 28일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장소는 이 태버나클이었습니다. 그날은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의 90회 생신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건물에 더 많은 사람들을 들여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큰 건물의 모든 파석과 통로와 구석 구석은 인파로 메워졌습니다. 그곳에는 1만명 이상의 젊은이 곧 여러분 연행의 청남과 청녀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몸이 쇠약하고 목소리에 힘이 없으신 우드럽 대관장은 내가 지금 서서 말하는 이 설교단에서 특히 그곳에 참석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제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과 장년 시절과 노년 시절을 다 겪었습니다. 여러분과 더 오랫동안 함께 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마디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룩한 신권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와 이 세대에 여러분을 지명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은 여러분의 총관리 역원들의 권고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생활하십시오. 젊었을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에 귀 기울이기를 배우십시오. 이것을 여러분께 연관시키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계시의 영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시어 이날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악으

로 인도하는 모든 간증과 본보기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거니와……담배를 피우지 말고 술을 마시거나 정신과 육체에 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취하지 말고 주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에게 내려진 사명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윌포드 우드럽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4대 대관장, 마티아스 에프 카울리 출판 준비,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뉴우스, 1909년, 602-3페이지)

나는 오늘 밤 젊은이 여러분에게 간증하면서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의 위대한 권고의 말씀을 되풀이해 들려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며, 우리가 말한 신권은 진실로 이 지상에 존재하며, 우리는 이 축복과 권세와 책임을 나누어 갖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께서서 아른 신권을 지닌 젊은이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부여된 성스럽고 기이한 부름과 권능을 위엄있게 수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혀 다른 주제에 대하여 감히 말씀드리거니와, 성인 형제 여러분 특히 감독단에서 봉사하는 분들에게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찬식에 관한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임에 대한 책임을 진 우리들은 만일 이 모임이 영적이며, 이것이 복음을 가르치며 간증, 특히 세상의 구세주에 관한 간증을 하는 모임이 되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큰 축복을 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식은 어떤 것을 즐기는 시간이나, 복음과 관련없는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구세주의 영원한 제회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구속주로서 그분에 대하여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계시에 대한 이해를 키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모임에서 주님에 대해 간증하고 그의 생애와 그가 걸으신 길과 특히 그분의 구속의 희생에 관해 간증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1831년 8월 7일,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우리들과 그의 교회의 모든 백성들에게 성찬식에 관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하여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없이 지키고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 지이다…….

“그러나 이날 곧 주의 날에 너는 네 형제와 주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네 헌물과 네 성찬을 가장 높으신 이에게 바치는 것을 잊지 말라.” (교성 59 : 9, 12)

만일 그들이 오늘날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 서나 만연해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스스로 기르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의 더러움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와 같은 훈련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계시의 의미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성찬식에서 예배하는 자들로서 주님과 교통신에서 세상의 더러움과 동떨어져 살기 위한 자기 수련과 소망을 키울 수 있습니다.

모든 성찬식은 영적인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임은 명상과 자성의 시간이 되어야 하며, 주님께 찬양의 노래를 드리는 시간, 주님과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와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하며 경건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임에 대한 책임을 진 여러분에게 모든 성찬식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더욱 열심히 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와 특히 청소년 여러분에게 강조하노니 이 성스러운 모임에서 경건한 영을 키울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흠없이 지키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께

서는 우리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방향은 명백하고 너무나 분명합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따르기를 기원합니다. 거룩한 신권을 소유한 나의 형제들에게 이 일의 신성함에 대한 나의 간증과 증거를 드리며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이아거를 나누고 있는 닐 레이 맥스웰 장로,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제이 보머스 파이먼스 장로, 프랭클린 더 리차드 장로(왼쪽부터).



“여러분의 아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십시오.”



에이치 버크 피터슨 장로
관리 감독단 제 1 보좌

“우리가 서로 정결케 하는 과정을 새롭게 가짐으로써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며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 권을 소유한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에 드릴 말씀의 소개로서 수년 전에 워싱턴 디스에서 델레스 공항까지 택시로 가는 등

안 내게 있었던 훌륭한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운전 기사와 함께 꽤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피부색이 검은 사람에게서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몸무게가 적어도 250파운드에 되었습니다. 그는 세 아들의 아버지이며, 말아들은 14세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미우정국의 정규 직원이었으나, 그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자신의 우편 업무를 마치고 오후에는 택시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언제나 저녁이면 식사하러 집에 들어갑니다.”

“당신의 아내는 요리 솜씨가 좋은가 보군요.” 하고 나는 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그가 그 시간에 집으로 가는 단 하나의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뭐에라도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집에 일찍 들어가는 이유는 아이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



서입니다. 14세 된 아들은 키가 저의 나란 합니다. 몇 년 후에는 나는 그를 힘으로 다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알고 또한 나에게 대해 사랑과 존경을 느끼게 되면 순종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아이들과 함께 공놀이를 하거나 숙제를 하거나 그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돈보다 더 중요하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는 우리가 보인 모범이 훌륭한 것이든 그렇지 못한 것이든 자녀들의 생활과 행동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예를 들면, 나는 자녀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다툼을 하거나 불친절하게 말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아내를 학대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자녀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나는 일요일에 사냥을 가거나, 마당에서 일하거나 안식일에 장보러가는 아버지는 도대체 자신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버지가 감독이나 가정 부흥 교사나 주일학교 교사나 심지어 예언자를 비난한다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나는 이러한 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가 시속 25마일 제한 구역에서 45마일의 속도로 차를 몰거나, 55마일 제한 구역에서 70마일로 달리는 것을 보는 14세 되는 아른 신권 소유자의 준법 정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사소한 부정직한 행위라도 자녀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만일 어떤 자녀가 그의 아버지가 욕설을 하거나 악담을 하는 것을 듣는다면 그들이 자라서 그것을 진정한 성인 또는 벨기세릭 신권 소유자의 모범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대체로 말해서, 아버지가 신권 표준에 따라 생활하는 데서 일관성없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 아들은 여전히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를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느낌으로 인해 그는 아버지와 똑같이 되고 싶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다보면 자연히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 소년이 신권과 권능과 순종심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또 만일 그의 아버지가 그릇된 모범을 보인다면, 그가 신앙과 간증과 헌신과 신권 지도자와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기르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아버지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때, 거의 모든 소년의 생활에서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되기를 원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 비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좋지 못한 모범을 보일 때나, 잘못을 저지른 때에도 아들에게는 그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전히 위대한 것입니다.

대체로 충실한 아들은 충실한 아버지에게서 나오며, 쉽게 동요되며 신앙심이 없는 아들은 그와 같은 아버지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은 놀라시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충실한 개종자들 중에 일반적인 법칙의 예외가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아들들은 아버지의 모범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 여섯 살 난 아들이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면도 후에 바르는 로션을 개의 목욕물 속에 빠뜨렸거나 또는 열두 살 난 아들이 여러분이 새로 산 벡타이 세 개를 이어 줄을 만들어 소년단 매듭 짓는 연습에 사용하였거나 또는 열 여섯 살짜리 아들이 첫 데이트에 새 차의 밤버(완충기)를 망가뜨리고 돌아와서는 단순히 “아빠, 그런 것은 모르는 일이에요.”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 그 아들은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는다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그들이 참으로 축복이며, 여러분은 그들에 대한 신성한 책임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문제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앙과 간증과 순종은 예언자들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는 이와 같은 확신을 갖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따르는 모범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자유의지는 너무나 기본되는 복음 원리이므로 다른 사람을 강제로 믿게 할 수는 없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강제로 신앙과 간증을 갖게 할 수도, 또한 순종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믿도록 인도할 수는 있으나 강제로 다른 사람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영웅으로 생각하는 물몬경의 위대한 선교사는 이 영원한 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했습니다. 암몬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힐라맨의 이천 명의 아들들은 그의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는 개종하기에 앞서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믿게 되려면 마음으로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아들의 개종이 과정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중요한 행동의 원리를 지키고 실천하는 아버지에게 태도가 바뀌며, 아버지와 아들간의 벽이 헐리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되는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들의 말을 믿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모범의 영향력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들을 지켜 보고 있는 자들에 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신권의 권세와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고 가르치는 능력과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능력, 가족, 즉 아들이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능력은 의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받는 안수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권의 권세는 이것을 받을 준비가 된 자들 곧 의로운 생활의 모범을 보인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오늘 저녁부터라도 제거해 나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어떤 의미의 것이든 정결케 하는 과정을 새롭게 갖도록

합시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의 우의 소리 때문에 말이 결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소년들에게 귀기울여 주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는 마음속으로 더욱 잘 믿게 됩니다. 내가 소년이라면, 나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기를 원할까요? 나는 필경 나에게 이것저것 설교나 늘어놓는 아버지보다는 오히려 나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아버지를 원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는 설교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르치는 데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아들의 마음속에서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평범한 12세 소년 또는 16세 소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시급히 필요한 일은 청소년에게 합당한 자아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곧 왕국을 건설하는 훌륭한 일꾼들이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누가 더 많은 말을 합니까? 어느 성공적인 아버지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더 많이 귀를 기울여 주고, 그리고 아들에게 많은 말을 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단 둘이 있는 시간을 가질 때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귀기울일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나는 이미 워싱턴 디시의 택시 운전사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리차드 엘 이만스 장로는 다음과 같은 의미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에 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급하게 요청되는 일은 자녀가 진지하게 물을 때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항상 묻는 것은 아니며, 항상 유순하게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쓰는 말이나 우리에게 편한 시간이 아니라, 자녀들이 쓰는 말로 그들에게 편한 시간에 그들과 보조를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와서 질문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믿고 사소한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게 되면 그들은 후에 더 큰 문제도 털어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100일 명상, 5권, 솔트레이크시티: 퍼블리셔스 프레스, 1972년, 5: 114-15)

소년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을 들어 봅시다. 그 소년으로 하여금 아버지는 그 소년 자신이든, 교회 지도자이든, 교사이든, 이웃이든, 자신의 아내이든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소년의 어머니는 더욱 그러합니다. 아버지가 그의 아들에게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려 주는 것보다 더 가치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란 그리 힘든 일이 아닙니다. 흠잡기는 쉽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약점을 보지 않고 언제나 그 속에 있는 황금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소년에게는 인내하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 아버지는 화를 더디 내며 빨리 용서하며, 자신도 한때는 소년 시절이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고, 자기 아들이 변협한 어른과 같이 행동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최근 토요일 저녁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여섯 살과 열 살 가량의 두 아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섯 살짜리 아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거칠게 혼들어 때려 호되게 나무라는 듯했습니다. 다른 식탁에는 희희낙낙한 분위기였으나 그들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서로 대화가 없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음식을 집어 먹으면서도 아버지가 화가 나지 않았나 하고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 어린 아이의 얼굴에는 걱정과 두려움과 어린이에게 어울리지 않는 딱딱한 표정이 감돌았습니다.

소년에게는 필요할 때 그의 행동을 바로잡아 줄 아버지가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그를 사랑해 주고 좋아하고 그가 어떤 일을 하든 개의치 않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고 심대를 성

인과 같이 대우되 성인처럼 행동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이 행하는 소년으로서의 행동만이 아니라 어른으로서의 잠재력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아버지에게는 영원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엘버트 허바드의 스크립북에서 우리는 주옥같은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소는 가장 온밀한 구석이나 설교단에 가까운 화석이나 옥수수밭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화로가이다. 거기서 그는 자신의 가면을 벗어 들고, 그가 개구장이인지 천사인지, 왕인지 영웅인지 사기꾼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그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든, 세상이 그를 우두머리로 대우하든, 그를 썩은 달걀로 내치든가 개의치 않는다. 그의 명성이나 종교가 어떠한 상관치 않는다. 그러나 그의 어린 아기가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의 반려자가 그에 게 돈을 타 낼 때마다 가슴 조린다면, 그가 아무리 아침 저녁으로 간절히 기도할지라도 그는 일류 사기꾼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그의 자녀들이 문을 박차고 나와 그를 맞이하며, 남편의 발걸음 소리를 듣는 아내의 얼굴에 애정의 빛이 담백 어린다면, 그가 순수한 인간임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가정이 곧 천국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참다운 도량”, 엘버트 허바드 스크립북, 뉴욕, 윌리엄 에이치 파이즈 앤드 컴패니, 1923년, 16페이지)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신적인 신성한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성스러운 진리를 가르치면서 마음을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정결케 하는 과정을 새롭게 가짐으로써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며 장애가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

하나님의 신권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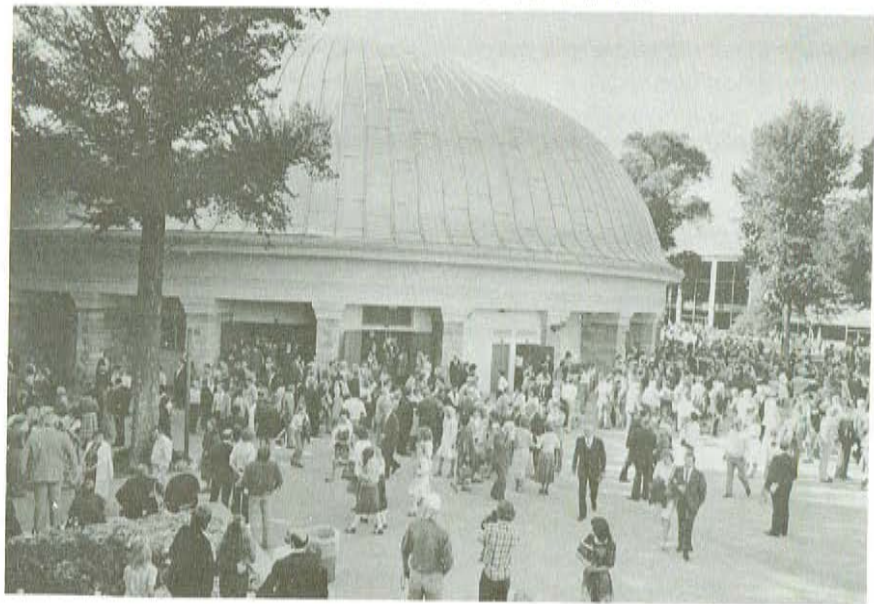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실망시키게 되는 일, 또는……신권에 순종함으로써 임하게 되는 축복에 대한 여러분의 권리를 감소시키게 되는 일은 어떤 일이든 결코 해서는 안됩니다.”

나는 이 모임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며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

니다. 나는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신권을 지니는 것은 위대한 일이며, 오늘 이 모임은 바로 그 신권회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신권은 권세입니다. 그것은 신권을 가지고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에서 영향을 미칠 성스러운 의식을 수행하도록 주님께 서 주신 특별한 은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권능은 곧 신권입니다. 나는 오면 세월이 걸쳐 신권을 받아 집사에서 시작하여 내가 일할 책임을 지닌 맬기세믹 신권의 직분을 받게 된 특권을 지니게 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신권이 세상을 구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계시되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영생을 얻도록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곳에 보내진 것입니다.

이 건물이 나와 같이 나이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맬기세믹 신권 소유자와 아몬 신권을 지닌 젊은이들로 채워져 있음을 보는 것은 가슴 벅찬 일입니다.



나는 집사로부터 벨기세베 신권을 소유한 오늘날까지 약 75년간 신권을 소유해 왔습니다.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신권을 지녀 왔습니다. 이 신권은 나에게 성스러운 것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합니다. 여러분도 신권에 관해 같은 느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느낄 어떤 일이나, 주님께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일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뵈 특권을 받기에 합당하게 복음에 따라 생활하면 언젠가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의 삶이 신권을 지닌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음과 책임에 대한 가르침과 일치되었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큰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모임을 기쁘게 여깁니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이 기쁘며 내가 오늘 밤 여기에서 틀게 되어서 또한 기쁩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신권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의 가르침대로 생활하기를 굳게 결의하면서 오늘 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소년과 성인 형제 여러분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지상에서 한 행위에 대해 보고 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인정하시고 우리가 신권을 소유하고 그들의 의무를 충실히 행하고 주님을 찾는 성인과 소년들에게 올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 이 세상 너머 위대한 곳으로 갈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될 때 이날은 우리에게 위대한 날이 될 것입니다.

내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는 이 모임을 기뻐하며 여러분과 이곳에 함께 하게 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일 대회에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남기고 여러분이 신권의 권능은 하나님의 권세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실망시키게 되는 일, 또는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 신권에 순종함으로써 임하게 되는 축복에 대한 여러분

의 권리를 감소시키게 되는 일은 어떤 일이든 결코 해서는 안됩니다. 이 축복과 간증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대회 방문자



성숙의 의미



데릭 에이 커스버트 장로
칠십인 제일 정교회

“성숙이란 우리가 지녀야 할 어린 아이다운 자질은 그대로 지니거나 되찾고, 어린이가 지니지 아니한 다른 자질들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기브론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왕상 3:5) 솔로몬 왕은 대답하기 전에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권력과 권세였을까요? 혹은 부유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명성과 영광이었을까요?

솔로몬의 대답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왕상 3:7, 9)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왕상 4:29)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은 성숙의 표시입니다. 이런 자질들을 습득한 솔로몬은 더 이

상 “작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는 과정이 지혜를 습득하는 것만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18:3) 성숙이란 우리가 지녀야 할 어린 아이다운 자질은 그대로 지니거나 되찾고, 어린이가 지니지 아니한 다른 자질들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성숙의 요소 열 가지를 여러분에게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중 다섯 가지는 어린 아이다운 자질이고 나머지 다섯 가지는 후에 발전시켜야 할 자질들입니다.

첫째, 결백. 갓난 아이나 작은 어린 아이의 결백을 부정할 자가 있겠습니까? 구세주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마 19:14)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말일의 계시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밝히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영은 태초에 무죄하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락에서 구속하여 주셨으므로 인간은 또 다시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게 되었느니라.”(교성 93:38) 그렇습니다. 기만과 불화가 판치는 오늘날 우리들 각자에게 주는 목표는 결백하게 죄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둘째, 겸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마 18:4) 어린 아이의 겸손한 기도가 간증을 듣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나는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했던 한 소년을 기억합니다. 그는 우리가 시미질리의 한 칸짜리 아프리카식 가정에서 만났을 때, 남아프리카의 코우서어로 그의 간증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인간들이 의에서 크게 멀어지고 이기적이며 오만과 헛된 야망을 충족시키려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라는 목표를 받았었습니다. 이것은

베냐민 왕의 말에 의하면 “어린 아이같이 되어 유순하고 온유 겸손하며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여, 주께서 인간에게 합당하다 여겨어 내리시는 모든 것에, 어린 아이가 그 부모에게 하듯 기꺼이 순종”(모사이사서 3:19)하는 것입니다.

세제 도처에서 각각 다른 민족과 문화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낮추어 침례를 받기 위해 전통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영감적인 일입니까! 나는 짐바브웨의 선교사가 된 한 훌륭한 젊은이와 접친한 일을 기억합니다. 피터 케이야 장로는 소아마비 때문에 영원히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지만 봉사의 부름에 기쁘게 순종하였습니다.

셋째, 단순성. 어린 아이는 복잡하지 않으며 우회하지 않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백이 그 간제로 이와를 미혹케 한 것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후 11:3) 바울은 매우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으나 그가 개종한 후에 다음과 같이 선언한 것을 보고 나는 언제나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 가나 방문길에 유능한 외과 의사이며, 현재 지방부장인 임마누엘 키시 박사가 지방부 대회에서 복음의 단순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듣고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성을 지니도록 노력해야 하며,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간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때야 그들이 좁고 곧은 길에서 그들의 주의를 돌리게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매튜 카울리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인생이란 아름답게 단순해야 합니

다. 그래야 인생이 단순하게 아름다워질 것입니다.”(“사는 방법을 배워라”, 브리검 영 대학에서 행한 연설, 1953년 6월 19일)

넷째, 신앙. 우리 집의 한 아이가 권고와, 건강과 위로의 축복을 간구함으로써 신앙을 보여 줄 때, 신앙은 언제나 내 아내와 나에게 행복의 근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집 한 아이가 심한 귀병을 앓아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내 마음에 그런 느낌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축복을 주고 난 후, 그 아이는 진정되었고 잠이 들었으며 훨씬 통증이 없어졌던 것을 나는 기억합니다. 주님이 온전한 복음을 회복하셨을 때,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여러 방법으로 가족들을 축복할 수도 있도록 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린 아이가 “불가능한 꿈을 꾸고” “달을 수 없는 별에 도달하도록” 신앙을 갖게 하라고 사랑하는 킴벌 대관장은 우리에게 목표를 주었습니다. 그분의 천능한 신앙은 많은 산들을 옮겼고, 그분의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은 많은 기적을 낳았습니다.

다섯번째의 어린 아이 같은 자질은 사랑, 곧 무한히 주어지는 의식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위를 쳐다보고 “아빠, 나는 다짜를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어린 아이의 얼굴에 어느 아버지가 저항감을 느끼겠습니까? 베게 위에서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라고 썩어진 쪽지를 보고 마음속으로 기쁨을 느끼지 않을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많은 나라에서 어린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 복음 13:34)는 구세주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외치는 것을 듣는 것은 나의 특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백과 겸손, 단순, 신앙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깊어 지시고 귀한 생명을 버리시므로써,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시므로써, 우리를 위한 큰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

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요한일서 4:16)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회개를 전과하기 위하여 우리 선교사들은 돌씩 짝을 지어 전세계에 나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다섯 가지 자질을 모두 지닌 사람은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회개와 변화를 통해 우리는 누구나 그런 자질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생활에서 필수적인 변화를 갖게 되면, 주 안에서 성숙을 이룩하기 위해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자질에 또 다섯 가지의 자질을 더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우리는 솔로몬이 의로운 왕이 되기 위해 소망하였던 지혜를 습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의 물질 세계에 의해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참된 가치와 보다 중요한 것을 깨달음으로써 오게 됩니다. 그것은 분별력과 이해하는 마음 위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혜는 영적인 것입니다. 예언자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인 사람들은 누구나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구할 것이 아니요 다만 지혜를 구하여야 하느니라.”(교성 6:7)고 충고하였습니다. 이 연차 대회에서 영감을 받아 말씀하신 분들에게서 지혜의 보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선언된 진리를 연구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식 그 자체는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또한 지혜를 습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혜는 성숙의 표시입니다. 지혜는 일반적으로 나이나 경험과 관계가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는 스코틀랜드에서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동안에 주님이 선교사들의 이해력을 밝히시어 그들이 나이보다 훨씬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채 안된 지금, 여섯 사람은 감독의 부름을 받았고, 둘은 영국에서 스

테이크 부장단이 되었으며, 그들은 모두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일곱번째 자질은 지도력입니다. 여기에는 교회내에서의 지도력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명예로운 지도력이 포함됩니다. 어린 아이는 부모에게서 말이나 행동에 의한 지도력을 기대합니다. 주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 6:6-7)

무엇보다도 부모에게는 자녀를 의로움으로 인도하고 가르칠 만한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며 국가의 기초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보살피라는 성스러운 위탁을 받고 있음을 깨달으면 마음이 진지해집니다. 우리 아들딸들은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가르치고 인도하기를 기대합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원리에 따라 살며,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게 대한 기대를 만족시켜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숙의 여덟번째 요소인 책임에 대하여 말할 차례입니다. 어린 아이는 여덟 살이 될 때까지는 스스로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대부분의 국가 법률이 이를 동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진다고 해서 반듯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숙이란 우리가 책임을 지야 함을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고 우리를 다스릴 권능을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주님께 보고하기 위해 준비를 갖추는 것을 뜻합니다.

구세주는 심역을 베푸시는 동안, 우리가

하는 말에 관해서도 이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마 12:36) 악마는 계속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를 의로운 생활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행동에 대한 보고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계속 강해져야 하며 우리의 안내자를 놓치거나 주님이 주신 원리들을 더럽혀서는 안됩니다.

아홉째, 우리는 신뢰를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어린 아이였을 때는 금방 울었다 웃었다 합니다. 또한 쉽게 친구를 바꾸며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세상을 보는 눈도 바뀝니다. 우리는 성숙해짐에 따라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엢 4:14)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릇된 길로 인도되지 않도록 그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며 보호하며 지켜 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닌 많은 교리와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가며 끝까지 참을전대” (나이 31:20)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견실하며 영적인 인내에 있어서 성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품성들의 모범을 보여 주시는 사랑하는 킴벌 대관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나에게 뜻있는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나는 영적인 성숙의 추구에 있어서 대부분의 우리들에게도 그분이 의미심장한 도움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열번째 자질은 특별히 극기에 관한 것입니다. 니파이인 예언자 엘마는 “격정을 다스려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주의하라.” (엢마서 38:12)고 권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와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사탄이 그를 유혹할 때도 그는 굴복하지 않았고, 조롱을 당하고 욕설을 들어도 그는 굽히지 않

았습니다. 그는 죽음이 임박하였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성숙해졌습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결백하고 겸손하며 단순하며 온전한 신앙과 사랑으로 차고 넘치기를 빕니다. 또한 우선 자신을 극복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지혜롭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 앞에서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완전히 성숙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분은 살아 계시는 그리스도이시며, 이 교회는 그분의 살아 있는 교회입니다. 그분은 살아 계시는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을 전해 드립니다. 아멘. *



백이온 지 몸니 부대관장.

감사와 보은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또 너희가 어떠한 축복을 받을지라도 영으로 이를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느니라.”(교성 46 : 32)

형 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직접 만나 볼 수 없는 것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내 앞에 있는 것같이 느껴집니

다. 눈이 먼 장님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잠시 동안 감사와 보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의 미덕은 널리 칭찬을 받으며, 배은 망덕의 죄는 그만큼 널리 비난을 받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나무 아래에서 도토리를 먹으면서도 그 도토리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쳐다보지 않는 돼지와 같다.”(티모시 맥스터, 더 뉴 덕셔너리 어브 소트, 가든 시티, 뉴욕, 스탠다드 출판사, 1961년, 308 페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침을 받은 열 명의 문둥병자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드리자 배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열 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다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누가복음 17:11-18)

그리스도는 최후의 만찬에서 감사드리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마가복음 14:22-23)

고대 경전과 현대 경전에는 모두 주님께 기쁘고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성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작가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 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시편 100:3-4)

물몬경의 모사이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배나민 왕은 다음과 같이 그의 백성들에게 권고했습니다.

“하늘 왕께 감사드립니다 어떻게겠느냐?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비록 너희가 전심 전력을 다하여 누리고 서로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비록 너희가 태초에 너희를 창조하시고 날마다 너희에게 호흡을 주시어 보존하시며 너희 뜻대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순간 순간 너희를 받아 주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전심 전력을 다하여 섬긴

다 할지라도 너희는 무익한 종에 불과한 것이니라.”(모사이야서 2:19-21)

수년 전에 조셉 에프 스미스 대판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지상의 주민들이 짓고 있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 그의 통치권과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는 배은 망덕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은사와 위대한 예지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큰 원리를 전개시켜 나가는 도구가 됩니다. 그와 세상 사람들은 그의 뛰어난 재주와 지혜를 그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오로지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정신적인 능력에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은 무시한 채 오직 자신에게 영예를 돌립니다. 이런 현상은 거의 모든 세상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과학, 예술, 기계 그리고 모든 물질적인 면에서 눈부시게 진보한 현대 문명 사회는 ‘우리가 이 일을 해냈다.’고 말합니다. 개인은 ‘내가 했다.’고 말하며 하나님께 명예와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지상의 주인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만사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진노하신다고 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한 계시를 읽어 드립니다.”(복음 교리, 242페이지)

[물너 부대판장은 여기까지 읽으시고 나서 다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직접 읽을 수는 없지만 훌륭한 말씀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것을 인쇄하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계시하신 것으로부터 우리의 은사와 업적을 그의 공으로 인정해야 하며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기회와 어떤 방법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다는 희망과 남은 여생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축복을 전해 드립니다.

[다음은 그가 준비하신 말씀의 나머지 부분이다.]

훌륭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고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정규적으로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뜻을 확실히 보여 주는 예로 아브라함 링컨이 1863년에 쓴 다음 말씀을 상고해 봅시다.

“우리는 하늘에서 최고의 것을 하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평화와 번영을 누려 왔습니다. 부와 힘과 숫자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큰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평화롭게 보호해 주시고 증식시키며 부유하게 하며 강하게 해주신 자비로운 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잘못 생각하여 이 모든 축복은 우리들 자신의 우수한 지혜와 뛰어난 덕성의 소산이라는 망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성공에 도취된 우리는 너무 자만하게 되어 구원하고 보호해 주시는 은총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았읍니다.

“그러므로 성난 절대자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죄를 고백하며, 자비와 용서를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존 웨슬리 힐, *아브라함 링컨, 하나님의 사람*, 제4판, 뉴욕: 지 피 푸트남스 선, 391페이지)

리버티 감옥에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는 동안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많은 편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주목하여 봅시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어제 저녁 몇 통의 편지를 받고 그 내용에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아무 소식도 접해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 편지들을 읽자 마치 신선한 공기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는 것처럼 그 편지들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교회 정사*, 3: 293)

물론 여러분이나 나는 이런 이야기에 감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이 보다 열렬

한 감사와 더 큰 보은으로 발전하게 되는 가장 큰 동기 촉진의 원동력은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주님의 명을 받았읍니다.

교회가 조직된 지 일년도 채 안된 1831년 3월에 주님은 커롤랜드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만사에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명하노니, 성령이 너희에게 증거하시는 바를 그대로 온전히 거룩한 마음으로 행하며 내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라. 나는 너희가 구원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기도와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기 바라노라. 그리하여 악령이나 악마의 교리나 인간이 만든 계명으로 말미암아 괴임을 받지 않게 하라. 어떤 가르침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도 있고 악마로부터 나온 것도 있는 연고니라……

“또 너희가 어떠한 축복을 받으시라도 영으로 이를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느니라.” (교정 46: 7, 32)

다섯 달 후에 그는 이 명령에 좇아 시온-미주우리주 재순군-의 교회로 갔읍니다. 주님께서서 다른 강력한 계명들과 함께 감사드리라는 계명을 어떻게 주셨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섬기라.

“너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며,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

“범사에 주 네 하나님께 감사하라.” (교정 59: 5-7)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라는 것은 예의일 뿐만 아니라 다른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속하는 계명임을 이 성경 구절을 보건대 분명합니다.

현대의 계시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자는 영

화롭게 될 것이요, 이 세상의 것이 저에게 더 하여지리라 참으로 백배 이상 더해지리라.” (교성 78:19)

“진실로 나는 나의 친구된 너희에게 이르노니”—이 말씀, 즉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그의 친구라고 부른 것을 생각해 보면 나는 언제나 감동을 받습니다. —“진실로 나는 나의 친구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려워 말라. 너희 마음에 위로를 얻으라. 참으로 항상 기뻐하라. 법사에 감사하라.”(교성 98:1)

“만일 네가 즐거우면 노래와 음악과 춤과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주를 찬양하라.”(교성 136:28)

내가 방금 읽은 이 마지막 계명은 성도들이 평원을 횡단하던 겨울철에 예언자 브리잡 영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은 굉장한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찬양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내가 읽은 이 계명들은 우리에게 감사의 영을 지녀야 한다는 엄숙한 책임을 줍니다. 우리는 모든 축복을 감사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큰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님께 우리는 영원히 감사드려야 할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를 얻기 위해 견디신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고 감사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피사함을 받도록 그분이 갯세마니에서 겪으신 고통을 이해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보다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무명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괴로움을 당하였으므로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고까지 하였느니라.” (교성 19:18)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견디셨습니다. 아마 우리를 중에서는 그와 같은 고통을 견디어 낼 수 있

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함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이해한 사람이면 누구나 그분을 사랑해야 하며 실제적인 방법으로 그분께 감사와 보은을 함으로써 그 사랑을 표시해야 합니다.

리차드 엘 이반스 장로는 언젠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무한한 사랑에 깊이 감사해야 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일조와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나 변함없이 열성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고 하늘과 땅을 조직하시고 운행케 하시는 창조주의 사랑과 섭리와 목적을 기억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이와 같은 일들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생명과 그것을 지탱해 주는 힘과 인생을 의미 있게 해주는 사랑스러운 것들과 신앙과 목적과 영속성에 대하여 언제나 그리고 영원토록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십시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더욱더 많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땅의 조직과 운행에 관한 감사”, 임프르브먼트 이라, 1967년 2월호, 74페이지; 케이 에스 엘 “스포큰 워드” 방송, 1967년 11월 19일)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분께 감사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나의 간증을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신 일을 할 때 우리는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면전에 나아가 그를 만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경전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새로 출판된 말일성도 경전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충실한 기독교인의 후세대들이 배출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실제로 알려지지 않은 채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

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약 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에스겔의 다음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위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위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에스겔 37 : 15-17)

물론 이 막대기는 기록 곧 책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나무판 또는 막대기에 만 두 루마리에 기록을 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유다의 기록과 에브라임의 기록은 우리의 손에서 하나가 되었읍니다. 예언의 성취와 관련된 두 사건은 인쇄소가 중심이 되었읍니다.

이 최초의 사건은 뉴욕주 팔마이라의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한 건물의 이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829년 6월 요셉 스미스와 마틴 해리스는 새로운 경전의 발간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인쇄소 주인인 에그버트 비 그랜던씨를 방문했습니다. 그랜던씨는 그 당시 23세였으며 요셉 스미스보다 3개월 어렸습니다. 단지 3개월 앞서 그는 책을 인쇄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단지 한 대의 수동 주물 인쇄기를 가진 그 인쇄소로서는 매우 벅찬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책의 인쇄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그랜던씨는 종교인이었지만 그 일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틴 해리스의 농장을 저당하겠다는 계약을 하고 1829년 8월에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업이 시작되자마자 오바디아 톱베리 이세가 그 책의 몇 페이지를 훑쳐서 그의 중간지 *더 리플렉터*에 조소거리로 실었습니다.

1830년 3월, 물론경이 출판되자 판매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팔리지 않아 마틴 해리스는 그의 농장을 잃게 되는 비참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경전 역사의 신기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오늘날의 그분의 제승자들은 물론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약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오바디아 톱베리와 그의 후계자들은 다른 영에 의해 사로잡혔으므로 오늘날 동일한 방법으로 그것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148년이 지난 1977년 6월에 인쇄소에서 이 두 막대기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단계를 취해졌습니다.

경전 발행에 오랜 경험이 있는 제임스 울터머와 최근 브리검 영 대학교 종교학과 학장인 엘리스 티 라스무센이 영국의 캠브리지에 있는 캠브리지 대학 인쇄소를 방문했습니다. 성경은 에그버트 그랜던이 팔마이라에서 인쇄소를 열기 전 293년 동안 이 유명한 인쇄소에서 인쇄되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출판 책임자인 로저 윌킨씨와 함께 가장 진귀한 흙성서판의 출간에 관해 의논했습니다. 그 출판업자는 150년 전에 에그버트 그랜던이 했던 것처럼 이 제외에 관해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캠브리지 인쇄소는 1611년 초판 발행 이래로 흙성서판을 계속 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와 같은 부탁을 받아 본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 원본은 과거와 똑같이 아무런 수정도 없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주, 전후 참조, 장, 소개, 색인 등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66권의 장과 절 수만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이 판은 경전의 다른 세 권의 책, 곧 물론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와 전후 참조되어 있었습니다. 그 업자들은 그것에 관해 거의 들 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 외에도 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혁신적인 자주 제도가 사용되었습니다. 자주의 번호가 장마다 시작되는 대신 각 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절도 많을 뿐만 아니라 각 절마다 많은 자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컴퓨터가 있었다면 큰 도움이 되었겠지만 당시에는 인간의 능력 이외의 것은 없었습니다. 성경과 다른 경전과의 전후 참조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것과 다른 세 가지 경전과 전후 참조하기 위해서는 수만 개의 자주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수만 개의 자료의 결합이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은 너무 방대해서 생각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정확히 성경 그 자체와의 조화와 일관성은 제쳐 두고라도 기술적인 문제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험에는 편집장이며 가장 놀라운 분인 데릭 보우엔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때 그는 커머저리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자신의 놀라운 보상 능력을 성경의 편집 지식 및 인쇄에 쏟았습니다. 아마 그는 세상에서 그와 같은 인쇄 작업을 지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문제들은 단지 인쇄와 관련된 것입니다. 수만 개의 자주를 실제

로 편집하고 정리하는 데는 수백 명의 인력이 요구됩니다. 이 일은 이미 수년 동안 진행되어 왔으며, 컴퓨터없이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시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성구 사진, 주제별 색인, 수백 개의 주제 목록 성경 사진, 지도, 새로운 체제 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장의 제목이 정해질 것이며 모든 것은 친구악의 성스러운 메시지와 일치됩니다.

몇 년 동안 그 일을 행한 후에 우리는 보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제를 알파벳 순서에 따라 열거하는 지루하고 힘든 작업을 진행시켰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Heaven(천국)과 Hell(지옥)과 Love(사랑)와 Lust(욕욕) 항목을 마치고 이제 Repentance(회개) 항목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제 색인을 위한 750개의 제목은 그것보다 두 배나 더 긴 목록에서 힘들어서 뽑아 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실제적인 면을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곧 그 책은 일상 사용할 수 있는 크기의 책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을 통해 오는 영감의 영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종사했던 자들은 종종 이 일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에 대해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겸허한 영적 경험이 있었습니다.

7년 이상의 조용하고 집중적인 일 끝에 흥정성서의 말인성도 판이 인쇄에 들어갔고 물론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에 대한 작업도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년이 지나 초판에 들어 있던 출판업자의 오류를 교정할 수 있게 해주는 원고가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 일은 공감하는 학생과 헌신적인 교회 회원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병철하고 편견이 없는 눈을 가진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했을 것이며, 또 적과 비방자의 성난 눈이 자세히 살펴봐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면에서 정확함에 틀림없습니다.

결국 2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 그 책이 발간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진 정확한 책이었습니다.

3개월 후에, 성경 편집의 거장인 메릭 보우엔은 영국에서 작고했습니다.

또한 최근 총관리 역원들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물론경"이라는 표제에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약"(가칭)이라는 부제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유다의 막대기-신구약 성서-와 에브라임의 막대기-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약인 물론경-은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세히 살펴볼 때 다른 것에 이끌리게 되고 여러분이 한 권을 배우면 다른 것에 의해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식으로 그들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것들은 참으로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이제 성취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이 경전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충실한 기독교인의 후세대들이 배출될 것입니다.

구세대는 경전없이도 살았지만 또 한 세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세계사에 보면, 계시는 어떤 세대에게는 열리지 않았으나 그들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손 안에 요셉과 유다의 막대기가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조상들이 성취할 수 있는 이상으로 복음을 학문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간증을 갖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를 널리 알리고 옹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백 명의 헌신적인 일꾼들의 영감적인 도움없이 이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허브리어, 헬리어, 라틴어, 신구약 학자도 있습니다. 더우기 그들은 그들 생활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사는 합당한 남자와 여자들인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안다면 그들이 하는 일은 지상에서 그들의 가장 위대한 공헌이 될 것입니다.

세대가 흘러감에 따라 이것은 역사의 관점

에서 볼 때,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판장의 재임 기간에 이룩된 가장 큰 업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전 사업의 바로 직접적인 결과인 두 개의 새로운 계시가 교리와 성약에 첨가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은 백년 이상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책들이 닫혀지기 전에 주님께서 이 시대, 곧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그의 성도들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과 한데 묶어질 바로 그 시대에 신권에 관한 영광스러운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영어로 된 것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어에 관해서는 이미 작업이 시작되었고 다른 언어도 앞으로 몇 년내에 착수할 것입니다.

이 출판 계획과 동시에 또 하나의 위대한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전 교과 과정은 개편되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모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와 경전을 중심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진정한 무리의 자발적인 봉사자들—그들 대부분은 저술과 교과 과정과 교육과 그 외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임—은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수년간 일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경전에 정착시키려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그것에 묶인 사슬을 끊어 내는 일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철학과 일치시키기 위해 경전을 해석하고 변경시킴으로써 하류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우리는 동일한 물결을 헤치고 상류로 올라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갖기 위해 교리와 성약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거룩한 교훈과 계시의 상류에 이르러고 결심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세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며” (교성 1:20)

교회 안팎에는 우리가 행하는 일에 큰 관심을 보여 주는 교회의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말하는 바 권력의 구조, 사회의 자원, 조직상의 변경, 정치 및 사회 문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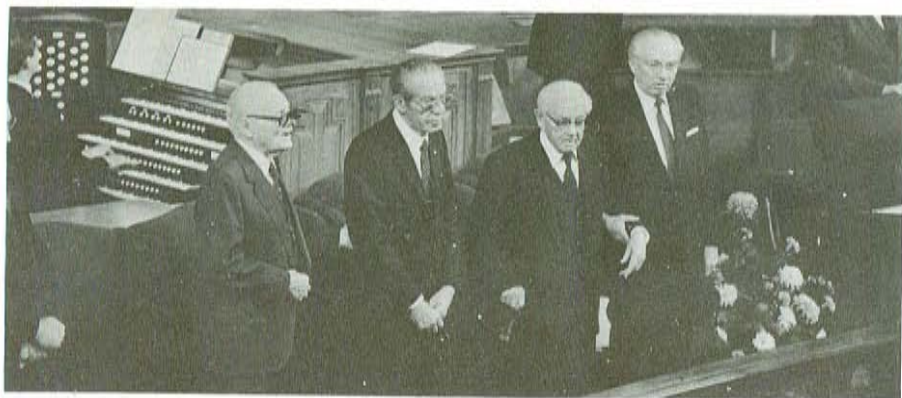
을 지켜 보고 그들이 지켜 본 데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은 자신이 관찰한 것을 적고 그것들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고로서 발표합니다. 그들의 관찰과 주장 가운데서 그들은 우리가 현세대에 행한 가장 중요한 일들에 관해 놓치게 됩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진을 잃었으며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장 적은 관심을 보이는 일과 그들이 가장 잘 모르는 것 곧 경전과 계시에 주의를 돌린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에 대해 58개의 주제별 색인과 1행간으로 찍은 18페이지에 해당되는 작은 활자로 찍은 페이지와 이 제목에 관한 수천 개의 성구의 목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개의 경전에서 나온 이와 같은 참조 성구는 세상의 역사에서 알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가르침에 관한 성구 자료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사업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신 바이며 그분에 대한 경전이며 간증임을 확고





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참조 성구를 찾아보면 여러분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과 이것이 가르치는 것과 그분의 권능에 의하여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이름 곧 하나님 아버지시며, 메시아시며 우리의 구세주시며 구속주에게 귀결됩니다.

나는 유다의 선지자 에스겔의 예언을 인용함으로써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구약성서의 이 두 절에는 열 개의 작주가 있습니다. 이 열 개의 작주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약인 물문경으로 인도합니다. 저기에 보면 세상의 절반은 요셉의 후손인 예언자 리하이로 떠났습니다. 이 예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몸의 소산들이 기록할 것이요, 유다의 자손들이 또한 기록할 것이라. 네 몸에서 난 자들이 기록한 것과 유다의 자손들이 기록한 것이 함께 자라, 거짓 가르침을 뒤집어엎으며 논쟁을 잠잠케 하며, 네 몸에서 난 자들 가운데 평화를 이루며 말일에 저들에게 저들 조상에 관한 것과 또한 나의 언약을 알게 하리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니이 3:12)

하나의 작주는 두 개를 연결시키는 보잘것 없는 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열 개의 작주 가운데 다섯 개는 611개의 다른 참조 성구가 이 주제에 관한 지식을 넓혀 주며 티끌에서 나는 음성처럼 말해 주는 주제별 색인의 제목

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실은 우리의 손 안에서 유다와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약 안에서 하나로 묶는 꾸러미로 묶어질 것입니다.

거름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이 성구는 세상의 역사에서 수집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가르침에 관한 성구 자료를 가장 광범위하게 모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하여 그분에 대해 자주 말하는 것을 상가하는 잘못을 범하지 마십시오.

유다에 속한 우리의 형제들은 고대에 그분을 알았으며 에브라임에 속한 형제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그의 성도들과 그분의 예언자들과 사도들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분은 살아 계시며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에 대해 사도로서 증거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하나님과의 언약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십이사도 청원회

“주님의 계명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경전에 본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경전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이 순종과 의로운 생활을 격려하기 위해 주신 많은 조건부적인 약속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성약의 본보기로 가득 차 있으며 이것은 예언자와 백성들의 언약 대신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로서 구약전서의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은 노아와 성약을 맺으셨으며 무지개는 모든 인류와 맺은 그 영원한 성약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9:13 참조) 아브라함 및 그의 자손들과 맺은 성약은 일종의 상징인 할례 의식에 의해 인봉되었습니다. (창 17:10-11 참조) 시내산에서 모든 이스라엘과 맺은 중요한 성약의 표징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출 31:12-17 참조)

여호수아의 생애에 나타난 여러 가지 경험은 서약을 지키고 주님이 주신 계명과 지시를 따르겠다는 약속에 대해 주님이 강조하신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지휘하고 통솔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기

억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은 아직 고함이 없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책임지고 있고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사십 년 이상 지도자를 잃고 방황한 그 많은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수 1:5, 6)

그리고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계명을 주시듯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수 1:7)

그리고 주님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이셨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에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수 1:8)

마지막으로 주님은 하늘의 축복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과과의 관계를 여호수아에게 상기시키고 위로하기 위해, 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반복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수 1:9)

여호수아는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어디에서나 주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그 도움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주님께서 그를 그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심을 알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순종이 성공을 가져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는 정확히 몰랐지만 여호수아는 그 결과에 대해 확신이 있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쪽으로 옮겨가 여리고 성 부근에서 횡단할 준비를 하며 사흘 동안 천막을 쳤다고 써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의 백성들에게 재미 있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 겹께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수 3:5)

그는 승리는 그들이 기쁘게 주님의 뜻을 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수 3:7)

여호수아는 주님의 기적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을 때처럼 계속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적은 백성을 앞에서 언약케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자 이루어져서 물이 말랐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 (수 3:17)였습니다.

잠시 후, 여호수아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 성을 멸망시키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그 성의 견고한 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인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튼튼한 장벽이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방법은 알지 못하였으나 결과에 대해 확신을 가진 여호수아는 주의 사자가 전해 준 지시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는 온전한 순종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그가 지시받은 대로 정확하게 행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지시가 이상하게 여겨졌지만 결과를 믿는 신앙은 그로 하여금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주님의 계명과 지시를 따르겠다고 약속한 다른 많은 예언자들의 인도를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일련의 많은 기적 중 또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여리고에 다달았을 때 주님의 지시를 정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경전에 의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수 6:20)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과의 전쟁에서 휴식을 취할 때, 이제 아주 늙어버린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불러 모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백사에서 그는 그들이 승리한 것은 주님이 그들 편에서 싸워 주신 덕분임을 상기시키고, 그들이 만일 이제라도 주님을 섬기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가나안에서 인도하였고 “그 씨를 번성케”(수 24:3) 하였는가를 회고하였습니다. 그는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주님이 어떻게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였고,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가를 말하고,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된 것이 아니며”(수 24:12)라는 의미있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모든 전투와 전쟁에서 우세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의해서 승리하게 된 것이지 칼이나 활에 의해서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수 24:14)

군사적으로 영적으로 훌륭한 이 지도자는 약속을 강조하였으며 자신은 가족을 위해 언약을 했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수 24:15)

여기에 하나님께 바치는 인간으로서, 주님의 소명에 따르는 예언자로서, 그의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 여호수아의 온전한 언약의 활

를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에 수없이 그의 순종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결정하든 상관없이 그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의 결정은 그들이 어떻게 결정하든 그것과는 무관하며, 그들의 행동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주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그의 언약은 그들이나 혹은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에 의해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행동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매우 강하였으며 주님의 계명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순종하기로 언약하였습니다.

주님은 그의 권고에 순종하겠다는 확고부동한 결정을 무엇보다도 더욱 사랑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구약전서에 나오는 여러 위대한 예언자들의 경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엄격한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목자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지시를 받은 후 주저함이나 흔들림이 없이 지시받은 대로 행했을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경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 22 : 2) 그 다음 절은 간단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창 22 : 3)

수년 후에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 아브라함의 종들과 함께 떠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종이 주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음을 확실히 알고 간단하게 “가겠나이다”(창 24 : 58)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한 세대가 지난 후,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라는 지시를 받자, 그것은 그가 지금

까지 수년 동안 일한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나, 그는 라헬과 레아를 양떼들이 낳고 있는 들판으로 불러,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설명했습니다. 라헬의 대답은 간단하고 직선적이었으며 그녀의 언약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순행하라”(창 31 : 16)

그리고 주님의 계명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경전에 본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아브라함, 리브가, 라헬처럼 옹하기를 택한다면 우리의 대답은 간단히 주님이 명하신 일을 하겠나이다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요일 아침, 생활의 복잡한 일들과 유혹이 어느 정도 없어도 여유를 갖고 영원한 관점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생애에서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일까를 보다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침의 햇빛 속에서 밤의 어둠이 찾아오고 유혹의 폭풍이 닥칠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행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강건한 힘을 지니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



영속적인 가족 관계의 원리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세 가지 원리는 의롭게 단합하고,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며, 자녀들이 복음 의식을 받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결 혼 생활은 문명의 굳건한 기초이며 중
석입니다. 가정을 소홀히 하고서는 어
떠한 국가도 일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결혼과 가정 생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입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구원은 가정 일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그들의 가족을 양육하
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가장 성스
러운 책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있다
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성
적인 혼란, 동성애, 마약성 약물 남용, 알코
올 중독, 문화 예술의 파괴, 외설 서적, 폭력
등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는 바로 태초에 하나님
에 의해 제정된 원리와 의식을 무시하는 가정
의 타락을 나타내는 징후입니다.

부모들이 행복과 성공을 위해 주님께서 주
신 원리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온 세상의 가
정들이 커다란 압박과 정신적인 시련을 겪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허무한 “자아 완
성”을 추구하기 위해 가정에서의 그들의 책

임을 회피하려는 유혹을 받아 왔습니다. 어
떤 부모들은 자녀들의 복리를 위하여 개인적
인 만족을 마지 못해 뒤로 미루면서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부모의 책임을 포기했습니
다.

인문주의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 가정을 재
구성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텔레비전과 영화
에서 묘사되는 가정의 의미와 사랑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명과 모순되는 철학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이 제도상 재구성되고 있다고 걱정하
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 쌍이 결혼하면 거의 한 쌍은 이혼으로
끝납니다.

전통적인 가정 즉 남편과 직장을 갖지 않은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미국 가정의 거
우 14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인구
보고서, 1980년)

현재 노동 인구의 거의 50퍼센트는 여성인
니다.

이 여성 근로자의 약 56퍼센트는 미취학 아
동의 어머니이며 그들의 거의 60퍼센트가 집
에 10대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자체만 해도 8~10,000,000명의 6살
이하의 아이들이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양
육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미국에서 모든 자녀의 거의 1/5이 편모 또
는 편부 슬하의 가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회도 그들의 어린 자녀를 돌보고
그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교
육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는 어머니가 없다면
오래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해롭지 않게 생각되는 말들이 죄를 짓는 것
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변화있는 생활 방식”이란 용어는 간음과 동
성애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선
택의 자유”라는 말은 유산을 정당화시키며,
“의미있는 관계”나 “자기 달성”은 결혼 외의
육체적인 관계를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많은 젊은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더 불안하게 되고, 이혼과 우울증과 자살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가정은 가족들에게 영원한 가치 기준을 가르쳐 주는 가장 효과적인 곳입니다. 가정 생활이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와 의식에 기초를 둔 곳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은 그리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내가 말씀드리려는 메시지는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과 안정과 행복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원리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를 지속시키면서 행복하게 하는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 남편과 아내는 그들의 목표, 욕망 그리고 행위에 있어서 의로운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결혼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성스러운 성약으로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결혼한 부부는 서로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성약을 명예롭게 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결혼 서약에 충실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사랑, 믿음 그리고 평안을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간음을 분명하게 비난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들은 사랑과 충실함은 쌍방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자녀들의 정서적인 성장을 기할 수 있는 교육적인 환경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가정 생활은 자녀들이 재미있는 추억과 연상으로 돌아볼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 성약에 적용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이러한 단순한 충고를 들으십시오.

첫째 :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라. 탐욕을 금하라. 복음이 요구하고 있는 것같이 서로 물건을 나누어 주기를 배우라.…… 부정을 금하라. 서로의 결점 찾기를 그치라." (고리

와 성약 88 : 123, 124)

둘째 : "온 마음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여 결합하며 다른 아무 여자라도 결합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고리와 성약 42 : 22, 24)

셋째 : "서로 다루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악마에게 속한 자니 악마가 분쟁의 아비가 됨이라." (니파이삼서 11 : 29)

또한 더 많은 경건상의 충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억제와 자제는 결혼 관계에 있어서 주된 원리에 틀림이 없습니다. 부부는 그들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도 자제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가족 기도와 개인 기도는 여러분의 유대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사상, 열망 그리고 생각은 하나로 통일되어서 같은 목적과 목표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논쟁과 문제가 있을 때 인도와 도움을 구하기 위해 주님과 예언자들의 가르침과 경건에 의지하십시오.

영적인 성장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얻게 됩니다. 개인주의에 대한 오늘날의 무절제한 강조는 이 기심과 고됨을 조래합니다. 두 인격체가 "한 몸"이 되는 것은 아직도 주님의 표준입니다. (창세기 2 : 24 참조)

행복한 결혼의 비결은 하나님과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표는 자아의 발전과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 봉사하면 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첫번째 원리는 의로운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둘째 :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의 사랑과 충고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기르는 것은 오늘날의 세상에서 쉬운 목표는 아니지만 이룰 수 있으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부모의 사랑을 보이는 것이 열쇠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은 그들이 사랑받고 있으며 필요하며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게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끔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부모들이 채워 주어야 할 부분이며 주로 어머니가 그것을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들의 주체성에 대한 영원한 의미로서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의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삶이 의미와 목적을 갖기 위해 어디서 왔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해서 인도를 구하며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축복에 대해 감사를 나타내는 것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침대 곁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도와 준 기억이 납니다.

자녀들이 옳고 그릇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배울 수 있으며 배워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흥미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이 갖고 있는 것을 탐내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집에서 일하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은 그러는 중에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정직과 자존심을 발전시킨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일의 즐거움 그리고 일을 잘하는 즐거움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들의 여가 시간은 건설적으로 건전하고 능동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져야 합니다. 텔레비전을 너무 오랫동안 보는 것은 해로울 수 있으며 이러한 매개체에 있는 외설스러운 것은 복인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성장기의 자녀들은 일주일에 25시간 이상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회는 가정을 도와 건전한 오락을 장려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회가 용납하는 것이 곧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내일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가족들은 일하고 오락을 즐기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가정의 밤은 오락, 일 계획, 찬극, 피아노 플레이에 모여 노래 부르기, 게임, 특별 다과, 그리고 가족 기도를 위한 시간으로 일주일에 한 번 계획되어야 합니다.

가족 경전 공부는 매주 안식일에 집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매일의 건전한 생활 역시 권장해야 할 일입니다. 경전 읽기, 찬송가 부르기, 가족 기도는 우리가 매일 습관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셋째: 부모들은 자녀들이 복음에 의식을 받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영적인 것입니다. 부모들은 그들의 아들과 딸들이 침례, 확인, 신권 의식 그리고 신전 결혼과 같은 복음의 의식을 받도록 준비시켜야만 합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에게 안식일을 존중하고 명예롭게 하도록 가르쳐야 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영생에 대한 목표를 갖고, 무엇보다도 그 목표를 성실하게 추구해 나가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영생은 단지 율법과 복음의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얻게 될 것입니다.

부모 자신이 구원의 의식을 좇고 신전 결혼의 모범을 보여 주는 것은 그들 자신의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 모범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가정을 이루는 부모들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같이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교리와 성약 88:119)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낮은 가정이라도 사랑,

행복, 평안 그리고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의로움과 진리와 더불어 성장하여 주님을 섬기고자 할 것입니다.

교회 대관장 중의 한 분은 부모들에게 이런 권고를 하셨습니다.

“가정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하루 두 번씩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식사를 들 때마다 축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10분 정도씩 읽도록 하십시오. …… 사랑, 화평, 주님의 영, 친절, 자선, 희생 등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하십시오. 거친 말을 삼가고 주님의 영이 여러분이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영과 권능으로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만일 가정 환경과 모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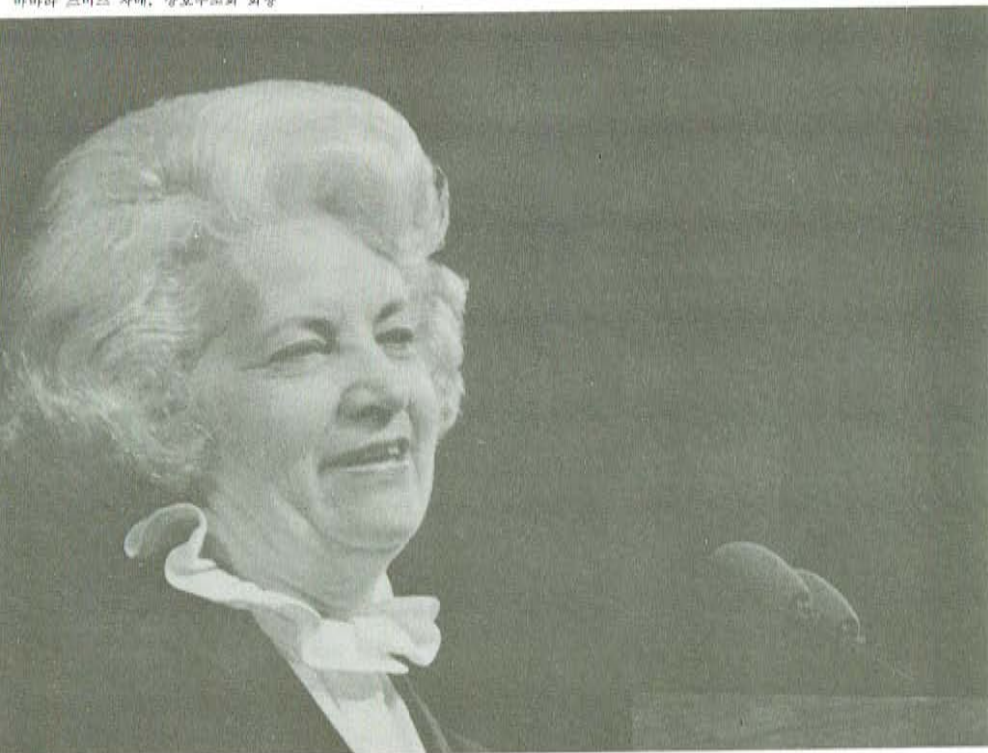
바비라 스미스 자매, 장로부조의 회장

과 훈련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된다면 백명의 자녀 중 한 명도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조셉 에프 스미스, 복음 교리, 272페이지)

나는 이러한 가르침과 의식을 따름으로써 가정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피할 수 있고 예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가정 생활의 기쁨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나는 가끔 훌륭한 가정과 분리된 참된 행복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인생의 가장 달콤한 영향과 관계가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과 조화와 그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우리의 가정을 강화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



값진 진주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장로
철심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우리의 경건들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완전히 하나이며 하나의 근원에서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고대 통양에 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판기를 원하는 값진 진주를 갖고 있던 보석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진주를 적당한 곳에 놓기 위해서 가장 좋은 나무로 진주를 담을 특별한 상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나무를 찾아 가져 오게 하여 번쩍 번쩍 빛나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의 모서리에 우아한 솜씨 경첩을 달고 안에는 빨간색의 우단을 뒀습니다. 마지막으로 빨간 우단에다 향수를 뿌리고 그 자리에 이 값진 진주를 놓았습니다. 그 진주는 보석상의 상점 유리 안에 진열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부자가 그 걸을 지나가다가 보석에 마음이 끌려 보석상과 흥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석상은 곧 그 부자가 진주보다는 상자 때문에 흥정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챘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는 외부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값진 진주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집에서 다른 지방에서 온 몇몇

비회원 친구들과 악 일주일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들 중의 한 사람은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목사가 되려고 준비했다가 그런 헛된 것을 계속하기보다는 심리학자가 되기로 결심하여 그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졸업하자마자 진료소를 차렸는데 현재, 그 진료소에는 여러 명의 정신과 의사와 많은 심리학자들과 사회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한 주 교육 위원회와 주립 대학의 교문으로 있으며 여러 대학의 자격 시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우리 집에 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그에 어떻게 보여 주며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를 여기 이 훌륭한 건물로 데려왔습니다. 그날은 일요일 아침으로 그는 이 위대한 합창단의 예술적인 능력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곳 지하에 있는 방문자 센터로 가서 그곳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와 교육 위원과의 면담을 주선하려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우리도 교육 분야에 경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브리검 영 대학으로 데려가 거기서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 훌륭한 대학에서 감명받기를 바랐으며 그는 과연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슬쩍 그에게 오늘날 패커 장로가 기술한 교회의 교과 과정 계획의 기능에 관해 소개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다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과 과정 계획에 관여했던 교육 경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계획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이런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교과 과정 계획 분야에서 노벨상을 타실 것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떠나기 전날 밤에 내가 그에게 “알고 싶으신 것이 있으십니까?”라고 묻자 그는 “유족은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약성서를 펼쳤으며, 신약성서의 구절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서인 물론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경전의 엠마서와 다른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부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현대 경전으로 넘어가 교리와 성약 76편과 138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값진 진주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경전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경전들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완전히 하나이며 하나의 근원에서 온 것으로 그것은 바로 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각 시대마다 예언자들을 통하여 영감을 주고 그들이 우리를 이끌어 값진 진주를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에는 많은 훌륭한 가르침이 있는데 이 모든 가르침은 우리를 발전시키고 훌륭한 삶을 영위하게 하여 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르침을 통해 매우 중요한 핵심을 살펴보면 우리는 다음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절정의 시대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는 다른 사람들, 즉 사도와 칠십인을 부르셨고 또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그를 도울 다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후 무덤에 묻히셨고 세계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오늘날 살아 계시므로 내일도 살아 계시실 것입니다. 내가 나의 친구에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유족들을 위로하는가였습니다.

나는 형제, 자매 여러분께 나의 간증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압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압니다. 세상에는 구약성서, 신약성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물론경으로 알려진 또 다른 경전과 같이 그에 대한 많은 경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서에서 많은 것

을 얻어 우리 가슴속에 그러한 간증이 가득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세워지고 하늘의 왕국이 임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간증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여의 방문자



순수한 신앙 생활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마음이 좁고 편견을 갖고 있으며, 다투기 좋아하……는 자들은 순수한 신앙 생활을 가르칠받거나 순수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순수한 신앙 생활이란 구세주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몇 주 전 이 신진 구부러진 걸고 있을 때 낮선 어떤 숙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이 물문들이 참으로 어떤 종류의 사람일인가를 알고 싶으십니까?”

나는 “이미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 그 사람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들이 따라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누가 그렇다는 말씀입니까?”라고 말하면서 말을 맺었습니다.

방문자 센터로 계속 걸어가면서 나는 자기와는 다른 종교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불신하고 당혹케 하고 비웃고 모욕하기 위해 돈과 시간을 소비하는 그러한 자들의 행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그러한 행위는 공격받는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며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은 불화의 씨를 심고 의로운 사람들은 그들의 비난으로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한 행위가 그리스도적이라 할 수 있을지 나는 의문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파괴하고 비판하는데 시간을 보내라고 권장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우리가 칭찬할 만하고 우리의 이웃과 함께 할 가치가 있는 것을 배우고 나누도록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원한이 있고 심술궂은 자들만이 반대자와 보기 싫은 자들을 몰아 내고 알리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영국에 도착했을 때 선교부장님이 나에게 주신 헌명한 충고에 영령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애쉬튼 장로님,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아왔습니다. 만약 장로님이 계속 눈, 귀, 그리고 마음을 열어 둔다면 여기 있는 동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한 것을 찾고 장로님의 방법과 다른 것을 너그럽게 감싸 주십시오.”

영국에 더 오래 머물수록 나는 그의 충고에 더욱더 감사를 드렸습니다. 날마다 나는 이 위대한 나라와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예를 들면, 생진 처음 겪어 보는 겨울 날씨에 떨고 있는 대신에, 나는 영국 사람들이 하듯이 행동했습니다. 즉 부덜대고 불평하며 시간을 소비하는 대신에 스웨터를 하나 더 입었습니다.

로버트 웨스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결점을 찾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습니다. 재능이 없다, 자제력이 없다, 머리가 나쁘다 하는 것은 불평을 하게 만듭니다.” (리처드 엘 이반즈의 인용집, 솔트레이크시티, 유타: 퍼블리셔스 프레스, 1971년, 221 페이지)

비난, 풍자, 비방 및 거짓말이 널리 퍼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보복

하지 말며 다루지 말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랑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랑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1:19-20)

오랜 기간에 걸쳐 결점 찾기를 일삼아 온 어떤 종교 단체나 그룹 또는 개인도 결코 번영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특히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에 대하여 우리는 다물 시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1:26)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교육을 “홍분하거나 자신을 잃지 않고 거의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결코 공공연히 물문을 반대하는 자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회원들이 물문을 반대하는 자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옛 속담에 있듯이 우리는 “서로 돕고 살 수” 있겠습니까? (조안 윌러, *더 휴복 오브 썬데이즈*, 뉴욕: 다드, 미드 앤드 컴패니, 1935년, 1119페이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특권 중의 하나는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선택하는 권리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사건들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하거나, 스스로 순수한 신앙 생활의 원리들을 지침으로 사용하면서 우리의 삶을 떠맡고 이끌어 나갑니다. 순수한 신앙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며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든 그것이 우리 자신의 생활에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역사상 우리가 순수한 신앙 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때는 결코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신앙 생활은 보복하거나, 그릇된 행위나 불친절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

한 신앙 생활은 파괴되고 깨어져 버리는 곳에서 사랑하고 쌓아 올리며 모욕을 달게 받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결점을 찾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고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려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통찰력이 있는 자들은 우리 중의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완전함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제거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제거라” (마태복음 7:3-5)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어 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심판을 맡기고, 우리 자신이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때만이 뜻깊은 발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신앙 생활의 정의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공동 번역에는 순수한 신앙 생활이라고 나와 있음)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야고보서 1:27)

말씀을 짧게 하여 단지 기본적인 원리만 밝히자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생활하며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을 분석해 보고 이해와 자유의지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다움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복음이요, 너

회가 이를 알진대 교회에서 이를 행하며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너희도 이를 따라 행하라.” (니코이삼서 27:21) 행하는 것은 언제나 아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에 몇몇 친구들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새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어린 아이는 그의 부모가 우리를 접대하느라고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자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그 어린 아이는 조그만 발로 가늘한 한 빨리 페달을 밟으면서 “나를 보세요!”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이 그가 가고 있는 방향을 보지 않고 우리를 쳐다보았기 때문에 일이 생겼습니다. 그는 곧장 잔디밭에 있는 의자에 부딪혔습니다. 그를 달래주고 아픈 것을 잊게 해주기 위해 그의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 장난꾸러기 의자가 너를 다치게 했구나. 의자를 때려 주자꾸나.”

나는 그녀의 순간적인 응답이 소년의 마음을 탄 때로 물렸지만, 사고에 대해 그 아들이 자기 자신보다는 그 외에 다른 것을 비난하도록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비난할 것을 외부에서 찾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자신을 돌아보거나 책임을 떠맡지 않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가며, 우리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며,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이 비판하거나 그릇된 선전을 퍼뜨릴 때 보복하기보다는 조정자의 역할을 택해야 합니다. 또한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은 인간들 즉 약간의 악점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는 것입니다. 인간이 외면적으로 실패할 때 좌절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결점들이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선이 빛을 잃고 간증이 흔들린다고 주장하는 강한 유혹에 전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순수한 신앙 생활은 복잡하고 지적인 지식

과 기본적인 “빵과 버터”인 복음의 원리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말일성도들은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배우기를 권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과 그의 이웃의 이익을 위해 가르쳐지는 모든 것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혜, 훌륭한 판단력 그리고 영적인 지침을 이용하여 지식과 학문적인 성취를 보다 높게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하신 일을 단지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 시냇물, 꽃, 새, 그리고 동물은 즐기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식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복음의 진리를 나누고, 새로운 내용을 깨닫고 그리고 새로운 경험들을 나눕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풍부한 감정을 갖게 하며 보다 훌륭하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줍니다.

순수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사람을 억누르기보다는 향상시키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행복이란 도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명성을 해치는 자를, 순진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자를,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 독실한 척하면서 재산을 모으는 자들은 순수한 신앙 생활을 하는 기쁨을 잃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부드러운 관심을 보임으로써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표현할 기운조차 없는 환자를 위로하기 위해 요양소를 찾는 친구들을 보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고통받게 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절망적인 상태에 머물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비로운 봉사와 인내로 우리를 가르칩니다. 선교 사업이나 신진 사업이라든가 교회의 많은 지도적인 위치에서 봉사해 온 사람들은 지금도 특별한 지명을 받지 않고 매달 요양소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매달 이 귀중한 영혼을 찾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만족을 얻는지 모릅니다.”

순수한 신앙 생활이란 배우자와 이별하고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감독을 찾아갔는데 그의 와드에는 60명 이상의 미망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밝게 미소를 지으면서 “나는 그들 모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정 방문 교사의 방문 외에도 그와 그의 보좌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을 방문합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됩니다.” 그는 그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수한 신앙 생활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몸이 불편하여 집안에서 지내고 있는 이웃 사람에게 매일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정하고 나이가 든 미망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매일 전화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며, 그들이 응답이 없으면 나는 그들을 개인적으로 방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친구를 중의한 사람은 전화를 놓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은 전화기를 설치해 주고 매일 전화료를 대줍니다.

순수한 신앙 생활에는 인내하고 오래 견디는 것이 포함됩니다. 알코올 중독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는 한 아버지는 가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족이 나를 포기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제외한 모든 다른 사람들은 나를 포기했습니다.” “나는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족이 나를 포기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순수한 신앙 생활은 우리가 불행하고 유별난 아이들을 향상시킬 때 실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훌륭한 어떤 영들은

지상에서 사려깊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양 부모에 의해 잠시 또는 계속 가족 관계를 이루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순수한 신앙 생활은 결과는 차치하고 옳은 것을 행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외를 위해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단지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외롭게 되고 섬기며,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은 순수한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며 여러분이 달성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를 알 때, 비웃음이나, 여러분이 속한 집단에서의 일시적인 나쁜 평판까지도 참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우리 젊은이들과 나이 드신 분들도 그와 같은 내적인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느낌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종종 있는 일로서 사회를 보는 한 역원이 집사들은 성찬 전담을 한 후에는 그들의 가족에게 가서 함께 앉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한 소년이 밖으로 나가 현관에 있는 자리에 앉는 것을 주의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 그는 집사에게 참석한 가족이 없기 때문에 당황한 느낌으로 외롭게 밖으로 나가자 말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앉자고 했습니다. 이 부모는 이러한 정책을 내린 지도자들을 비판하지 않고 소년에게 부족한 점을 도와 줄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한 행동은 모든 회원들에게 확대되어 실시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각 사람 특히 자녀들의 안전과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잠재해 있는 위험을 생각해 보고 래를 끼치고, 물건을 훔치거나 젊은이나 노인을 비난 하려는 자들을 막기 위한 우리의 임무를 기꺼이 수행함으로써 서로를 보호하고 돕는 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신앙 생활의 또 다른 예는 오늘날 정치 선거 과정에서 쟁점을 설명하고 토론하고자 하며 비열함과 중상 모략을 피하려는 사

람들에 의해 실행될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의 진정한 승자는 인신 공격을 하기보다는 패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순수한 신앙 생활의 예는 모든 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약 한 달 전 어떤 장례식에서, 나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용기있는 젊은 아가씨에 관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래 기도하고 많은 눈물을 흘린 후, 증병으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있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녀는 어머니가 누워 계신 곳으로 달려가고 싶지만 어머니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녀에게 주어진 임무를 마치기 위해 선교 지역에 남아 복음을 듣기 원하는 자들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순수한 신앙 생활을 정의한 간단한 경전 구절에서 훌륭한 지침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을 위한 사탄의 모든 간악한 계획을 피해야만 합니다. 서로 보복하고, 결점을 찾고, 속이고, 비열하고, 위선적인 배도를 취하고 심판하고 파괴하는 것은 순수한 신앙 생활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감정을 서로 나누는 것은 참으로 자신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면 우리는 미망인이나 아버지가 안 계신 사람이거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방문해서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도울 수 있으며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수한 신앙 생활의 원리를 배우고 그대로 살도록 도와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를 높이는 일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마음이 좁고 편견을 갖고 있으며 다투기 좋아하며 이웃의 필요 사항에 도움을 주지 않는 자들은 순수한 신앙 생활을 가르침 받거나 순수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순수한 신앙 생활이란 우리 구세주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대리 방문자



기운을 내라



빌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길을 완전히 아시는 분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기운을 내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임이니, 왕국은 너희 것이요…… 영원의 재물도 너희 것이니라.”(교성 78 : 18)

영 제 자애 여러분, 우리는 기이하고도 두려운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일에 산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기운을 내라”(교성 61 : 36, 78 : 18)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가르침을 주시어 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운을 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초기 십이사도들에게 외적으로는 즐거워할 일이 없을 때에도 그들에게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16 : 33 참조) 겟세마네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임박해 있었고, 유다의 배신이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체포와 그에 대한 심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이사도들도 양떼처럼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공평하고 그를 우롱하는 재판과 그에 대한 무서운 매질이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님 대신에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외치는 날카롭고 물인정한 군중들의 소리가 머지 않아 허공에 메아리칠 것입니다. 그리고 갈보리에서의 최후의 무시무시한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십이사도들이 기운을 내기를 기대하셨을까요? 다음과 같이 구세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 16 : 33)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속죄가 막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망이 절국을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구원의 계획이 알려지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불사 불멸의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불사 불멸을 얻은 사람들은 영생의 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십이사도들이 당면한 우울한 일시적인 환경이 아니라 기운을 낼 수 있게 한 빛나는 현실과 주요한 사실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귀한 복음의 일면이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한 경우는 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옥에 갇힌 바울 옆에 서시어 담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3 : 11) 또 다른 예는 바울이 아나니아의 명령으로 사람들 앞에서 입을 맛았을 때입니다. 40명의 사람들이 그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는 폭동 교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기운을 내야 했을까요? 비록 지금은 역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바울은 곧 복음의 기쁜 소식을 로마에 전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시대의 교회 회원들은 특정한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예언들이 정확하게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들의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도 역시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

꿈하셨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내가 이 세상에 내려오리라.”(나삼 1:13) 예수님이 탄생 하심으로써 구세주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성역을 베푸시는 일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의 기쁨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마음 가짐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1842년 가을, 무장한 폭도들이 나부를 향하여 온다는 소문이 들려 왔습니다. 그가 사랑하던 엠마는 자주 병을 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부인이 회복되지 않을 거라며 걱정했습니다. 예언자는 요셉의 시에서 쫓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무렵 요셉이 집에 돌아와 엠마가 병중에 아들을 낳았으나 그 아이는 살지 못했다.”(교회 정사:5:209)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민과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예언자는 진진 사업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음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듣는요? 이는 즐거움의 소리니……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즐거움의 소리요……큰 기쁨의 즐거움 소식이니라……기뻐하라. 크게 즐거워하라……” 그리고 “산들아, 기뻐 소리 지르라. 너희 모든 골짜기에 크게 외치라.”(교성 128:19, 22, 23)

진실로 중요한 것, 다시 말해서 현대에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에 관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관이야말로 참으로 고귀하지 않습니까!

1820년대 말 브리검 영은 아직 회복된 복음을 접해 보지 못한 다소 의기소침한 청년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보는 대부분의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였고 그가 과연 할 일이 있을까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동생 피네아스가 그에게 다음과 같은 현명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참아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인가 하시고 있다고 생각해요.”(히버 시 킴볼의 설교집, 1845년 1월 8일, 브리검 영 문서, 역사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당시 있었던 이 일은 모세와 같은 역사가 아니겠습니

까?

형제 자매 여러분, 궁극적인 이유 즉 바로 눈앞에 처한 사정을 위한 이유가 아닌 뚜렷한 이유 때문에 기운을 낼 때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자세가 사람의 칭찬이나, 관심도나 특수한 선거나 혹은 운동 시험의 결과와 같은 것으로 좌우된다면 우리는 사람 또는 환경에 너무나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의 은사에 대하여 우리의 죽음으로써만 감사를 표현하는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어떻게 죽었는지 보고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각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목적에 대하여 사려깊은 확신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펼쳐지는 과정에서 기운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말일의 어려움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됩니다. 요엘과 스바냐는 말일을 “어두운 날”(요엘 2:2, 스바냐 1:15)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수십년간은 절망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로나이가 말한 것과 같이 절망은 최악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모로나이사 10:22 참조) 최악이 커지면 커질 수록 절망도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회개를 하지 않으면 복음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깊은 절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자가 되어야 함에도 이 지상에서 평화가 박탈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성 1:35 참조) 전쟁은 현대인이 거의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1945년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 크고 작은 전쟁이 141번이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막 시작될 무렵, 주님은 전쟁이 모든 나라에서 그치지 아니할 것이며 그 결과 “많은 사람을 죽음과 비참으로”(교성 87:1) 몰아 넣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더우기 투쟁의 연속은 “모든 나라의 완전

한 종막”(교성 87 : 6)의 절정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인간들은 그들이 선택한 대로 인간의 무기를 과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신 감추”(엡 6 : 11)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 재난 속에서도 의롭게 살고 그러다가 죽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교성 42 : 44 참조)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사람들의 사랑이 차차 식어 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성 45 : 27; 마태복음 24 : 12) 그러므로 두려움은 증대할 것입니다. 왜 그렇까요?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 : 18; 모로나이사 8 : 16 참조) 사랑이 없으면 없을수록 두려움이 증대합니다. 그리고 전쟁도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우리가 번민하게 된다고 해도 절망해서는 안됩니다. (고린도후서 4 : 8 참조)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교성 38 : 30 참조)

그렇지만 주님은 그의 성도들의 신앙과 인내심을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모사이야서 23 : 21 참조) 우리 인간들은 다음 말씀과 같이 주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하여 주가 이 백성들을 고난으로……치지 아니하시면 저들이 결코 주를 기억하지 아니하나니.” (힐라맨서 12 : 3)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이 시험에 대처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는 우리의 인내의 능력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순간을 견디어 낼 수 없는 고통은 주시지 않습니다. (교성 50 : 40; 78 : 18)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이 우리들에게 오지 않을 것과 같이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우리에게 주어 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 : 13 참조)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기뻐해야 할 큰 이유가 분명히 주어졌으니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운을 낼 수 있지 않겠음니까?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목적지를 “바로 이곳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발전상의 목적지를 “바로 이것이 그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귀중한 운명을 알았던 브리감 영 대관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빛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시련과 환난을 경험하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능력을 개발하고 우리들의 힘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우리가 홀로 버림받은 느낌이 들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깜깜한 속에서도 의롭게”(서기 일지, 1857년 1월 28일) 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말씀했습니다. 어두운 역경 속에서 때로 비치는 한 줄기 복음의 광채는 “기운을 내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절망 속에 있을 때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이 비를거릴 때 신앙을 지키며, 우리가 버림받은 느낌이 들 때도 진실하다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려깊고 거룩한 가르침을 주시는 통안에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모사이야서 3 : 19) 하나님께서 이러한 배움의 경험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다고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사실은 그러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건의 일면만을 볼 때 우리 주위의 모든 소용돌이를 맞볼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로서 그 옛날 밤 베들레헴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갓 태어난 그리스도 아기의 발을 보았을 때 그 발이 언젠가는 성지의 곳곳을 무루다니게 될 것이며 더우기 그 발에 큰 뜻이 박히게 될 것은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리아가 그 작은 손을 잡았을

때, 그리고 몇 달 후 그 작은 손이 그녀를 꼭 잡았을 때, 그녀는 그 손이 자라서 최초의 십이사도들 성임할 것이며, 그리고 그후에 저절게 만들어진 십자가를 메고 가게 될 것임을 알았겠습니까?

마리아가 아기의 울음 소리를 들었을 때 후에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시고, 니파이인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우신 예수님에 대해 알았겠습니까? (요한복음 11:35; 니파이삼서 17:21-22 참조) 그녀는 그 아기의 연약한 무릎이 후에 깃새마네에서의 영화로우며 두려운 시간을 포함하여 수많은 기도로 굳어질 것을 예상했겠습니까? (마태복음 26:36-56)

그녀가 그 아기의 땀구멍을 깨끗이 씻어 주기 위하여 목욕을 시켜 줄 때 몇 십년 후 어느 날 그 땀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올 것을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모사이아서 3:7 참조)

여러분들과 내가 우리를 마음속에 어떤 것을 간직하고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믿고 싶어하는 의욕이 생깁니다. (누가복음 2:19 참조)

주님의 백성들이 접근해 오는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였을 때 예언자가 주님을 기억하게 하고 다시 용기를 내게 하여 그들이 "두려움을 진정하" (모사이아서 23:28)였듯이 우리가 환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과 그의 예언자들은 우리에게 다시 용기를 갖도록 하여 주십니다. 어린 엘리자 스노우가 어려움 가운데 포장 마차 안에서 한 것과 같이 우리는 사물 그대로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잘 지내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름피 4:13; 케네스 더블류 고드프리, *여성의 소리*, 솔트레이크시티; 메저렛 출판사, 1982년, 147페이지) 그러한 재확인과 판정은 확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정죄하시며 체질하시는 심판이 하나님 집에서 시작되어 세상 밖으로 퍼져 나간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베

드로전서 4:17; 교성 112:25) 이 체질은 무엇으로 될는지 저금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요구되는 "날마다 세 십자가"를 저야 하는 고조와 더불어 어떠한 특별한 시련이 닥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복음 9:23 참조) 그러나 예수님이 유혹자의 세 가지 도구인 유혹, 핍박, 환난이 병혹하게 쓰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21; 누가복음 8:13 참조)

그리고 그러한 환경의 태양에서 나오는 열이 풀을 태울 것이며 그 열은 매우 뜨거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31; 교성 135:6; 엘마서 32:38 참조)

의로운 자가 타락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 번 체로 걸려질 것입니다. 끝까지 참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배반자에게 속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경문의 시대마다 많은 걸림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관심사에 몰두되어 걸림물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등불에 기름을 채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빈빈히 영적 양식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싸울 때 지고 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조롱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며 최막대에서 멀어져 나갑니다. (니파이일서 8:28 참조) 어떤 사람들은 성도가 되지 못하고 다만 지나가는 객에 지나지 않았기에 대열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용기를 얻지 못한 몇몇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요삼 1:22 참조)

형제 자매 여러분, 사실 이미 너무나 많은 교회 회원들이 성약과 약속을 깨뜨려 상심하고 가정 파탄을 겪게 되었습니다. 확대되어 가는 사회의 험락 추구의 경향은 우리의 문명을 에민 동산이 아니라 소돔쪽으로 물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는 부모님들과 신권과 원리와 그리고 경건과 신전과 또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의지하도록 합시다. 제국을 물질을 위한



발판으로 잘못 생각하지 맙시다.

만약 우리가 기운을 낸다면 다음과 같은 힐라맨의 비판을 이해할 수 있다 할지라도 다른 시기를 그리며 향수에 젖을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 내가 처음 에루살렘을 떠나 온 나의 조상 니파이의 때 살아…… 이 백성들을 가르쳐 성실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고 죄악에 더디 이끌려 가게 함이 쉬웠으니……

“보라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게 되어……”
(힐라맨서 7 : 7, 9)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시대입니다. 이것이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기운을 낸다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간증하는 데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교성 76 : 79 ; 교성 121 : 29 참조)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계획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고통을 느낄 때 우리는

그 계획이 최초로 알려졌던 고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중에서 지각있는 자들은 은밀하지 않고 큰소리로 기뻐 소리쳤습니다! (욥기 38 : 7 참조) 우리는 지금 그러한 느낌을 회고하지 않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을 그때에 더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운을 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때의 그 영광스러운 상태를 이미 앞서간 자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교성 93 : 34 참조)

길을 완전히 아시는 분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기운을 내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임이니, 왕국은 너희 것이요…… 영원의 재물도 너희 것이니라.” (교성 78 : 18)

“팔을 벌려” (물론서 6 : 17) 우리를 맞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직원 데관장단



런 렉스 제너 부대관장
제 1 보좌



스펜서 디블록 팀을 대관장



제리온 제 동너 부대관장
제 2 보좌



고든 에 톨롤러 보좌

십이사도 평의회



에스라 디포드 벨슨



마크 이 퍼머슨



리그랜드 워보스



하워드 디블록 팀머



모리스 에스 톨슨



로이드 케이 웨어



아빈 케이 매쉬슨



프리스 탈 역틀러



앨 문 제리



제임스 디 웨이트



제임스 이 와우스트



닐 케이 맥스웰



프랭클린 디러프코



제이 포머스 라이얼스



로버트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철심인 제임 정원회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관리 감독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철심인 제임 정원회 명예 회원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제이 로버트슨

구세주의 친구가 되고 종이 되고 아들이 됩시다



로버트 이 웰즈 장로
칠십일 세일 정원회

우리에게 기독교도가 아니라고 터무니없이 비난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도록 그렇게 생활합시다.

우 리 교회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

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오기 전인 전세에서의 구세주의 역할에 관해 상세히 알고 있으며, 우리의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이 세상의 창조 때 그가 맡은 역할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눌 구약 시대의 여호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문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약입니다. 그것은 구세주에 관하여 더 많은 교리와 지식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현대의 예언자들은 우리가 우리의 죄 사함을 구할 수 있는 구속주로서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 교리, 빛 그리고 지식을 밝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기독교 교회에 대하여 대단한 가치가 있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품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줄이거나 손상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의 이익과 구원을 위하여 어린양이시며, 목자이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 관한 더욱 많은 지식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편 71 : 22 참조)



고대의 니파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지라도…… 굳건히 그리스도를 바라 행하여야 하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하여 산 바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바라게 하며”(니파이서 25 : 24-27) 이 말씀의 완전한 뜻으로 보아 우리가 기독교도임을 어느 누가 의심할 수 있겠음니까?

얼마 전에 나는 비행기를 타고 남미 플로리다의 빌럼 지대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나는 열 좌석에 앉은 탑승객에게 교회에 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친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물문은 분명히 요셉 스미스의 묘지에 웅장한 사원을 지었지요?”

나는 놀라서 큰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원이라고요, 무슨 묘지 말입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대기에 황금 천사상이 있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그 높은 건물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예언자를 예배하는 일종의 사원이나 회당이 아닙니까?” 그는 웅장한 솔트레이크 신전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오해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느냐고 묻지도 않고 나는 최선을 다하여 그 오해를 풀어 주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틀림없는 기독교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대나 고대를 막론하고 어떠한 예언자나 성도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셉 스미스를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를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그에게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리와 철학과 관습에서는 그는 어떠한 중개자도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예언자나 성도들도 그러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대변자가

됩니다. -나는 되풀이 말하며 강조했습니다. -마리아나 요셉도 아닙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아닙니다. 아담이나 모세나 아브라함 같은 옛 예언자 중에 아무도 그와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요셉 스미스나 브리검 영 같은 현대의 예언자들에게도 절대 예배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신전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존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또 그가 그곳에 묻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더 계속하였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요셉 스미스가 묻혀 있는 곳을 순례하지 않습니다. 사실 나는 그가 어느 곳에 묻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셉 스미스가 어디 묻혀 있는지도 모른다는 나의 설명은 그 친구를 정말 감동시킨 것 같습니다. 그는 크게 놀랐으나 자신이 우리 교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쉽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세주를 예배하는 방법에 관한 진리의 이야기를 쉽게 그리고 솔직하게 토론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기독교도라는 명확한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갈망하는 기독교도이며, 구세주의 친구요, 구세주의 종이고, 구세주의 아들딸이라는 것을 우리의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그리고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생활하고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모든 교회 회원들의 책임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나 하나 들어 토론하겠습니다.

첫째, 구세주의 친구가 됩시다.

킵블 대관장님은 구세주의 친구로서 자격을 얻은 분이십니다. 수년 전 병원에서 심장 절개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젊은 병원 직원에 의해서 운반대에 실려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젊은이는 잘못하여 금속 문틀과 금속 침대를 사이에 손을 치었습니다. 이 불상사가 발생하자 그 젊은이는 아픔을 못이겨 공연히 구세주의 이름을 망명되어 일컬었

읍니다. 예언자는 몸을 움직여 눈을 뜨고 조용히 그 젊은이를 나무랐읍니다. “젊은이,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그분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시라오.”

구세주의 이름이 잘못 사용될 때 여러분이 나 나는 그것을 막을 만한 그러한 관계를 구세주와 맺고 있습니까? 킴볼 대관장님이 주님을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까?

킴볼 대관장님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행동하신 또 하나의 예가 수년 전의 성탄절 전야에 있었읍니다. 그분은 나를 불러서 바쁘나고 물어보셨읍니다. 나는 “아뇨.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 킴볼 대관장님?” 하고 즉시 말하였읍니다. 그는 초등학교 아동 병원에 축복을 주기 위하여 가는데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읍니다. 병원에는 남미에서 온 아이들과 아메리칸 인디언 아이들이 입원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은 들으셨던 것입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작총을 다니시며 모른 라틴 어린이들과 레이멘인 어린이와 그리고 많은 다른 아이들을 축복하셨읍니다. 나는 킴볼 대관장님의 모든 아이들에 대한 친절한 우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읍니다. 그는 환자의 친구였으며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친구였읍니다. 그는 구세주와 같이 친절과 사랑과 우정의 모범을 보이셨읍니다. 그분이 “구세주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시라오.”라고 하신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읍니다.

둘째, 구세주의 종이 됩시다.

베냐민 왕은 이 말을 명백하게 하였읍니다.

“사람이 어찌 섬기지도 아니하며 알지도 못하며 마음에 생각해 보지도 않은 주인을 알 수 있으리요?”(모사이아서 5:13)

우리가 그를 섬기지 않았고 알지도 못하며 매일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의도가 그와 동떨어진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은 구세주를 잘 아시고 아주 긴 세월 동안 구세주의 종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구세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며 무슨 행동을 하시려는가를 직감적으로 알았읍니다.

예를 들면, 교회 대관장이 된 지 얼마 안되어 리 대관장님은 교회의 예언자로서 첫번째 기자 회견을 가지셨읍니다. 기자들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했읍니다. “월남 전쟁과 관련하여 당신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당시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사람들의 의견은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 전쟁에 개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었읍니다.

만약 리 대관장님이 “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찬성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기자들은 “영적인 지도자가 전쟁을 찬성하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나는 우리 정부가 개입되는 것을 반대합니다.”라고 말하셨다면 “정부를 지지하는 척하는 종교 지도자가 반대를 하다니 이상하군요.”라고 기자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그 기자 회견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였을 때 리 대관장님은 영감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대회 방문자



잘 아시는 주님의 종으로서 당연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의 답변은 그들의 경계를 끌어 주고 그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나는 리 대관장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는 모든 기독교계와 더불어 전쟁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요한복음 16:33)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리 대관장님은 요한복음 14장을 인용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27절)

그러면서 리 대관장님은 위대한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육군이나 해군이나 혹은 힘으로 얻어지는 그러한 종류의 평화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회의에서 협상되는 그러한 종류의 평화를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면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시겠다고 자신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 때에야 비로소 우리를 각자의 마음에 깃들게 되는 그러한 평화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리 대관장님은 평화의 왕자의 진정한 종답게 말씀하셨으며 영감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셋째, 구세주의 아들과 딸이 됩시다.

부디 혼동이 없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의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또 예수님의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거룩하신 세 분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분리된 개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에게 그의 자녀를 맡기시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받들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침례의 거룩한 물 속에 들어가 그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 보여 영원히 하나님의 왕국에서 굳건히 서게 됩니다.

베냐민 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맺은 이 언약으로 하여 그리스도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니, 곧 그의

아들과 딸이라 이르리라. 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 너희를 영으로 낳으셨음이니라. 너희는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 너희 마음이 변화되었다 말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 그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며"(모사이사서 5:7)

이 교회 곧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우리에게 기독교도가 아니고 터무니없이 비난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않도록 그렇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구세주의 더 좋은 친구가 되고 구세주의 헌신적인 종이 되며, 구세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의 성스러운 물 속에서 그의 이름을 받들으로써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구세주에게 주어진 아들과 딸같이 되기 위하여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의 회원들만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생활합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며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아무리 빛이 약해지더라도”



본 제이 페더스톤 장로
칠십인 제일 정교회

“구세주께서는 팔을 벌리고 서 계셔서 그에게로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위대한 소망과 사랑의 비유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느낌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세주께서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눅 15:1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계 둘째 아들은 좀더 성숙한 형의 그늘에 가려 있게 되는 것이 보통인 것 같습니다. 형은 당연히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연령이나 체격 면에서 형은 훨씬 유리합니다. 그는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형에게 비교당하는 동생은 기대에 못미치게 됩니다. 그는 빨리 지치고, 항상 일을 완성하지 못하며, 결국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제도”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점을 평가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해 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비유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물아울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눅 15:12) 분명히 아버지는 언젠가 두 아들에게 그들 각자가 유산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이야기

하였던 것 같습니다. 유산이란 아버지가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과연 그 아들들이 그들의 숙식을 해결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눅 15:12)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그의 분깃을 가지고 스스로 독립할 것을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는 둘째 아들이 자신의 유산 분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눅 15:13)로 가 버렸습니다.

그는 아마도 뭔가 명제가 될 만한 일을 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외국의 먼 도시에 도착한 그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그의 주위에 모여 들지도 않았고 그를 맞이하지도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궁지에 빠져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참된 친구는 스스로 찾아 얻어야 하나, 다른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파리가 꿀에 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유산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는 그의 돈을 현명하게 투자하거나 사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허탕 방탕한 생활로 돈을 허비하였습니다.(눅 15:13 참조) 악하고 술에 취한 남자와 그와 함께 지내고자 하는 욕정을 품은 음란한 여인들은 그에게서 돈이 다 없어지자 떠나 버렸습니다.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눅 15:14)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그는 유산을 모두 탕진했을 뿐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도 모두 마음이 모질어졌습니다. 그는 집에서 일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무엇이든 일자리를 구하려 했습니다. 그는 그가 풍성할 때 친구가 되어 주었던 사람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탕자는 궁핍하게 되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눅 15:15)입니다. 이제 그는 빈곤할 뿐만 아니라, 가장 비천한 일

도 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이같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그는 “배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눅 15:16) 없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대조가 되는 것과 가난의 길이, 그리고 그가 어느 정도까지 비참해져야 하는지를 보여 주고 계십니다. 그가 부유하였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려와 어울렸습니다. 이제는 그토록 막역한 친구처럼 대했던 사람 중 단 한 사람도 그에게 적어도 허기진 배를 채울 배지의 여물조차도 주지 않았습니다.

낙담의 샘으로부터 깊은 회오와 검손이 솟아났습니다. 거짓된 자만이 벗겨졌습니다. 머나 먼 어둠을 뚫고 그의 집의 불빛이 흐리게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낙담 가운데에서 젊은이는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나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눅 15:17-20)

그는 이 말을 거듭거듭 연습하였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성실한 사람이고 일생 동안 열심히 일을 한 사람으로 상당히 근면하고 고결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을 버리겠습니까? 할찌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먼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큰 아들은 동생이 집을 떠난 후로 아버지가 항상 무엇인가에 몰두해 있음을 눈치챈 것입니다. 아버지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조금 일을 하다가 발을 떠나 길을 내려다보고 있다가는 언제나 실외에 찬 눈으로 되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형은 자기의 일과 동생의 일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에는 아

버지가 하였던 일까지도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아버지가 자기에게는 관심도 갖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이 떠나기 전에는 항상 칭찬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즐거운 일도, 노래도, 춤도, 귀중한 짧은 대화마저도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밤늦도록 앉아서 타오르는 불길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기를 며칠, 몇 주일,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상저가 면대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눅 15:20-22) 오랜 여행으로 아마 신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옷과 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이것은 기대하지도 못했던 선물이며,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한 아버지의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말아들은 발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와 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지 아니하거늘”(누가복음 15:23-28)

그는 여러 주일 또는 여러 달 동안 동생의 몫까지 일을 했으나 아버지는 그에게 무관심

했고 칭찬을 듣지 못했으며, 아버지는 늘 다른 데에만 골몰하셨던 것이 아이들을 압박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도 자신의 유산을 가져가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것을 탐진하지 않고 그것을 늘려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에 남아 충실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생활을 했지만 그를 위해서는 아무런 음악도 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돌아오자, 모두 다 그의 귀가를 축하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밖에 와 있으나 들어오며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버지께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낚" (눅 15: 28)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등한시한 것을 인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아들에게 사과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아들에 대한 큰 관심이 그의 머리에서 떠났습니다. 그는 큰아들에게 전혀 칭찬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는 큰아들이 더 많은 일을 하였으나 춤도 음악도 잔치도 베풀지 않았음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으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눅 15: 29-30)

모든 것을 이해한 아버지는 "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눅 15: 31)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 전부터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주기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그것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눅 15: 32)

최근에 한 목사가 라디오에서 탕자의 비유를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

니다. "동생은 회개함으로써 주 앞에 의롭다함을 입었으나 형은 더 큰 정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오, 이 어리석은 분이여,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려." 형은 마음에 상처를 받고 소외당하였으며, 방탕한 동생에게 사랑을 표시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만한 죄를 창녀들과 함께 허탕 방탕한 생활을 한 동생의 죄에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세주께서는 팔을 벌리고서 제서서 그에게로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십니다. 갓세마비와 끌고다 언덕에서 겪은 그의 대속과 구속의 고난은 가장 큰 사랑의 행위입니다.

엘라 윌러 윌콕스는 "갓세마비"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길이

갓세마비의 언덕가를 통하여 통하고 있다.

여행하는 자 모두가

동산의 문을 지나야 한다.

그곳의 암흑 속에서 무릎을 꿇고

이면 무서운 절망과 싸워야 한다.

"내 뜻대로 마음시키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없는 자,

다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라 기도하고,

갓세마비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

(제임스 달튼 모리스 편, 종교서적 제작선, 뉴욕 앤드 런던 : 허퍼 앤드 브라더스, 1948년, 184페이지)

사망, 이혼, 범죄, 외로움, 절망 등이 우리를 갓세마비 동산으로 몰아 넣습니다. 밖으로 내민 주님의 팔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도록 열려져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보여 줍니다. 그의 사랑과 자선은 이 지상을 걷는 모든 영혼을 영원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방랑한 여행 또는 비활동의 기간을 지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누구나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주세주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대속의 행위는 공의를 충족시키고 그에게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것입니다. (교성 18:11 참조)

활동적인 사람에게는 비활동적이거나 두관심하거나 범피로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애로운 부모의 따뜻한 사랑 또는 형제나 자매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께서는 나가서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교회 회원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의 마음에 제단 위의 불처럼 신앙의 불이 켜진 채 태어나며, 그 불은 우리가 책임을 지는 연령에 달할 때까지 계속 타고,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책임 연령에 이르면 우리가 그 빛을 어떻게 키우고 돌볼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생활하면 그 빛은 점점 자라서 신체의 건강뿐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과 힘과 빛을 주어 온몸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생활을 하면 빛은 점점 잦아들어 결국은 거의 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빛이 약해지더라도, 주님께서서는 결코 신앙의 빛을 어떠한 인간에게서도 완전히 꺼져버리게 하지 않으시기를 나는 소망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마음이 암흑처럼 어두워졌을지라도 주님께서서는 어떤 가르침으로나, 의의 영으로나, 사랑으로나, 온유함으로나, 모범으로나, 복음 생활로나 다시 불이 당겨져서 밝게 피어날 수 있도록 점화의 불씨를 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신앙의 빛이 어두워진 사람에게 불씨를 당겨주지 못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을 우리는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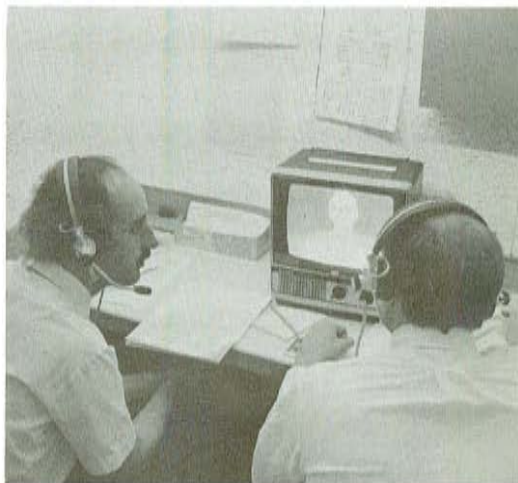
보고, 1936년 10월, 114페이지)

우리는 빛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을 찾아 축복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펜서 더블류 컴블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고하거니와, 비옥한 정원으로 오십시오. 기분 좋은 나무 그늘로 오십시오. 변할 수 없는 진리로 오십시오.

“우리와 함께 굳건하고 안전하고 일관성 있는 곳으로 오십시오. 여기 시원한 물이 흐릅니다. 이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와서 예언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대회 보고, 1971년 4월, 11페이지)

우리는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에게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권고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끊임없이 길을 내려다 봅니다. 우리는 팔을 벌리고 사랑으로 가득찬 가슴을 열고 뛰어가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에 신진 신, 옷, 손에 끼울 가락지, 그리고 살진 송아지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하여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조지 피 리 장로
철심인 제일 정원회

예수 그리스도는 “바다와 땅과 하늘의 주인 이십니다. 그는 약속된 바 메시아이십니다. 그는 사망과 무덤의 승리자이십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오늘날처럼 회의와 혼란과 악이 만연한 세계에서 진리를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하여 깊고 겸손하며 엄숙하게 확신을 갖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나는 성신의 권세와 훌륭한 영향력을 통하여 구세주의 신성에 대한 간증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 간증을 내 마음으로 직접 받았으므로 다른 어떠한 증거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에 대한 것을 내 영혼 속 깊이 심어 주었습니다.

이 조용하고 부드러운 확신은 내가 어린 시절에 누추한 오두막집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드릴 때, 또는 물론경을 읽은 후, 또는 인디언 보호 지역의 뜨거운 사막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내가 내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님을 알고, 죽음으로써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생애도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갈보리에서 끝난 것이 아님을 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서는 자신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요한복음 17:4-5)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아들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처럼, 우주에서 가장 큰 권세와 에지를 지니신 인격체이십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그는 영적인 상태로 전세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다스렸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 많은 일을 행하셔야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지시 아래 이 지구를 창조하셨고, 이 땅으로 와서 구속주가 되라는 과제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는 천국 대회에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아브라함서 3:27)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옵소서.”(모세서 4:2)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수없는 세계를 내가 창조하였나니, 나 스스로의 목적이 있어 이를 창조하였고, 나는 아들 곧 나의 독생자를 시켜 무수한 세계를 창조하였느니라.”(모세서 1:33)

어떠한 선행이라도 죄의 값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를 안으로 들여 보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엄청난 희생에 알맞고, 자격이 있으며, 합당하고, 기꺼이 행하려는 뜻을 지닌 완전하며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서의 구속주의 탄생은 하나님의 면전에서부터 온 권능과 권세의 천사에 의하여 선포되었음을 간증드립니다. 그 천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

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눅 1:19)

아담의 시대로부터 고대의 예언자들은 그의 오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의 이름, 성품 및 그의 선한 행위가 알려졌습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에 영의 인격체였습니다. 태어난 후, 살과 뼈의 몸이 붙게 되었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후의 그는 그의 불멸의 영에 불멸의 영화로운 육신이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현세에서의 온 생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 데 바쳐졌습니다. 그는 악과 사악함 속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갯세마네 동산에서의 처절한 고통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뇌일 뿐 아니라, 신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고뇌였습니다. 이 무서운 번민의 시간에 구세주께서는 아담으로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의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분을 가장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처형 방법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였습니다. 당시의 방법대로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 고통에 대하여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겪었느니라.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한 것같이 고난을 겪어야 하리니,

“그 고난은 하나님이었요,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피로움을 당……하였느니라.”(교리와 성약 19:16-18)

그는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자기를 못박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자기를 조소하고 조롱하고 비웃던 자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 주시길 기도하였습니다. 고통 중에도 그는 외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

이렇게 못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영의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신 후 다시 육체와 결합되어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셨음을 간증드립니다. 지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신 후 주님은 부활하신 영화로운 육신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한 천사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보으리라 하라”(마태복음 28:6-7)

아담의 시대로부터 그리스도의 돌아가신 때까지 수천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사망을 겪었습니다. 수천년 동안 어떠한 사람도 죽음에서 되돌아오지 않았었습니다. 구세주께서 부활과 불사불멸의 몸으로 무덤에서 일어나셨을 때, 그는 쏘는 사망, 승리의 사망의 옷을 입으셨습니다.(교전 15:55;모사이아서 16:7-8;물 7:8 참조) 인간은 죄의 어두운 잠움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사망이 정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모 15:8;물 7:5;엘 27:28 참조) 그가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의 부활에 이어 곧 많은 다른 사람들도 부활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마 27:52-53)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완전과 영생으로 향하는 행군의 최후의 장애물을 제거하셨습니다. 그에 관하여 기록된 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살아나셨느니라”(마 28:6)와

같이, 우리 각자에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의 빈 무덤은 상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부활과 불사 불멸에 대한 보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다만 위대한 교사요 위대한 인문주의 자로만 여기는 것은 큰 실수요 비극이 될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생명이 영원토록 존속됩니다. 하늘 아래에는 인간이 구원을 받고 승영에 이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행 4:12; 니이 25:20)

나는 영광의 옷을 입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대 니파이인과 레이멘인들이 바운디폴이라는 곳의 신전에 모여 있을 때 친히 나타나셨음을 간증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았으니, 저에게서 들으라 하시느니라.”(니파이삼서 11:7)

그들은 하늘로부터 흰 옷을 입고 내려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며, 그는 그들 가운데로 내려와 섰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예언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

“보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쓴 잔을 마시며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고,”(니파이삼서 11:10-11)

우리가 그의 발 아래 엎디어 그에게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유로 일어나 앞에 나아와 그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만졌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의 옆구리에 창에 찔린 상처를 보고 만져 보았으며, 그의 발 앞에 엎디어 기뻐하였습니다. 그들 자신의 눈과 손이 충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슴으로 느낀 기쁨과 감사는 어떠한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만민에게 영광스러운 나타내심이며 영적인 잔치였습니다.

나는 이 때가 찬 말일의 위대한 경륜의 시

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에게서 들으라”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시작되었음을 간증드립니다.

1820년 봄,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년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랜 배도의 밤의 어둠이 걷혔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나타내심은 세상을 환히 비추었습니다. 다른 하늘의 자들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났습니다. 많은 계시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계시를 주시는 분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음이 과거의 모든 축복, 열쇠, 권리, 특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역을 배울 권능을 소유한 성신권과 함께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받들고 계시의 반석 위에 선 교회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회복하신 복음의 원리와 율법은 그가 과거에 계시하셨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말일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성공과 완전에 대한 구세주의 공식은 항상 같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주 예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필요한 성품, 의, 근면성, 그리고 경건성을 우리 생애에 이



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와 같이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께서 온 세계의 개개인과 가족을 가르치고 침례하여 온전케 하시는 일을 돕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커피, 홍차, 담배 및 술을 마시지 않는 집에서 온전할 수 있습니다. 십일조를 바치며, 성찬식에 참석하는 데서 온전할 수 있습니다. 정직, 도덕, 사랑, 시간 엄수, 독립성 등등의 여러 가지 덕성에서 온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복음 원리를 온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면, 내일은 두 가지 복음 원리를 온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서 완전할 때 그것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다른 것에 대하여도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줄지어 선 심도들

나는 우리의 부활하신 구주가 그의 부활된 몸으로, 불사불멸의 삶과 뼈를 가지고, 해의 왕국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가 처음 이 지상에 오셨을 때 그는 밀시받고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사 53 : 3 참조)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는 인류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승리의 왕중의 왕이요 영광스러운 만군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제 17 : 14 참조) 그는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 땅을 깨끗하게 하시고 복천년의 통치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신앙개조 1 : 10 참조) 주 예수와 부활한 성도들이 복천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교성 29 : 11 참조) 사탄은 묶여서 어떠한 인간도 유혹할 힘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교성 43 : 31 참조) 천년이 끝난 후 사탄이 잠시 동안 풀려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 땅의 종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세력은 영원히 추방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교성 76 : 108 참조) 끝까지 견디어 영생을 얻는 자들은 영원히 해의 왕국에서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가 "밝고 아름다운 모든 것,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세실 프란시스 알렉산더, 종교시 걸작집, 제임스 달튼 모리슨, 뉴욕 : 하퍼 앤드 브라더스 퍼블리셔스, 1948년, 17 페이지)의 창조주임을 간증드립니다. 그는 바다와 땅과 하늘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약속된 바 메시아이십니다. 그는 사망과 무덤의 승리자이십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사 9 : 6 참조) 그는 어제도 같고 오늘도 같으며 영원히 같으십니다. (히 13 : 8 참조) 영원은 곧 그의 이름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사랑으로 친절히 대하자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보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합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고……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찾게 되는 백성들을 강화시키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마땅히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 시간은 리그랜드 리차드 장로의 말씀을 듣기로 되어 있었으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서 우리는 이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그분과 전화로 통화하였습니다. 그분은 그의 구십 육년의 생애를 사는 동안 큰 부분을 차지하였던 이 위대하고 성스러운 사업에 대한 마지막 간증을 이곳에 서서 드릴 수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알고 있듯이 최근에 큰 수술을 받으신 그분의 건강은 매우 나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이 모두 실망하고 제실 것이며 또 회복된 복음과 회복자이신 주님에 대한 간증의 말씀을 못듣게 된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총판리 역원들은 태너 부대관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아마도 내가 몇 마디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복지 모임에서 자립에 대하여 롬니 부대관장님이 말씀하시던 어제 이른 아침부터 우리는 매우 값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말씀은 시대에 적절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서 우리는 출선해서 더욱 자급자족, 강한 자립 정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보고자 하는 더욱 큰 소망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 모임에서 있었던 다른 분들의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말씀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 대회를 열었을 때 우리는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을 대신하여 헤이코크 형제가 대독한 감동적인 메시지를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조속한 기간내에 성도의 빛에 실리는 이 말씀을 읽을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는 우리 교회의 독특한 찬송인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찬송가 59장)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말씀을 읽고 귀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언자를 통하여 나오는 권고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 주십니다.

그런 다음 그후 모임에서 우리는 배우고, 격려받았고, 신앙이 강화되었으며, 우리의 확신을 강화하게 하였고, 이 사업에 대한 보다 큰 이해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에 대한 보다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나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훌륭한하고 중요한 것들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다스리느냐는 어느 여행자의 질문에 대하여 "나는 그들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쳐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다스리게 합니다."(조지 큐 캐넌,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생애*, 솔트레이크시티, 메저렛 출판사, 1958년, 529페이지)라고 선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원리를 배우신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대회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이 원리들에 맞추어 우리 자신을 다스리겠다는 결정을 하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악이 있으며 그것을 이기기 위한 선의 필요성도 지극히 큼니다. 최근에 신문을 읽거나 방송을 들은 사람들은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악함에 독약을 투입한 타락한 인간의 행위에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어

느 정도로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예이며, 또한 이 세상에서 악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 얼마나 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를 말해 줍니다. 우리는 더 선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더 선함과 같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선과 진리와 아름다움과 덕이 온 세상을 비칠 수 있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악한 것과 사탄의 간계에 굴복하고 만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설물에 대하여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날로 심해가는 악입니다. 그것은 영화 화면 위에도 있고 신문 판매대 위에도 있으며,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하여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손을 뻗쳐 우리를 유혹하고,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을 올라매고 속이며 파괴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이러한 악을 보거나 읽거나 취하는 말일성도는 누구나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치는 이러한 악을 거부하고 금하여, 필요하다면 피하도록 지체력을 축복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을 강화하고, 이러한 가정에 주님의 영이 깃들게 하며, 서로에 대한 감사와 존경과 사랑을 키우도록 격려받았습니다. 때때로 어린이 학대에 대하여 듣게 되는 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는 온 세상을 휩쓰는 악입니다. 며칠 전 나는 이것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교리와 성약을 펴서, 리버티 감옥에서 비참함과 고독에 싸인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어진 주님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은 교회에 대항하여 반기를 드는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하셨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어린이를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정 저들에게 화 있을지어다. 저들은 나의 작은 자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였으므로 나의 집의 의식에서 제외될 자니라.

"저희 바구니는 가득 차지 아니할 것이요, 저희 집과 광은 파괴되어 아침하던 자들에게 도리어 멸시를 당하리라."(교경 121 : 19-



물론 비버레이크 합창단의 일부와 후원회 직원들의 모습

20) 이것은 어린 아이들을 실족케 하는 자들에 관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기의 아내를 학대하는 것, 즉 자신의 자녀의 어머니요, 자신의 생의 반려자요, 또한 더 큰 축복을 받을 때 영원한 동반자가 되는 여인을 천시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남자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지어 주신 자들에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과 이해심을 갖고 친절히 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맥케이 대관장님이 종종 인용하신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리처드 이반스의 인용집, 솔트레이크시티; 퍼블리셔스 출판사, 1971년, 11페이지)

이제 정치에 대하여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니다. 올해는 선거의 해입니다. 정치적인 선거 유세에 흔히 따르는 강경하고 거친 음성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국민을 대표할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발표할 수 있는 체제는 참으로 건전하고 훌륭한 체제입니다. 바라기는 관계자들이 개개인의 인격에 대하여가 아니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기를 바랍니다. 문제점들은 자유롭게, 공공연하게, 솔직하게 그리고 강경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를 말씀드리거니와 상대방의 인격을 힐문하려는 인신 공격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익스피어는 오델로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지갑을 훔치는 놈은 쓰레기를 훔치는 거죠. 그렇지만 저한테서 명예를 뺏는 놈은 뺏았됐자 그 녀석이 그걸 가질 수도 없으면서 난 나대로 털터리가 되거든요. (제 3막, 제 3장, 157-61행)



우리는 비난하는 자들에게 사랑과 친절로 대하도록 합시다. 에쉬튼 장로가 지적하셨듯이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자주 에드윈 마크햄의 짧은 시를 생각합니다.

그는 원을 그려 나를 밖으로 붙였다.
이단, 모반, 조롱거리 밖으로
그러나 내게 있는 사랑과 기지가 이기리라.
우리는 원을 그려 그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헤이즐 펠먼, 미국인 애송 시집, 가든 시티,
뉴욕 : 가든 시티 퍼블리싱, 1936년, 67페이지)

다른 쪽 뺨을 내밀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우리는 악을 선으로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움과 같은 오머 브래들리 장군의 말씀을 인용

하겠습니다. “우리는 원자의 신비를 깨고, 대신 산산수해를 버렸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원자력의 거인과 윤리의 유아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평화보다는 전쟁에 대해, 그리고 삶보다는 살생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루이스 피셔 인용, *마하트마 간디의 생애*, 뉴욕 : 하퍼 앤드 브라더스, 퍼블리셔스, 1950년, 349페이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널리 복음의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행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합시다. 우리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을 가르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마땅히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고성 133 : 37 참조) 우리는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정중하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찾게 되는 백성들을 강화시키는 이 사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약한 자들을 격려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범과 교훈으로 그들을 가르치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의 정신으로 함께 일할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계에 예베의 집을 지어, 우리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가 되어 주님을 경배할 때 서로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전에서 행하는 위대한 사업, 사랑의 장막을 넘어선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사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의 노고가 있을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도 우리 모두를 위하여 속죄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주님의 정신을 취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사업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눈과 귀를 열어, 보고 듣고 배워서 위대하고 영원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권고받은 대로 행합시다



앤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1보좌

“나는 우리 모두가 들은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이 우리가 더 잘 행할 수 있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칭 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유명한 매버니 클에서 갖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연차 대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는 것은 나에게 굉장한 일입니다. 나는 러셀 벨라드 형제가 드린 기도가 이 연차 대회 동안에 응답되었음을 확신합니다.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드리고 있으며,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게 응답될 것임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이 교회를 지상에 가져 온 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요셉 스미스는 소년이었을 때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야고보서 1:5)

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며,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첫 모임에서 아서(헤이코크) 형제가 우리

에게 읽어 준 킵블 대관장님의 훌륭한 말씀은 우리가 여기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구세주이신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도록 노력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킵블 대관장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며, 그분의 영의 영향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나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합창을 듣는 동안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알려지고 많은 청중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 합창단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 형제 자매님들과 어울리고, 오늘 이곳에 함께 참가하고 여러분과 영을 함께 나누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모임을 마칠 때 나는 우리 모두가 들은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이 우리가 더 잘 행할 수 있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모임을 마칠 때 이 위대한 장소에서 행한 말씀 중에 행하도록 권고받은 모든 것들을 알장서서 수행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나와 나의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과 교회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조직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들었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연사들의 말씀은 가장 훌륭했으며 내가 생각한 대로 잘 행해졌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 훌륭한 모임에 참석해서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이곳을 떠날 수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나는 여러분에게 이 일은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며, 우리가 만약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산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임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

내일을 위한 준비



빅터 엘 브라운 감독
관리 감독

“만일 우리가 총관리 역원이 권고하신 대로
행……한다면 미래의 시련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함에 있어서 갑자기 정리해야 할 필요
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시련에 대처함-내일을 위한
가장 좋은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주제에 관하
여 생각하는 동안 나는 합당하게 준비하여 오
늘의 문제에 대처한다면 내일 당황해서 준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
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열 처녀의 비
유가 이 점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
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있는
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
지 아니하고

“슬기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
과 함께 가져 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잠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
으러 나가자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라 간 다음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마 25 : 1-13)

우리는 이 비유의 교훈을 잘 관찰하여 보면 열 처녀가 본래 모두 등에 기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섯 처녀는 현명해서 기름을 보충했기 때문에 언제나 충분한 기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다섯 처녀는 미련해서 앞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신랑이 올 때에 기름이 부족한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비유에서 그들이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했던 준비는 간단하며 매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랑의 도착에 대하여 특별한 것을 공들여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준비는 오늘 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영감을 주신 대로 한 번에 한 걸음씩 준비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가끔 어떤 기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곤 했습니다.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이 기록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캄캄한 밤에 기관사가 기차를 역으로 진입시켰는데 어떤 겁많은 승객이 그 기관사에게 사 오백 명의 승객의 목숨이 걸려 있는데 밤에 기관차를 운전하는 것이 무섭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기관사는 밝은 헤드라이트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기차를 운전하여 이 역에서 빠져 나갈 때 도중에 어둠 속은 조금도 달리지 않습니다. 1킬로미터 가

까이 빛이 비치는 것이 보이지요? 나는 그 빛의 끝까지만 기차를 움직입니다. 그리하여 거기에 도착할 때는 여전히 그 빛은 거의 1킬로미터 밖까지 비칩니다.’ 맥케이 대관장님은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이처럼 불안하고 캄캄한 밤이라 해도 이 복지 프로그램은 도중에 어둠 속은 조금도 달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빛이 제일 먼저 비치게 되는 다음 10월달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지금부터 6개월 동안 해야 할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도착할 때가 되면 그 빛은 우리보다 더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걸음마다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백성이 여러분을 따라오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파괴적인 세력이 닥칠 때 그들은 시온의 언덕에서 안전할 것입니다.’”(복지 농업 모임, 1969년 4월 5일)

만일 우리가 총관리 역원이 권고하신 대로 행하고 매일매일 검소하고 의욕적 생활한다면 미래의 시련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어서 갑자기 정리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복지 사업 프로그램을 주로 마지막 날을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생각할까봐 두렵습니다. 이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복지 사업 프로그램의 원리는 우리가 매일 검소하게 생활하도록 하며, 우리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 잘 처리할 수 있기 위해 계획된 것입니다.

신랑이 밤에 오면 등이 필요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 처녀들과 같이 언제 질병이나 실직과 같은 중대한 문제가 우리 생활에 닥칠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도 매체를 통하여 읽고 듣는 내용의 거의 모두가 마지막 날이 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방 신문에는 제목이나 내용의 3/2 이상이 살인, 전쟁, 파산, 실직 등과 같은 세상의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으며, 좋은 영향을 줄 이야기를 실을 여백을 남기지 않습니다. 상황은 절망

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실직 상태에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체와 국가의 파산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교성 45:26 참조) 사람이 사람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도덕 가치는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로 타락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많은 문제는 어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닥쳐도 놀라지 않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권고받은 것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1935년에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에베드리기 위하여—모이는 날(안식일)이 이 위대한 국가의 노는 날, 즉 하나님님이 몇 년 전에 주신 계명을 여기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이 따로 정한 날이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인간을 괴롭히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괴롭힐 슬픔과 고난 가운데 많은 것은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분의 훈계를 무시한 사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대회 보고, 1935년 10월, 120페이지)

1937년에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병을 피하듯이 부채를 피하십시오. 현재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은 부채로부터 벗어납시다.” (대회 보고, 1937년 4월, 26페이지)

1970년에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이 교회 지도자들은 식물을 저장하고 어려운 때를 위해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무시했는데 이제 갑자기 재난이 닥치기 시작했으며 그 동안 게을렀던 사람 가운데 일부는 은행으로

달려가서 저축한 돈을 찾아 내서 식물을 사고 있습니다.” (북지 농업 모임, 1970년 4월 4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974년에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과 가족이 없는 삶이란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남미 노소를 불문하고 혼인 이외의 성관계는 주님이 보시기에 가증하며, 많은 사람이 이 위대한 진리에 눈이 먼 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되는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다. 부도덕이나 부정에 의한 이혼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대회 보고, 1974년 10월, 9페이지)

만일 우리가 이런 몇 가지 예에서 주어진 권고에 따랐다면 오늘날의 문제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것을 피하거나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오늘 및 내일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살펴봅시다. 특히 부모님에게는 자녀들이 합당한 교육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을 강조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이 점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또 시온 또는 조직된 시온의 스테이크 안에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그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 (교성 68:25, 28)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하는 것에는 인생의 모든 면에서 책임감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 특히 고등 학교에 다니는 동안 다른 과정보다는 더 많이 요구할지는 모르지만 학업을 계속하거나 직업을 찾게 될 때 더 잘 준비를 갖추

게 하는 기본적인 과정을 이수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규 교육을 어디까지 이수하든지 자신이 이수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워야만 합니다. 어떤 기업이든지 항상 그 상층에는 여유가 있으며 하층에는 항상 뻣뻣하게 잡니다. 연관공이든, 의사이든, 교사이든, 법률가이든, 농부든, 목수든 기타 어떤 직종에서 일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인생의 초기에 벌써 자신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면 인생의 여러 책임에 대하여 현저하게 더 잘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생각하는 방법과 공부하는 방법을 깨닫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 교육은 단지 교육의 정규적인 부분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하며 우리도 상기해야 합니다. 교육은 결코 정지하면 안되며 평생을 통하여 계속되는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자인 모리머 애들러씨는 언젠가 회견을 하면서 자신의 교육은 불과 25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회견일은 좀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오랫동안 시카고 대학과 관계를 맺고 계시지 않습니까?”

애들러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기간에 나는 학교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의 교육이 시작된 것은 정규 교육을 마친 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 88편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하면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가 이해하면 유익한 이론과 원리와 교리와 복음의 율법과 하나님의 왕국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더욱 온전히 배우게 되리라.

“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일과 과거의 일

과 현재의 일과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반드시 일어날 일과 국내의 일과 외국의 일 그리고 전쟁과 여러 국민간의 갈등, 지상에 임할 심판 및 여러 나라와 왕국에 대한 지식도 배우게 되리니,

“이는 내가 너희를 부른 소명과 너희에게 맡긴 사명을 완수하게 하려고 또다시 내가 너희를 보낼 때에 모든 일에 준비를 갖추어 두게 하려는 것이니라.

“만드시 모든 사람에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닌즉 너희는 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구하고 서로 가르치라. 참으로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또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 (교성 88 : 77-80, 118)

우리와 우리 자녀가 책임감있는 사람이 되어 자신의 일을 합당하게 해결하려면 그렇게 하도록 자신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 기본적으로도 근본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교육의 예가 다른 준비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체계적인 과정을 따른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학년 다음에 2학년이 오고 2학년 다음에 3학년이 오고 계속해서 고등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교육이나 직업 교육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오늘의 문제에 관한 적당한 준비가 미래를 위한 최선의 준비라는 기본적인 전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금전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빚지지 않으며, 자신의 용도와 그들의 환경에 궁지를 갖고, 신뢰할 만하고, 하루의 금료를 위해 하루 동안 충실히 일하는 것과 기타 복지 사업의 수많은 다른 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원리 가운데는 “최후의 날”이 압박했다는 사상과 관련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욕구가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욕구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식주와 기타 필수품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풍요롭게

게 가졌다 할지라도 영생에 필요한 것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치셨는데 그중의 하나는 부자의 비유입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눅 12:16-21)

14년 전 4월 연차 대회에서 메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하여 교회 회원에게 또한 온 세상 사람에게 복음과 또한 마음속의 영의 발전에 관하여 좀더 많이 생각하시고 또한 살아 있는 현실적인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없어질 것에 대해서는 좀더 적은 시간을 보내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대회 보고, 1968년 4월, 144페이지)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과정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얻는 것을 기적으로 해서만 내일을 쌓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영적인 발전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내일까지 기다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세주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어둠 속을 걸을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요 8:12 참조)

우리는 부모로서 육체적인 준비와 영적인 준비를 모두 가르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그의 기쁨부음 받은 분의 권

고를 따르지 않으므로써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합니다. 우리 모두 “행하라”고 하신 킴볼 대관장님의 훈계와 모범을 따릅니다.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 모두 20~30년 후에 오늘을 되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만일 우리가 1980년대에 받은 그 권고를 따르기만 했다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피할 수 있었을까?” 그 대신에 총관리 역원을 따르고 현재의 문제에 복지 사업 원리를 적용합니다. 그리하여 내일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행복과 기쁨과 확신을 갖고 앞으로 진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3, 25-27)

바로 이것이 우리 주변이 모두 혼란에 휩싸일 때 우리 개개인에게 내적인 평안을 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것은 모든 물질적인 것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시련에 대처하고 그리하여 확신을 갖고 내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가정에 복지 원리를 적용함 : 수많은 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바바라 비 스미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가족의 단합과 영성은 "사랑, 일, 봉사, 자립 및 헌신 등의 원리를 실천함으로써"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요 1:1) 또는 요세프 미스의 영감역에 따르면 "태초에 아들을 통하여 진파된 복음이 있었느니라. 이 복음이 바로 말씀이라."(요세프 미스의 영감역 요 1:1) 더 나아가서 "그 [아들] 안에 복음이 있었으니 그 복음이 생명이었으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세프 미스의 영감역, 요 1:4)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이 그들을 위하여 마련된 빛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도 모두 그 빛을 생활에 도입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생활에는 빛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생각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업무 때문에 매주 3일은 그 도시를 떠나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여인은 혼자 남아서 집안을 관리하고 두 어린 자녀를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결혼할 때 이 여인은 19세밖에 안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린 아이를 돌본 경험은 거의 한번도 없었으며 자기 아이를 돌보는 데 전혀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과 가사 의무가 과도한 것같이 생각될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좌절감 속에서 차츰 자녀에게 가혹해지기 시작했으며 급기야는 자신의 가혹한 행위에 스스로 놀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고독하고 수치스럽고 무력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자주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그녀에게 복음이 어떤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이 여인과 남편은 그들 스스로를 교회의 훌륭한 회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울고, 빨래감은 밀려 있고 어머니께는 답장도 못드린 채 이번 주, 남편 회사에서 열릴 파티에 입고 갈 드레스는 아직도 완성하지 못한 채 재봉틀에 걸려 있으니 다른 사람과 무엇이 다를 게 있었겠습니까? 이런 모든 혼란은 현재 그녀가 얼마나 낙담하고 있는가를 너무나 잘 말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복음의 축복이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게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복음 원리를 그녀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하는 것을 배우게 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그녀의 걱정을 잘 파악한 방문 교사가 그 아이들에게 특별한 장난감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들은 재미도 있지만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어른이 어린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장난감을 주의 깊게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그 어머니에게 활용을 통하여 자녀들과 관계를 갖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녀가 얼마나 행복하게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와 함께 노는 시간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놀이를 통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으며 그들이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점점 더 편안해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활동함으로써 형성되고 있는 좋은 관계로 인하여 아이들은 어머니가 시키는 일, 즉 자기 옷을 걸어 둔다든지, 장난감을 치운다든지, 낮잠 잘 시간에 기꺼이 낮잠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여인은 다른 일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녀에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고 그들의 관심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매일 자녀에게 이런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 가정에서 사랑은 개념적인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서로의 필요 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을 위하여 전파되는 복음의 말씀은 아는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약속된 빛을 가져다 주기에 항상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말씀에 의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번역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번역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컴퓨터를 도입했으며 이 중요한 일에 수백 명의 언어 전문가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번역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일은 복음 원리를 행동과 태도와 습관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사랑에 관한 복음 원리는 “서로 사랑하라”(요 13:34)는 것에 관련된 행동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당황하게 하거나, 슬픔을 주는 행동을 고치기 위한 확고한 노력으로 해석될 때 이 말씀은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한 부인이 남편에게 쓴 다음 몇 줄의 글은 원리가 단지 말에 그치지 않게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 줍니다.

1951년 발렌타인 데이

사랑하는 당신에게,

저는 지난 23년 동안 함께 살면서 당신을 사랑했던 것보다 오늘 더 당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비록 당신이 늘 저에 대한 사랑을 말해주셨지만 최근에 우리 가족을 신진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준비할 때처럼 당신이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행한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진실로 하나가 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언제나 저에게는 한 가지 슬픔 즉 가지지 않는 불행한 느낌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가 함께 복음을 공부함으로써 또한 똑같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것과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한 기대감과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저는 당신에게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 왔으며 당신을 속박하고 있던 습관을 버리기 위하여 힘든 노력을 기울여 성공하는 것을 보아오는 동안 당신을 존경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여보, 당신의 아들과 딸과 저는 당신이 지극히 자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깊이 감사하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엘런

불행한 결혼이 나쁜 습관 때문에 비롯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는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나 많은 여러 가지 요구 사항에 관여하고 있는 동안 조용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도 없게 커갑니다. 자신의 거의 모든 결혼 생활을 교회와 자녀에게 헌신했던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은 이제 성장해서 가정을 떠났습니다. 교회 부름은 이제 요구하는 것이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 주는 데 세월을 보낸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기 자신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들은 자녀를 돌보는 일에 전념한 나머지 서로에게 봉사하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즉각적으로 아낌없이 사랑을 주면서, 서로에게는 단순하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것을 등한시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함께 한 많은 경험을 즐길 수도 있는 시간에 그들의 관계가 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부족한 느낌

이 틀어서 곧잘 비판하고 불만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랫동안 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인하여 좀더 나은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빛을 경험했으며 이제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복음 원리를 새로운 관점에서 봄으로써 서로 봉사하는 방법을 다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사람을 나누던 그 시간에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특별한 보상이나 훌륭한 느낌과 만족감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집 주변에서 함께 일할 계획을 세웠고 그들은 뜻있는 교회 활동을 찾았고 가족 기록 및 역사를 준비하고 그 외에 귀중한 기록을 보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이미 복음 안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원리를 갖고 있었으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원리를 적용했을 때 그것이 훨씬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지 케이 체스터튼은 "분필 한 개"라는 수필에서 유색 분필로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잉글랜드 남쪽의 시골로 가는 것에 대해 적었는데 안타깝게도 흰색 분필을 빠뜨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게로부터 너무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앉아 있던 바위가 사실은 흰색 분필이라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기 전까지는 자신의 여행을 완전히 망쳤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케이 토머스 편, *독서의 기쁨*,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78년, 35-40페이지)

그는 그 서식스 초원에서 "커다란 흰색 분필 창고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분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마치 화학자가 대양 한 가운데서 실험하기 위하여 염수를 찾거나, 광대한 사하라 사막에 있는 어떤 사람이 모래시계에 재울 모래를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가 이미 그 해답에 대한 열쇠를 갖고 있음을 알기만 하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계속해서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쓸 돈이 거의 없었지만 이웃에게 크리스마스 과자를 나누어 주고 싶어했던 여성이 그 한 예였습니다. 그 여성은 값싼 그릇조차 살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독립심이 강했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재료를 써서 갈색의 점심 도시락 크기의 종이 상자에 흰색 종이 지붕과 문과 창문을 장식하여 예쁜 선물을 만들어 "여러분, 성탄절을 축하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집에서 만든 말린 사과 조각으로 가득 차운 이 갈색 종이 상자 집은 훌륭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종류의 창의성은 어떤 어머니가 소년의 낡은 청바지로 자기 자녀를 위하여 멋진 옷옷을 만들어 준 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나 일과 봉사와 사랑과 자립심이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는 길을 열어 주는 열쇠였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심각하고 우리를 쇠약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은 공포와 회의적과 마음을 비탄에 빠지게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발견하거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길은 우리가 신권회, 상호부조회 및 기타 교회 모임에서 그들을 위하여 보여 줄 수 있는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우정일 때가 흔합니다. 비탄에 잠긴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짓밟힌 사람에게 다시 노력할 용기를 주는 것은 바로 그들의 어깨를 봉정의 팔로 안아 주고 격려의 미소를 보내 주는 것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다른 사람도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원리대로 생활함으로써 발전된 가족의 힘과 성품이 그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어떤 가족은 막내 아이가 생후 4개월이 되었을 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 순간은 고통스러운 이혼으로 심한 상처를 받

는 순간이었으나 그 용감한 어머니는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으며 흠여머니로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여성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행동으로 옮기면 복지에 관련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뿐 아니라 그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을 의지하게 할 수도 있는 역경이 해결될 수 있으며, 그 대신에 힘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녀를 불러 모으고는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주택에 대한 월부 상환금이 밀려 있었고 기타 온갖 종류의 채무가 있었으며, 수입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바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그들이 한 가족으로서 기꺼이 함께 일한다면 그들의 집을 지키고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든 자녀는 모두 약간의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내었습니다. 그들은 잔디를 깎고 신문을 배달하고 아기를 봐주고, 알미늄 장통을 모으고, 가사를 돌보았습니다. 나이가 든 한 자녀는 가스 사용료를 책임맡았으며, 또한 자녀는 전기 요금을 책임졌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수입으로 주택 상환금을 충당했습니다. 그들은 이 외의 지출은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필수품만 샀습니다.

마침내 주택 상환금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채무도 해결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소규모의 재산에 투자까지 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집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목표가 달성되자 자녀들은 더 이상 자기가 버는 돈을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에 충당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부채를 모두 해결하고 자녀들에게 만일 그들이 계속해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대학도 갈 수 있고, 선교사로 나갈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서 함께 세계를 여행하며 구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녀들은 계속 돈을 벌어서 저축했습니다. 그들은 일의 가치와 가족의 소중함을 배웠으며, 다른 사람은 꿈에서나 생각하는 여러 곳을 어머니와 함께 여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에서 맡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지난 수년 동안의 경험으로부터 그들이 받은 가장 큰 보상은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을 서슴없이 간증합니다. 사랑, 일, 봉사, 자립 및 헌신 등의 원리를 실천함으로써 이 가족은 고귀한 성취감과 통일된 목적을 얻었으며, 또한 서로에 대하여 그리고 주님에 대하여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곧 쉽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으며 비록 복음이 대답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만 그 해



대희 방문자

결은 항상 즉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경에 대항하여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바람직한 힘을 키우게 됩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 기울여 애써 노력하는 동안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리하이의 부인인 새라이아는 광야로 여행하기 위하여 집과 모든 소유물을 버리고 떠나는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경험했을 시련에 관한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걸어다니며 천막에서 살고 연기나는 불에 음식을 요리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안락한 생활을 한 것과 대조하면 큰 고통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사랑하는 아들들이 판을 가지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죽었을까봐 걱정하면서 에타게 기다리던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니일 5:2 참조) 그러나 여러 가지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가족을 참으로 사랑하고 가족을 위하여 봉사했습니다. 아들들이 돌아오자 주님이 자기 남편에게 광야로 피신하도록 명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으며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온 것을 보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니일 5:8 참조) 그들의 형편은 달라진 것이 없었으며 그들은 여전히 천막에서 잤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기쁨과 평안을 느꼈습니다. 새라이아는 이 빛 안에서 그들에게 타치는 역경에 맞서서 계속해서 자신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되든지 누구나 계속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는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받아들여서 그 원리에 따라 생활할 때 충분한 축복이 옵니다. 그 원리를 우리의 길로 삼고 그 원리대로 살 때 그것이 우리의 빛이 되리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 빛을 알게 됨에 따라 그 빛이 암흑의 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할 것이며, 그 빛을 가정에 들여 오에 따라 그 빛은 우리 자녀와 그들의 후손들에게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완전한 밝은 소망을 갖고 계속하여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가족이 함께 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축복



딘 자먼

솔트레이크 대학 제2 스테이크 부장

“우리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 더 많은 사랑과 화평과 단합을 가져다 주는 한 가지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일함으로써 오는 축복은 육체적인 것인 동시에 영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담에게 결코 육체적인 것인 계명을 주시지 않았으므로 아담에게 주어진 계명은 영적인 것뿐이었습니다. (교성 29 : 35 참조) 그러므로 이 지구가 시작될 때 제정된 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우리 자녀에게 일하는 것을 가르치겠다는 소망을 갖게 해준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첫번째는 내가 어렸을 때 현명하고 훌륭하신 부모님이 계신 가정에서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아홉 살쯤 되었을 때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는 구두단이 도구를 가져 오셨는데 거기에는 벽에 고정시키게 되어 있는 구두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형제들에게 구두를 한 켤레 따올 때마다 15센트씩을 근면하게 벌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구두는 항상 팽택이 났으므로 부모님이 손님을 맞으실 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나는 손님들에게 구두를 닦지 않겠느냐고 물론 했습니

다. 우리 집에 오신 손님 가운데 양말만 신고 앉아 있거나 방안을 거니는 분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서 아버지는 또 다른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귀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크리스마스 화환을 팔면 어떻겠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주문을 받고는 우리 고객을 위하여 도매상에 가서 화환을 샀습니다. 그 다음 몇 년 동안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우리의 이 사업을 돕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 나는 일하는 것이 단돈을 버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마음에 지워버릴 수 없는 감동을 받은 적이 세 번 있었습니다. 그 첫번째는, 내가 유타 대학에 다닐 때 들은 말씀인데 신학 연구원 책임자인 로웰 엘 베니언 형제님이 자녀를 양육하는 자신의 철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커다란 채소밭을 가꾸고 있었는데 무엇을 키우느냐고 묻자 그는 일상적인 토마토나 옥수수나 당근이 아니라 “소년”을 키운다고 대답했습니다.

두번째는 브리검 영 대학교의 한 학생에게서 그의 고등 학교 친구 가운데 이어서 그 혼자만 교회에서 끝까지 활동적인 회원으로 남아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는 젊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자기 친구들은 수업이 끝나고 할 일이 없어서 문제에 빠져들기 시작할 때 그는 매일 집에 가서 컵소 of 컵을 짜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그 일이 싫었지만 그때부터 그는 현명한 부모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세번째는 귀환하신 선교부장님으로부터 들었는데 그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지역에 처음 도착할 때는 일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시간을 잘 관리하는 데서나 스스로 일을 시작하는 데서 경험이 부족합니다.

일에 대한 한 가지 철학이 점점 내 마음에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결혼할 때 3가지 목표를 달성하고 싶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으로 일을 이용하는 것과, 그들이 너무 많은 자유 시간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자녀가 주님을 잘 섬기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훌륭한 배우자와 결혼한 뒤에 우리는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수년이 지나 우리는 우리가 10자녀의 부모가 된 것을 알았는데 그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그들이 가족의 재정을 도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큰 아이 넷이 스키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이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어느 성탄절에 우리는 4쌍의 중고품 목재 스키와 스키대와 구두를 마련했습니다. 성탄절 아침이 되자 아이들은 자신의 스키를 받고 기뻐했으며 앞으로 그들을 위한 대부분의 경비를 스스로 마련하라는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내와 나는 어떠한 재정 상태하에서도 실업 수당 제도를 배격하고 있었으므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자립해 나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왔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는 광고 자료를 대조해서 5천 가정에 배달하는 일거리를 맡았습니다. 우리는 수업이 끝난 후와 저녁 시간과 토요일에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광고 자료를 대조하는 일에 모두 다 참여했습니다. 얼마, 아빠가 자녀들을 서로 다른 장소까지 차를 태워 주고 격려함으로써 도와 주었습니다. 그 일은 여러 번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돈을 벌기 시작했으며 우리는 일하는 동안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 우리는 광고 자료에서 손을 떼고 전화 번호부로 일을 바꾸었습니다. 몇 해 여름 동안 우리는 화물차에 책과 아이들을 실었습니다. 날씨는 더웠고 시간은 지루했으며 어떤 거리는 찾기가 힘들었고, 어떤 주소는 찾을 수도 없었으며, 책은 무거웠고, 어떤 도로는 굉장히 멀고 가파른 경사길이었으며, 어떤 개는 굉장히 사나웠습니다. 그러

나 우리는 즐거웠습니다. 어떤 때는 한 집에 두 아이가 가서 한 아이가 책을 메리고 노는 사이에 다른 아이가 책을 배달했습니다.

어느 여름에는 한 아이가 그 일을 하는 도중에 발을 다쳤습니다. 며칠 지나자 그는 여름 동안 함께 일하는 데서 빠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스키를 좋아했습니다. 곧 그는 화물차 뒷칸에 앉아서 책의 포장을 뜯고 각 집에 책을 몇 권씩 배달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할 이야기와 웃음거리와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뽐낼 것이 많았으며, 잠이 안와서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즐거웠으며 성취감을 맛보았습니다.

그 다음 일은 우리 장님이 선교사로 나가기 전례에 잔디깎는 일을 착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래 뻘치만 거의 고장 없이 잘 가는 1962년형 트럭과 잔디깎는 장비를 몇 대 구입했습니다. 첫째는 그가 대부분의 일을 혼자 했으며 이따금 동생을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운전 면허증을 가진 동생이 아무도 없었으므로 다음해에는 아빠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광고를 하고 입찰에 응하고 소계를 받고 해서 고객의 수를 늘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빠가 처음으로 잔디를 깎는 날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날이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알기 위하여 그 도시의 끝까지 가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가 돌아오자 제초기 한 대가 또 망가졌으므로 다시 도시의 끝까지 갔습니다. 그 일을 하는 데 몇 시간을 보내자 차남이 아빠를 보면서 “아니 우리는 여름 내내 이런 일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계속했으며 이제 4년째가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목이 부러질 때, 지하실에 물이 넘칠 때, 갑자기 비가 올 때, 트럭 엔진이 타버렸을 때, 장비가 망가졌을 때, 아빠가 어떤 사람의 수상 작품인 분재를 손상시켰을 때, 복잡한 길에서 트럭의 앞 바퀴가 빠져 나갔을 때든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비가 잘 돌아가고, 트럭도 잘 달리며, 햇빛도 밝게 빛나고, 우리의 일정표대로 손조롭게 진행된 날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누군가가 트럭의 뒷문을 잠그는 것을 잊은 날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고객에게 가는 동안 우리의 장비가 하나씩 멀어져 나갔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지 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분명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우리의 십대 자녀들은 모두 상당한 선교사 기쁨을 모았습니다. (2)만 11세가 넘는 우리 아이들은 모두 자신이 직업을 갖게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3)일요일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4)아이들은 귀중한 기술을 배웁니다. (5)그들은 예산을 세우는 것과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6)또한 나는 그들의 아버지로서 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일하는 동안 그들을 훌륭히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전부 아닙니다. 말로는 설명하기 힘들지만 사실 소중한 것이 실재하는 경우도 많습니. 몇 주 전 일요일에 아이들이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자리에 앉아 가족으로서 함께 일하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 적었습니다.

18세 된 아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시점부터 열심히 일하는 것과 자신의 책임 및 가족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것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가족이 함께 일하는 데서 경험한 것을 묻어 볼 때 나는 그런 것을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기회를 많이 가짐으로써 얼마나 내 성품과 인격 형성에 도움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자신을 얻으며, 좀더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함께 일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 사랑과 존경하는 가운데 좀더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4년 동안 잔디를 깎아 온 13세의 아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것을 통해 나는 정말로 일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할 수록 더 좋은 느낌이

듭니다. 나는 형제들과 부모와 더 가까운 관계를 갖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16세 된 아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일함으로써 우리는 정직성과 신뢰성의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세 된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것을 통해 나는 돈을 잘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옷이나 기타 다른 것을 살 때 그것이 얼마의 대가를 치른 것이며, 그것을 사기 위하여 얼마나 일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간수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사 주셨을 때는 정직하게 말씀드리서 돈이 거저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잘 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은 만족감과 주고 또한 햇빛에 그으른 벗진 피부를 갖게 해줍니다."

아이들의 어머니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다른 아이들이 너무 자유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을 보며, 우리 아이들은 그들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음을 아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가끔 일 때문에 개인적인 소망을 희생해야 합니다."

나의 느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 더 많은 사랑과 화평과 단합을 가져다 주는 한 가지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웃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얼마나 서로를 기쁘게 여기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해 왔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소년 시절에 자립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고 감탄합니다. 그렇습니다. 일은 영적인 원리이며 필수적인 원리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도 "인생은 완전히 즐거움과 흥겨움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것이 가족 기도와 가족 경건 연구와 합쳐질 때 지상에 있는 가족에게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리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경제적 시련 속에서 우리가 받는 축복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복음의 경륜의 시대의 교훈은 우리가 어떤 재난은 궁극적인 면에서 축복이 되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몇 해 전에, 내가 속해 있던 고등 평의회 회의 현명하고 훌륭한 회원인 제임스 티 에릭슨 감독이 한 말씀에서 나는 큰 감명을 받았읍니다. “우리 세대에는 경제적인 시련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경제적인 시련에 처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축복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현재 불황기에 접어들고 있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경기 후퇴기에 있는지 짐치기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기 후퇴기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기이며, 불황기는 졸라매 허리띠도 없는 시기이다.” (부라우더 스미커 백과 사전, 46페이지)

세상의 많은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꼭 어려운 시기에 들어섰읍니다. 적장과 애써 모은 재산마저 잃어버리고 있는가 하면 음식물과 입을 옷마저 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일생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한번쯤 겪든지, 아니

면 장차 겪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전도서 9:11)

구세주는 아버지에게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를 증거하였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악인과 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마태복음 5:45)

복음의 경륜의 시대의 교훈은 우리가 어떤 재난은 궁극적인 면에서 축복이 되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예는 인류 전체에게 보편적으로 큰 의미를 주고 있지만,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시련을 겪게 될 때 우리 개인에게 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구세주의 크신 고난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불행이었으나, 그의 속죄의 희생으로 인간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구속되었읍니다. 전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이 믿음의 피를 뿌렸으므로, 많은 국가에서 현재 복음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니파이인들은 시련과 재난과 고난의 역사를 지내 왔지만,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힘과 발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귀중한 가치를 배우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해마다 새로운 기회가 따르게 됩니다. 찰스 디킨스는 두 도시 이야기라는 책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전개했습니다.

“때는 가장 좋은 때였고, 가장 나쁜 때였고, 지혜의 시대였고, 어리석음의 시대였고, 신념의 시대였고, 불신의 시대였고, 빛의 계절이었으며, 암흑의 계절이었으며, 희망의 봄이었으며, 절망의 겨울이었고, 우리 앞에는 모든 것이 있었고, 우리 앞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두 도시 이야기, 뉴욕, 더블데이,

영국의 라이체스터에는 오래된 교회의 바깥 벽에 참으로 훌륭한 생각이 담겨 있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1654년 이 나라 전역에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더럽혀지고 있을 때, 존남작, 로버트 헬리 경은 이 교회를 세웠다. 그는 최악의 시기에 가장 훌륭한 일을 했으며, 참혹한 재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다 주었으므로 가장 큰 찬사를 받을 만하다.”

국가적인 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 경향은 제쳐 놓고라도, 어느 때 누구에게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는 닥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홍수, 화재, 지진 등과 같은 천재지변을 포함한 갖가지 불운으로부터 빚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와 질병으로 의료 및 병원 진료비로 뜻밖의 지출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불운이 닥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실직과 인플레이션은 열심히 축적한 돈을 잠시만에 앗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시련 때문에 개인적인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실망과 좌절은 흔히 불운과 함께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때때로 가족 관계에 긴장감을 더해 줍니다. 그럴 때는 흔히 우리가 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없이 견디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재난이 될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익스피어는 전 공작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경은 참으로 유익하고 아름다운 것이요.
이것은 움투꺼비처럼 보기 정그럽고
독살스러운 것이요만,
그 머리엔 귀한 보석이 있지 않소.
(뜻대로 하세요, 제2막 제1장, 12-14행)

경제적인 시련의 장구한 영향은 흔히 인생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결정됩니다. 어느 작

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물질로 된 것이라도, 어떤 사람의 위장에는 영양분이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 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똑같이 실망을 느낀다 해도 어떤 사람은 그로 인해 영혼이 순화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영혼의 비참함을 느낀다.” (윌리엄 매튜, *윌스터 백과사전*, 오덴하이머 퍼블리셔스, 864페이지)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는 실의에 잠긴 청소년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겠느냐고 묻는 말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물로 물을 길러 내려가는 두 물통의 이야기를 아시겠지요. 한 물통은 올라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인색하고 무서운 세상이야. 내가 아무리 번번히 물을 채워 올라와 봐도, 내려갈 때는 언제나 빈통이거든.’ 그러자 다른 물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좀 다른걸, 내가 아무리 빈통으로 내려가도, 올라올 때는 항상 가득 차 있거든.’” (대회 보고, 1951년 4월, 40페이지)

충실한 교회 회원인 조셉 스티키 형제는 얼마간 병을 앓다가, 아내와 일곱 명의 자녀를 남겨 놓은 채, 1927년 성탄 전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큰아들은 선교사로 나가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양육해 온 조카 한 명과 자녀 두 명은 후에 사망했습니다. 또 한 아들도 역시 선교사로 나갔는데 이 선교사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녀는 바느질을 하며, 보험금에서 나오는 얼마 안되는 금액으로 생활하는 등 힘들어 일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와드네의 가난한 회원들에게 밀가루가 배급되었습니다. 몇몇 젊은 형제들이 그것을 배급하게 되었습니다. 스티키 자매의 집에도 밀가루 한 부대를 가져 왔습니다. 그녀는 와드네에는 자기보다 더욱 그 밀가루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그녀는 그것을 받기를 거절했으며, 그 젊은이들에게 자기는 가족들에게 자주 정신과 자립 정신을 가르쳐 주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합당한 회원들은

감독이 제시한 교회로부터의 도움은 부담없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스티키 자매는 집에 온 젊은이들에게 교훈을 가르쳐 준 셈이었습니다. 빌가무를 배달해 온 젊은이는 바로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남은 그의 자녀들은 모두 대학을 나와 성공을 했습니다. 그들은 “있는 것으로 전지자. 그렇지 않으면 없이 지내자.”라는 것을 좌우명으로 하여 생활했습니다.

어떤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고지에서 가장 훌륭한 군인을 만들어 내신다.” (시 에이치 스퍼전, 슬픔의 훈련, #9) 경제적인 역경을 극복해 내면 여러 가지 축복이 따르게 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과 간증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충실한 회원들은 주님은 경제적인 시련의 시기에 그를 먼저 찾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성 54:10 참조) 그러나 종교적인 생활을 일찍 시작하지 못한 사람들은 좀더 부지런히 주님을 찾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와 주시는 주님의 섭리를 인식하게 됩니다. 역경의 시기에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의 우선 순위를 재평가하고 재정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신앙과 간증을 강화시키기 위한 길은 열려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겸손의 필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의지함은 겸손의 중요한 일면인 은유함을 키우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가족들은 생존을 위해 함께 가까이 뭉침으로써 서로 사랑과 협동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넷째, 개인적인 품위와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에 큰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장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뛰어넘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높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러한 것이 수없이 많다는 것

을 즐기십시오.” (작자 미상)

다섯째,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보다 힘차게 될 수 있습니다. 에드먼드 버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를 잘 알고 있고,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는 아버지다운 수호자요 입법자로서 우리 위에 군림하는 엄한 선생님이시다. 그는 우리와 함께 씨름하여 우리의 신경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숨씨를 잡고 닫게 한다. 우리의 적대자는 우리를 도와 주는 사람이다.” (“불만서 혁명에 대한 고찰,” 에드먼드 버크, 하워드 클래식스, 권 50권, 뉴욕, 피에프 홀리어 앤드 선 컴퍼니, 1909년, 24:299-300)

여섯째, 우리는 인내심을 배웁니다. 때로 경제적인 역경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일하면서 역경을 겪어질 줄 아는, 사람은 인내심을 기르게 되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물론경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역경에 처한 사람들은 “악마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도록”(엢마서 34:39) 끈기있게 역경을 이겨 내라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일곱째,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개발해 낼 수 없는 재능과 숨씨를 사용하여 진에는 이를 수 없는 높은 곳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경제적인 필요성은 유리한 조건으로 배움의 길을 열어 주게 됩니다.

여덟째, 우리는 주님을 믿을 줄 알고 두려움을 극복할 줄 알게 됩니다.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 (교성 38:30)

경제적인 불황기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적게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 연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작은 교회에 큰 광고물이 붙어 있는 걸을 지나갔습니다. ‘연례 말기 축제’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밑에 조그만 글자로 ‘불황으로 인해, 말린 자두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브라우더 스피커 백과 사전, 51페이지)

지)

카렌 닐슨은 1844년에 덴마크 알브르그의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슬하에서 훌륭한 낙농업 기술을 익혔습니다.

1861년에 카렌은 침해를 받았는데, 그녀의 개종을 아버지가 적극 반대했으므로 그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덴마크를 떠나 1862년에 일단의 스칸디나비아 성도들과 함께 유타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유타 카운티에 살았고 벤자민 프랭클린 바니와 결혼했으며, 그후 그들은 세비에 계곡에서 정착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니다.

카렌은 열 자녀를 낳은 뒤에, 과부가 되었으며, 집에는 여러 명의 자녀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의탁할 가까운 가족이 아무도 없었으므로, 덴마크의 농장에서 익힌 지식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부친에게서 배운 사육 기술로 낙농 가족을 키웠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곧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품질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그녀는 가족의 생계를 맡고, 그들의 필요 사항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렌은 여든 살이 될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소의 젖을 짜주고 아들과 딸의 도움으로 농장을 보살폈습니다. 그녀가 불러준 유산은 힘든 일과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꾸려 나가는 대로 훌륭하게 영위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역경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만 그녀를 강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우리가 경제적인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여덟 가지 축복을 앞서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경제적인 시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섯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리하고자 합니다.

1.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십시오. (마 6:33 참조) 이것을 추구하는 것에는 우리가 십일조와 후한 금식 기금을 바치는 것이 포함되며, 순종함으로써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축복받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것에는 사도 야고보가 "최고한 법"이라고

부른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야고보서 2:8)는 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것은 신의 제명을 지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영적인 힘은 개인적인 기도, 경건 연구 및 "주께서 인간에게 함당하다 여기어 내리시는 모든 것에"(모사이야서 3:19)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우리에게 어떤 특정하고, 평온한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2. 가족의 힘과 자원을 굳게 결속하십시오. 가족의 자원 중에서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는 영적인 힘에 있습니다. 함께 에산을 세움으로써 특별한 단합을 이루게 되며, 가족 평의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년 분의 식품, 의복 및 기타 다른 필수품을 저장하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합니다. 시련기에는 좀더 보통 이상의 친절한 행위가 특히 필요합니다. 쓸 돈이 제한되어 있을 때는, 미래를 위해 돈을 저축하는 것을 포함하여, 돈의 현명한 사용법을 가르치기가 더 쉬워집니다. 가족은 세상적인 소유물과 부에 지중하기보다는 영원한 면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가족의 조직은 필요한 개인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의 도움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3. 신앙을 행하십시오. 구세주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마가복음 9:23), "모든 것이 연합하여 만사 형통하라."(교성 90:24)고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대하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즐거움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비게 경험히 되고 비게 유익이"(교성 122:7) 됨을 믿는 것은 영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4. 여러분이 하는 일을 받아들여도록 하십시오. 디어더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동정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

이 주는 가장 훌륭한 상은 일할 가치가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현대의 명언*, 뉴욕: 리더스 다이제스트 프레스, 1975년, 169페이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는 임금을 작게 받고 일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고, 시장성있는 기술을 기꺼이 익혀야 합니다. 위대한 사람들 중에서는 그들이 원래 훈련받은 일과는 전혀 무관한 제이의 직업을 갖는 데서 새로운 기쁨과 만족을 찾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일을 할 합당한 기회를 통해 수입을 보충시킬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 기회에 대하여 융통성있는 태도를 갖게 되면 재정적으로 호전될 수도 있습니다. 일당을 받고 일하는 자리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품위와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정부의 실업 수당을 받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데이비드 그레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거의 언제나 힘써 일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현대의 명언*, 171페이지)

5. **빛을 지지 마십시오.** 제이 르우엔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은 “역병을 피하듯이, 부채를 피하라.”(대회 보고, 1937년, 4월, 26페이지 참조)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자율이 높은 시대에는 이것이 특히 유익한 충고가 됩니다. 빛과 계속 늘어나는 이자는 무자비한 주인과 같습니다. 일년 반 전 이 태버내클에서, 녹음 테이프를 통해 클라크 부대관장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돈을 꾸는 사람은 이자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낮이고 밤이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곁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대회 보고, 1938년 4월, 103페이지)

6. **소비를 줄이십시오.** 유다주 남부의 작은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몇 분 안되는 수입으로 어떻게 생활해 나가느냐는 질문을 받고 조지 라이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쓰지 않는 생활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의 위대한 사상가

들은 장차 어느 곳엔가는 돈없는 사회가 있을 것이라고 꿈꾸었습니다. 우리에게 관한 한, 이미 우리는 시대를 앞서 가고 있습니다.”(리본슨, “사물을 알기 위해서 유명 인사가 되지 않아도 된다”, 184페이지) 경제적인 부가 곧 영원한 축복을 주는 것은 아니며, 재정적인 어려움이 영원한 성약을 폐하지도 않습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 불황이 냉혹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불멸의 실재성을 바꾸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재림의 필연성이 예측을 불허하는 주식 시장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암에 걸렸다 해서 엔다우먼트의 약속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영화롭게도 온전합니다. 약속은 제자리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솔트레이크시티: 메저넷 출판사, 1981년, 57페이지)

예수님은 넉넉히 소출을 거둔 부자의 비유를 가르치기에 앞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누가복음 12:15)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다시는 나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그러나 이 일을 배울지니, 곧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얻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느니라.”(교성 59:22-23)

경제적인 시련기의 정련하는 불길로 한때 뭉치고 강화되어 그들의 가족을 구원하고 승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자립심—해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의 성품



매리온 지 롬니 부대판장
대판장단 제2보좌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비결은 자유로이
하나님의 계명에 따르는 것입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나는 이와 같은 수많은
복지 모임에서 말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왔는데, 여러 해에 걸쳐 이러한 말씀을
해 온 내가 전에 알았던 어느 할아버지에 대
하여 사람들이 그분은 언제 말을 그쳐야 할지
를 모른다고 생각한 것처럼 나도 비슷하게 되
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와드 모
임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가 너무 말을 길게
하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을 부탁하지 않아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걸음 그대로 지나치지 못하고, 그에게 어떻
게 하면 그들이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봉사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부탁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제 속
숨을 쉬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간단히 한 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요점만
말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태초로부터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이
가르치신 복지 원리에 포함된 단순한 진리를
사랑하며, 그들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리 해
도 싫증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자립심
의 원리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발전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때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벌어서 자립하라는 권고를 받아 왔습니다.
우리는 왜 주님께서 이 원리를 것처럼 강조하
시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그것은 자
유 그 자체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주제에 대하여, 엘버트 이 보우웬 장로
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
들이 강제로든 또는 양심의 제재를 받아서든
어떤 면에서도 강제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
다. 그것은 교회는 능력있는 사람들을 영원
히 매이게 하는 어떤 체제를 원하지 않으며,
그와는 반대로, 도움을 주는 기능이나 일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도와 자유
롭게 될 수 있는 위치로 들어서게 도와 줍니
다.” (교회 부지 계획, 복음 교리반 교재,
1946년, 77페이지)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선의의 사람들
에 의하여 수많은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돕도록 도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도와 주는 것” 근시안적인 목적
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립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오려 낸
기사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되
풀이해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사입니다.

“우리와 근접해 있는 성 오저스틴 시에서
는 수많은 바다 갈매기들이 풍요 속에서 굶어
죽고 있다. 지금도 거긴 낚시하기가 꽤 좋은
데, 갈매기들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모른
다. 수새대를 내려오면서 그들은 새우잡이
배에 의존하여 그물에서 새우를 쏘아 먹고 살
아왔는데 이제 배가 다른 곳으로 옮겨 간 것
이다.

“새우 양식업자들은 바다 갈매기들을 위해
……복지 국가를 만들었다. 큰 새들은 스스
로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우려 애 쓴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그들은 그들의 새끼들에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새끼들을 새우 그물로 끌고 갔다.

“자유,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자유로운 새인 갈매기들은 ‘공짜로 주어진’ 미끼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굶어 죽어 가고 있다! 그들은 기부받은 것 때문에 자립심을 잃었던 것이다.

“사람들 중에도 역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미국 행정부의 ‘새우잡이 배’의 새끼 그물망에서 거리낌없이 쪼아 먹고 있는 것을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의 보조가 다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대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리석은 갈매기와 같이 되지 말자. 우리는 자급 자족하는 능력을 기르고, 우리 스스로 창조하는 마음과 절약 정신과 참으로 독립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 (“어리석은 갈매기의 우화”, 리더스 타이제스트, 1950년 10월호, 32페이지)

탐을 내며 수고하지 않고 유익을 얻는 습관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더 많은 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유한 사람조차도 정부가 그들에게 이윤을 보장해 주기를 기대하는 풍조가 정착되었습니다. 선거 결과는 흔히 후보자들이 정부 기금에서 투표자를 위해 해주겠다는 공약으로 결정됩니다. 이 습관이 어느 사회에서든 진 우주적으로 받아들여져 이행된다면, 시민들이 노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합법적으로 그와 같이 할 권리를 갖는다 해도, 정부의 수용소에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현실적 및 영적인 독립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자존심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근로 소득과 불로 소득을 구별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어느 나라에서나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것이 아

니라, 자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에만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내의 많은 부모들이 가족의 생계를 실업 수당으로 이어 나감으로써 자녀들을 “우매한 갈매기”로 만들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업 수당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시민들을 실업 수당 위에 세워 놓는 정부와 마찬가지로의 죄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지역에서의 부모의 행위는 정부의 어떤 계획보다도 훨씬 파괴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감독과 다른 신권 지도자들도 워드 회원들을 “어리석은 갈매기”로 만드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원들은 재정적인 면이나 감정적인 면을 그들의 감독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실업 수당은 어디까지나 실업 수당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와 회원들이 자립하도록 이끌어 주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부의 사업은 마음대로 통제할 수도 없지만, 가정과 교회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가르치며 생활한다면, 어느 나라 정부의 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막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헨리 디 모일 부대관장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위대한 원리는 궁핍한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에게 그들이 도움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무능력한 사람, 연로한 사람 및 병자는 온갖 정성을 다해 돌보아야 하지만,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노력하여 해낼 수만 있다면, 의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역경을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정직하게 노력하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기 자신과 가족이 자립할 수 있게 하여, 어떤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필요성을 최소화시키고, 최선을 다하여 도움받은 것을 보충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굳은 신앙과 진정된 용기와 확고

한 결의와 가슴 속에 자립에 대한 애착심이 분분하고 있으며, 자신이 성취한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치고, 그들의 길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극복해 낼 수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하고, 경건하고, 근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통해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간구할 수 있는 힘으로 신앙을 키울 수 있고,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고 우리의 자립 정신과 자유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대회 보고, 1948년 4월, 5페이지)

자립심은 목적이 아니라, 목적에 이르는 수단입니다. 완전히 자주적인 인간이라도 다른 모든 바람직한 속성이 부족한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하여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그러한 자주성에 어떤 영적인 목적이 부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영혼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복지 프로그램은 영적인 것입니다. 1935년 에 그 프로그램이 소개되었을 때,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예리하게 관찰한 것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영적인 본질을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영성은 영혼, 즉 인간에게 있는 신성한 힘이 회복하는 지고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모든 창조물의 왕이 되게 하는 지존의 영화로운 은사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이기고 무한자와의 교통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은 영성 그것뿐입니다.

“그것은 햇빛은 자에게 옷을 주고, 식탁을 차릴 것이 없는 사람에게 풍부한 음식을 주며, 어쩔 수 없이 태만한 데서 오는 실망과 결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활동하게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말한다면 해도, 교회 [복지 프로그램]에서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은 영적인 것입니다. 외견상, 모든 행동은 실질적인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옷을 수선하거나 짓는 일, 과일 및 야

채 통조림, 식품 저장, 주거지 선정 등, 이 모든 것은 엄밀히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러한 모든 행위에 스며들어 있어 그들에게 영감을 주고 성결케 하는 것은 영성의 요소입니다.” (대회 보고, 1936년 10월, 103 페이지)

교리와 성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고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게 있어서 만물은 영적입니다. 어느 때에도 결코 나는 속세에 관한 율법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나니, 어떠한 사람에게나 인간의 자녀들에게나 내가 창조한 너희 시조 아담에게까지도 준 일이 없느니라.

“보라, 나는 아담에게 자신의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사람이 될 것을 허락하였고 계명을 주었으나 나의 계명은 영적인 까닭으로 속세에 관한 계명을 저에게 주지 아니하였노라.” (교성 29 : 34-35)

이 성구에서는 속세에 관한 계명과 같은 것은 없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독립심과 자립심이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립심을 잃게 하는 처지로 들어서게 될 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유도 잃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존성을 키우게 되면, 우리의 행동의 자유가 이내 줄어들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자립은 완전한 자유를 행사하는 데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자립은 있을 수 없다는 것도 또한 알았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일단 자립하게 되었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비결은 자유로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가진 자는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야곱은 니파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



니다.

“너희 형제 생각하기를 네 몸같이 하며, 만민에게 친절하며, 너희 재물을 값없이 나누어 저들로 너희같이 부하게 하되,

“너희는 세상의 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은 후에야 너희가 구하는 바 부를 얻을 것이요, 선행을 위하여 이를 좃으리니, 헐벗은 자를 입히며 굶주린 자를 먹이며 구속된 자를 놓아 주며, 병들고 고난을 겪는 자들을 살피 구제하게 되리라.” (야곱서 2:17-19)

경륜의 시대에, 교회가 조직된 지 단 9개월 밖에 되지 않았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제명 하나를 주노니,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으며 가난한 자의 호소를 들었음이니라. 부자도 내가 만들었으며, 모든 육체는 나의 것이니,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느니라.” (교성 38:16)

이 계시는 1831년 1월 2일에 주어졌읍니다. 다음달 다른 계시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섬기며 내 모든 계명을 지키지어다.

“보라, 가난한 자를 기억할지니……네 재산을 하나님께 헌납하여 저들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하느니라.” (교성 42:29-30)

같은 달에, 주님은 이 주제에 대하여 다시 언급하셨습니다. 분명히 교회 지도자들은 조금 태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민첩하게 움직이지 않았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방문하여 저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하나니” (교성 44:6)

경전에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볼 의무가 있다는 것에 관한 계명이 가득 차 있으므로 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께서 명명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 다소 역설적인 것을 느꼈읍니다. 주님은 이





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마 10 : 39)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받들으로써 우리 생명을 잃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유일하고 참된 영원한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해의 왕국에서 살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지상에서 견디어 내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섬긴다는 것은 바로 해의 왕국에서 승영의 생활을 이루게 해주는 것입니다.

섬김은 하나님 아버지께 성취를 안겨 주는 것임을 알며, 모두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명을 믿음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 마음이 순수 해짐으로써 이러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도래하는 날은 얼마나 영화로운 날이 되겠습니까? 그날이 되면 우리는 현신적으로 봉사할 때에만 참으로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되므로 명명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돕고 남에게 봉사할 때 자립을 통해 누리게 되는 자유를 깨우쳐 주도록 합시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생각하고 봉사란 하나님과 같이 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자립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

까? 텅빈 선반에서는 굶주린 자에게 줄 식품이 나올 수 없습니다. 빈 지갑에서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 줄 돈이 나올 수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배마른 곳에서는 아무런 도움이나 이해도 있을 수 없습니다. 배우지 못하고서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훌륭한 것은 영적으로 약해서는 영적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사이에는 상호 의존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배풀어 주는 과정은 가난한 자를 높이며 주고 부자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러는 중에 양쪽이 다 성결케 되는 것입니다. 가난의 굴레와 제약에서 놓여 난 가난한 사람은 계속적으로나 영적인 면에서, 자유스럽게 그들의 온전한 잠재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부자는 남는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배풀어 주는 영원한 원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인간이 일단 온전히 자립하게 되면, 그는 다른 사람을 돕게 되며, 그 과정은 되풀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립한 면도 있고 의존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힘을 지니고 있는 면에서는 다른 사람을 도와 주려 노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진실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자존심을 앞세워 다른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한다는 것은 성결케 되는 경험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모든 복지 프로그램의 원리가 그러하듯이, 자립심의 원리는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최후의 날의 사업이 아니라, 오늘날의 사업입니다. 교회의 사업에 관한 말씀에서 최근에 구현되어 강조된 세 가지 사항 중 하나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복지 사업의 목적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온전케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이러한 진리를 지켜 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이 교회 내에 있는
주님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
나와 보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사업은
거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인간의 사업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이며,
그 사업에 그의 권능이
미치고 있습니다.”
1952년 4월 연차 대회
